금주법구
항상 남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수명과 아름다움과 안락과 건강
이 네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법구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무료봉사단이 있는 불교 천축사 대전 논산시 천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월 1일 월요일(주간) 제 301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전자문화지도에 거는 기대

아직은 조금 낯선 '전자문화지도'란 말은 '이카이(electronic culture atlas information)'의 역어로, 96년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미국, 버클리대)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전자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문화를 전자지도에 올리는 작업이다. 지도라는 공간 위에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적 시간을 펼쳐 놓는다는 것이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불상'이 전자문화지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되는가를 살펴보자.

문화지도에서는 불상에 관한 정보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수인이나 옷깃의 변화와 같은 미세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시대별 특징을 읽어내고, 한 시대를 꿰지우는 문화적 양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정보들이 범세계적인 위치정보 체계인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통해 구체적 지리 공간 위에 표현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자 문화지도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주목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첫째, 정보 단위를 미세한 부분까지 나누고 유형화함으로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지도의 정보들은 활자를 단순히 디지털화 한 수준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정보 가공의 최고 형태를 창출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 자체가 국제적 형태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쉽게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스님이나 이혜은(동국대 지리교육과) 교수 같은 분들이 불상과 사찰을 소재로 문화지도의 전범을 제시하면서 한국문화 전반에 걸친 문화지도를 견인해



내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예산지원 계획을 세우고 향후 불교계의 작업 성과를 모델로 우리 문화 전반에 걸친 문화지도제작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반가운 소리도 들린다.

보물·국보급 문화재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불교 문화재를 보더라도 이 일만큼은 불교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곧 한국불교는 인류 문화사상 자랑스런 족적 하나를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윤제학 〈취재2부 부장〉



희망이 보인다

백두대간의 마루에 서서 멀리 가야산을 바라보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땅의 산하를 조망해 봅니다.
참으로 도도한 흐름입니다. 이를 일러 순리(順理)라 해야겠지요. 우리네 세상살이도 저와 같아지기를, 새해 아침의 원으로 삼아 봅니다.
'날마다가 좋은 날(日日是好日)'이라 했듯, 순간순간이 불국토의 원년이길 간절히 발원해 봅니다.
(제공=손재식 · 사진작가)

"지역사회 기여하는 사찰"

종단·사암련·지자체 연대 사회-문화 활동 강화

조계종 포교원과 24개 교구본사가 올해부터 포교네트워크 구축, 교구본사 특성화 사업 등 본격적인 지역불교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 전국의 각 사암연합회와 사찰들도 올해 정부가 선정한 '지역문화의 해'에 발맞춰 지자체와 지역전통축제를 공동주최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대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지역불교활성화의 촌망이 밝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사찰이 연계할 수 있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및 포교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포교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조계사와 용주사, 봉선사, 수말사와 인천 등 지역별 포스트가 도는 사찰을 묶어 수도권포교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신도시포교 등에 적극 나선다. 또 지역 내 주요현안들은 포스트사찰을 중심으로 지역사찰들이 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도 10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사업 실행에 나선다. 특히 9교구(동화사)는 전법단을 구성하고, 24교구(선운사)는 불교세 취약 지역별 포교대회 개최한다. 5교구(법주사)는 지역별 교양대학을 설립하여 지역불교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구본사들은 지난해 전국교구본말사주지연수회에서 포교와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는 196개 사업을 선정하고,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의 각 사암연합회도 지역불교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안동 사암연합회는 안동시가 주최하는 안동국제페스티벌 문화행사 가운데 범패공연과 유등제를 주관하기로 했다. 익산 사암연합회도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청년불자포교사업과 시민단체 연대, 익산 미륵사지석탑 앞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익산사암연합회 회장 지광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은 "지자체시대에 부응하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사찰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계층포교 활성화, 지역사회에서의 사찰의 지도적 위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 · 7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단협 19일 신년하례법회

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19일 '국운융창 및 국민화합을 위한 신사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오후3시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열리는 법회에는 종단협의회에 가입한 26개 종단의 총무원장과 신도단체 대표, 정·관계, 노동·사회단체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한다.

종단협의회는 구랍 28일 상임이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일붕선교종의 회원 재가입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혜암 종정 신사년 법어 발표

조계종 혜암 종정은 구랍 27일 발표한 신사년(辛巳年) 신년법어를 통해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함께 본 고향에 가기를 기원한다"며 "산색은 푸르고 광명은 언제나 밝도다"고 설파했다.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과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진각종 총인 각해 대종사 등 주요 종단 최고지도자도 신년법어를 통해 새해를 축하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주요 종단 신년메시지 4면)

정성운 기자

국방부 군종실장 "선도책자 폐기불가"

종편위, 장관사과 요구

종교편향 내용을 담고 있는 군장병 선도 책자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백과〉 발간 책임자인 국방부 군종실장이 문제의 책을 전량 수거, 폐기처분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구랍 26일 박욱병 군종실장(목사)은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이하 종편위) 윤승환 주임과 전화통화에서 "그 책자가 문제가 된다면 기독교용으로 활용하고 불교적인 내용을 담은 선도책자를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방부 김승렬 인사복지국장이 구랍 6일 종편위를 방문해 밝힌 '문제의 책자를 전량 수거 후 폐기하겠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박 실장의 발언과 관련, 종편위는 구랍 28일 성명서를 내어 국방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제의 책자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고 그 진행경과를 공식 통보해 줄 것과 김대중 정부와 국방부에 대해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두식 기자

2001년 새해특집 28면 발행

미리보는 2001년 불교계 5면
지역불교 활성화 하자 6 · 7면
신년좌담 '대장경을 읽읍시다' 8 · 9면
가까이서 본 큰스님 -송담스님 14 · 15면
제6회 신행수기 입상작 발표 22 · 23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교서적의 모든것! 여사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사아문닷컴
www.yos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일심불원
불사및
불교 용품 일체
02-725-2030
02-725-2040

천년태양 여의주 입에물고
장엄한 아침龍이
거룩하게 솟아올라
大우주를 토해 내니

玉龍子 스님의 구도적 예술세계



신사년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시방법계에 충만하소서
경제번영 민족평화통일 불교중흥기원 불교문화제전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국정토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금년봄 제5회전을 성황리에 거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 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증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나라의 번영 민족의 평화통일 불교중흥 동참불자님의 길상성취를 기원하며 무려 10여m에 이르는 대작등 그동안 정성을 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신년기원전 기념법회 : 2001년 1월 10일(수)오후 2시
❀ 장소 : 경인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0-1 인사동사거리-안국역 중간지점 TEL:733-4448~9)
❀ 작품전 : 2001년 1월 10일(수)오후 2시 ~ 1월21일(일) 오후 7시(12일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 기념불교문화강좌 : 1월10, 11, 14, 17, 18, 21일은 오후2시~오후3시30분, 1월12, 13, 15, 16, 19, 20일은 오전11시~12시30분
· 작품전 기간중 불교계 권위 법사님의 기념 강연 계속됩니다.
❀ 기념불교문화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 참석하신 불자님께 대길상 호신불 목걸이, 교통안전호신불, 기념염서, 기념염주, 공부하는 자녀를 위한 길상도 응통, 비디오 법문테이프등을 드립니다.



玉龍子대길상도의장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획득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명나는 대작거립니다
玉龍子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FAX:511-6216
TEL:511-6210~5/3443-9871~7/3446-2158,2185

신년사설 불국토의 서원을 실현하자

오늘의 불교는 오늘의 우리 불자들이 세운 불국토이다. 부처님의 불국토가 그 수행의 공덕으로 장엄되듯이 '오늘' 우리 불교의 모습은 우리 불자들의 서원과 신행으로 장엄된 우리들의 불국토이다.

불국토 건설이라는 말은 아득한 미래의 일로 돌리려 해서는 안된다. 불교는 훌륭하지만 오늘의 불자들이나 승단이 그 훌륭한 가르침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변명해서도 안된다. 바로 오늘의 우리 불교 교단은 오늘의 우리 불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공을 초월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바로 오늘 우리의 신행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당하다.

공동체 더 아름답게

이렇게 보아야만 바로 오늘의 우리 불교 교단을 통하여 우리의 불국토를 건설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우리 불교 교단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신행을 돌아보며, 오늘의 교단을 바로 세움에 의하여 우리들의 불국토를 장엄하고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이 생기게 된다. 실로 우리 불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이라는 떨어질 수 없는 두 과제를 분리시켜 생각하거나, 너무 추상적인 영역에 둔다는 데 있다. 불교는 전혀 이질적인 사회 속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개인들을 키워내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이 열어 보이신 참다운 생명을 실현해 가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공동체야말로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신행으로 가꾸어내는 불국정토인 것이다. 그러한 정토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며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불국정토를 넓혀가는 것이요 장엄하는 것이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 등을 비롯한 불교계의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들의 신행이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불국토라는 눈으로 새롭게 보자. 나와 관계없는 남의 일로 비판하던 자세를 버리고, 오늘의 불교 현실에서 우리의 신행을 돌아보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상보다 실천중시

그리고 우리의 불국토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않도록 내 개인의 신행을 챙기며,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불국토를 장엄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불교의 중심을 이루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가 이런 올바른 의식으로 설 때 오늘의 불교가 바로 설 것이다.

이제는 우리 불교가 가진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매달려 씨름하는 소승적 자세를 버려야 할 때이다. 앞서 말한 바른 인식 아래 우리가 세워가야 할 불국토에 대한 서원을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새로운 힘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서원이 바르게 서고 그것을 향한 뜨거운 움직임이 일어날 때에만 오늘의 문제도 바르게 보여지고 바르게 해결된다. 일시적인 고육책으로 문제를 미봉하는 관행으로는 불교를 바꾸어 나갈 수 없다. 개인의 삶이나 사회나 부정적인 질타보다는 긍정적인 올바른 서원에 의해 이끌어져야 바르게 서는 것이다.

우리 한국불교가 오랜 미망의 늪에서 벗어나 오늘의 사회에 바른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힘있는 생명으로 우리 사회에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불자들이 함께 하는 서원이 바르게 서야만 하는 것이다.

늘 사홍서원을 되뇌이는 것으로 서원을 발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근원적인 서원을 우리의 현실속에 실현할 수 있는 가까운 서원들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너무도 아득하여 오히려 관념의 영역에 머물 위험이 있는 큰 서원에 징검다리를 놓아야 한다.

밝고 살맛나는 세상

또 한번에 모든 불자들이 함께 하는 서원을 남이 단번에 세워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나의 서원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야 한다. 너의 서원과 나의 서원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모여서 함께 하는 큰 서원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현실 문명과 사회의 병폐를 뒷전에서 지적하며 정신적인 안식처로 자처하는,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불교의 모습을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서원으로써 나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불자, 불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새해라는 시간의 전기, 그것도 진정한 새 천년의 시작이라는 2001년을 맞으면서 그 시간의 기점에 우리의 참된 공덕을 쌓자.

우리의 서원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우며, 그것을 나누고 모아 희망찬 미래 불교의 모습을 그려내는 일을 시작하자. 내가 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좀더 맑고 밝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자신과 불교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그 서원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나갈 자신과 불교의 이정표를 그려보자. 우리 주변에 이미 그러한 미래를 향해 자라고 있는 소중한 싹들을 발견하려는 긍정적인 눈을 뜨자. 한 술 밥에 배부르려 하기보다는 그러한 싹들을 소중히 키워 나가며, 자신도 미래 불교의 아름다운 동산을 장엄할 그러한 싹이 되기를 서원하자.

밝는 새 아침, 그러한 소중한 싹들의 서원들을 나누고 또 모아 부처님 땅이 되고자 하는 서원으로 새해를 맞는다.

조계종 전문포교사 양성

2년과정 아카데미 설립…이론 · 현장수업 병행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이 포교사전문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4월 개교할 예정인 포교사전문 아카데미는 정보화 다양화 시대를 맞아 포교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포교현장 경험위주의 교육을 통한 전문포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교사 전문아카데미는 2년 과정 24학점 이수제로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 2시간의 이론수업과 현장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수강과목은 불교상담, 포교방법론,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수행론, 지도자조직 경영과정, 신도기본교육과정, 불교와 사회, 타종교포교방법 이해와 연구, 불전개설 등이며 과목당 30시간씩 총 270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 포교사교육과 불교대학원 수료, 사찰 수행프로그램 참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국가자격 취득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아카데미를 졸업한 포교사는 포교활동 실적과 과목이수 능력, 포교논문, 종합평가를 거쳐 전문포교사 자격을 수여받는다. 전문포교사는 포교원이 정한 지도자교육을 이수한 후 포교법에 정하고 있는 전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포교사단은 이 달 말까지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커리큘럼 및 운영학칙을 제정할 예정이며, 2월경 교재발간, 강사진 구성을 확정한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해두고 있다. 포교사 아카데미는 올해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시스템을 보완한 후 2002년부터 포교사전문 아카데미 교육을 분교형태로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병 단장은 "굳건한 원력과 신앙심을 갖춘 전문포교사 양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포교사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포교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中 외국인 선교 자제 요청

종교부국장 5일 방한…종교정책 설명

중국 정부의 종교국 고위간부가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 불교 등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한국종교계의 중국 포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관광부는 구랍 22일 중국 종교국 왕쩌안 부국장이 5일부터 6박7일간 방한해 각 종교지도자와 문광부 종무실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왕 부국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중국의 종교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개신교계의 중국선교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는 3000여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등이 모여 법회를 봉행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제정한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의 종교조직 창설, 사무기구 설립,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할 수 없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종교신도를 확장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포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조불련 창립 55돌 법회

6.15 선언 실천 주장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이 창립 55주년을 맞아 구랍 26일 평양에서 기념보고회를 가졌다고 평양방송이 구랍 27일 보도했다.

평양방송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보고회에는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 · 시 · 군 위원회 교직자, 각 사찰 주지, 평양시내 승려와 신도, 하객들이 참석했으며, 박태화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온겨레가 확고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45년 결성된 조불련은 70~80년대에는 대남선전활동을 주로 했으며, 이후에는 식량난 해소를 위한 지원 창구와 남한불교계와의 접촉을 맡고 있다. 북한은 조불련 주최로 88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절 열반절 등에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12월 27일 취임법회를 가진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단전반에 대한 발전책을 마련 임시종회에 제출하고 투명한 총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단 발전대책 조속수립"

태고종 종연총무원장 취임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종연스님의 취임법회가 구랍 27일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33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법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에 이어 일운 총무부장의 인사말, 종정 덕암스님의 법어, 총무원장 약력소개, 취임사, 각계 축사,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취임사에서 종연스님은 "개혁을 요구하는 시절인연과 종도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절대인 애종심과 공심을 가지고 종단의 중흥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종단 전반에 대한 발전책을 마련하여 신년도 임시종회에 제출하고, 전 종도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총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공약사항 이행을 재천명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포교원 신년하례

13~14일 계룡산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3, 14일 공주 계룡산 갑사유스호스텔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하례법회는 포교원과 산하단체 임원들이 참석하여 2001년을 시작하면서 포교원력을 다지고 2000년을 되돌아보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각 교구본사 포교국장스님과 군승단 경승단, 포교사단, 교법사단, 재앙신도회 등의 포교 · 신도단체임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국회 성보조사비 백지화

교계 "예비비 충당" 촉구

교계의 관심을 모았던 문화재청의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비'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이 조사비는 일제시대의 '본 · 말사 소장 목록 조사' 이후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불교 문화재를 조사할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황 조사를 토대로 문화재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이에 대해 교계는 "정부는 왜 중요한 기초조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는가"라고 반문하고, "비지정문화재 현황 조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는 문화재청이 2001년부터 계획했던 연차사업으로, 1개 도마다 5억 원을 책정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정 · 비지정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이 과정에서 비지정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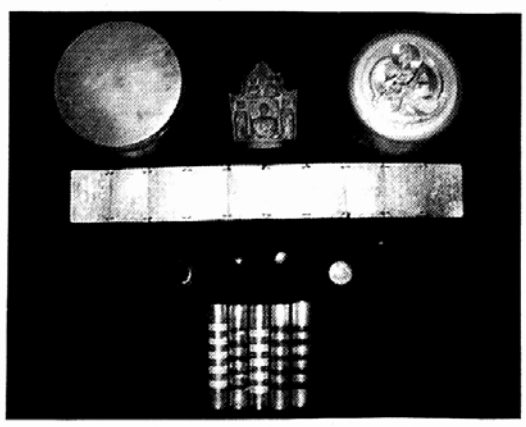
현 대 만 평 박구원



새해엔 신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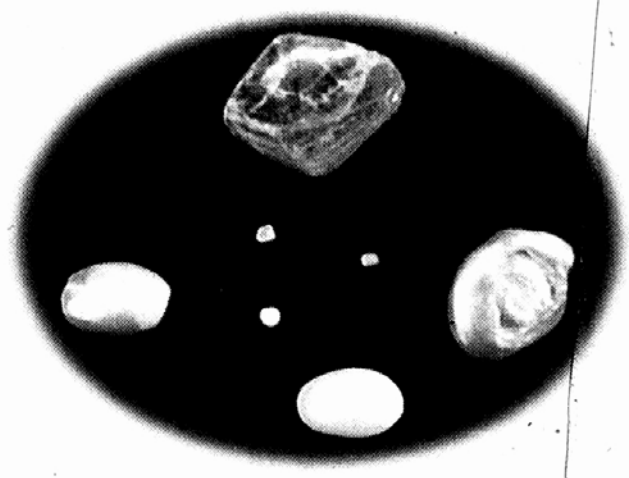
신년벽두! 호압사에 가면 희유한 인연공덕이 있다

귀의삼보 하옵고,
신사년 새해를 맞아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과 가피가 충만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호암산 호압사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서원으로 참불자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여 무량한 지혜와 공덕의 복전을 일구는 삶을 살아 갈 것을 서원하기 위해 부처님 성도일로부터 49일간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행 합니다. 일찍이 태국 왕실사원에 봉안되었다가 참으로 희유한 인연에 의해 불가사의한 과정을 거쳐 호압사에 봉안예정인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해를 설계하는 시간, 호암산 호압사에 오셔서 희유한 인연공덕을 맺으시고 활기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왕실 사원에서 모셔온 사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 안내>
◎ 입 재 : 2001년 1월 2일 (음력 12월 8일) 오전 10시
◎ 회 향 : 2001년 2월 19일 (음력 1월 27일) 오전 10시
◎ 동참금 : 2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 주지 석원욱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34번지
전화 02) 803-4779 팩스 02) 891-0770



호압사의 유래
서울의 안녕을 지키는 호압사

호암산 호압사는 조선의 개국에 때맞춰 창건된 사찰이다. 조선 태조 2년에 설치된 신도궁궐 조성도감에서 궁궐을 지었는데 궁궐이 다 지어질 무렵 건축물이 허물어지기를 몇 차례, 태조는 꿈에 호암산이 호랑이 형세여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된다. 태조의 왕사 무학대사도 호암산이 호랑이가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범바위 서쪽에 절을 세우고 북쪽으로 10리 지점에 궁교(弓橋)를 만들고 또 북쪽 10리 지점에 사자암을 지었다.

호압사는 이같은 풍수지리상의 비보사찰로 지어져 조선 5백년의 역사 동안 한양을 굽어보며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지켜 온 유서깊은 사찰이다. 호압사는 호암산의 정기가 모아져 있는 호랑이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도처로 유명하고 스님들의 정진원력이 성취되는 수승한 도량으로도 알려져 있다. 호압사는 1994년 10년 중창불사를 발원하여 일주문을 세우고 법당과 삼성각을 신축하고 요사채도 단장했다. 앞으로도 보제루와 범종각을 신축하여 사격을 일신하기 위해 중창불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목어

행복을 향하여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귀의합니다. 서방정토 멀다해도 한 마음에 깨달으면 그 자리가 정토세계요, 권력이나 부자라고 거들먹거리지만 거짓으로 행세하고 남을 속이고 업신여기면 전생에 지은 작은 복덕마저 다 까먹어 다시 거지되어 천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숫타니파타〉를 통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속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원한과 분노로부터 벗어나 남을 해치지 말라. 어미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식을 지키듯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을갈고 닦아라. 위거나 아래거나 모든 생명에게 나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적의를 품지 말고, 선행을 갈고 닦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행운과 복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오지 않으면 운이 없다 하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남을 원망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빼앗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스스로 진실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행복해지기 위해 믿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 행동하며 마음을 성자처럼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내가 서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감적 감각에 의해 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합시다. 행복은 바로 그 시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고 일정한 주인이 없습니다. 행복은 허공에도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고 내 영혼이 머무는 곳, 내가 진실과 더불어 느껴하는 그 곳에서 찾아집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행동하는 자의 눈에만 보이고 나타납니다.

행복은 성불의 길입니다. 최상의 행복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새 마음을 새롭게 열어봅시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그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의 미소를 떠올려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서원합시다. 복덕과 지혜를 구족한 부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진심으로 발원합시다.

법 산(동국대 정각원장 · 본지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연합감찰제 '재론'

각 종단 합심 비행 승려 단속 승단 권위 회복

스님 목사 등 수행자와 성직자에 대한 자정을 촉구하는 각 종교 신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랍 20일 재가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 교단 개혁을 위한 종교NGO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종교 밖에서도 '종교 비판'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해 9월과 10월 계간 〈당대비평〉과 무크지 〈인물과 사상〉은 '권력으로서의 한국종교'를 분석하고 '종교는 영원한 성역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단의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불교계의 경우, 스님들의 비리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는 등 불교 교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가고 있어 연합감찰제도의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9년 초 종단협의회에서 연합감찰위원회 설치를 논의했으나, 이후 "실현성이 적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됐다.

종단협의회는 당시 회장이었던 고산스님의 제안으로 연합감찰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연합감찰위원회 설치 규정과 각 종단 총무원장이 서명하는 협약서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조계종 사태 등으로 고산스님이 물러나는 등의 일을 겪으며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당시 초안한 협약서에는 연합감찰위원회 설치 목적을 "비행승려를 각 종단 연합으로 단속하고 규제함으로써 승단의 권위와 질서를 재정립한다"

성직자 비리 언론보도 잇달아
"종단별 호법부 활성 전제조건"

고 밝혔다.

협약서에서는 또 위원회의 업무를 △개인사취 목적의 탁발행위 단속 △비행승려(도박, 음주난행, 승단질서 파괴) 단속 △혹세무민하여 승단 또는 승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이비 행위 단속 등 승가의 권위 실추를 막는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또 소속 종단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승려의 타종단에서 승적 취득 및 사찰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각 종단의 호법업무 활성화가 연합감찰위원회 설치와 가동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몇 종단을 빼고는 부서는 있으되, 사실상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조계종만 해도 상임감찰과 과장, 주임 등 8명의 인원이 있으나, 역부족이다.

조계종 호법부는 최근 한 스님이 쓴 책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문제의 책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이적을 강조하고 있어 불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의 책을 쓴 스님이 조계종 승려가 아니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교계언론을 통해 문제의 책에 현혹되지 말라고 불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전달하기로 결론지었다. 연합감찰제를 시행할 경우, 조계종 호법부에서 해당 종단에 통보해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연합감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각 종단 호법부서의 활성화 등의 과제가 있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종단협의회에서 연합감찰위원회 구성안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정대스님 "선암사 주지 발령 않겠다"

태고종 새 총무원장 종연스님에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오른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종연스님이 환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조계종에서 선암사주지를 발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대표적인 조계-태고 분규 사찰인 순천 선암사 문제를 임기 내에 매듭지으려는 의사를 보여 주목된다.

정대스님은 구랍 26일 총무원장실에서 태고종 새 총무원장에 당선된 종연스님이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선암사에 조계종 본사주지 발령을 내지 않을 것(합의서를 써주라고 사회부장 양산스님에게 구두로 지시)이며, 태고종에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 분규를 종식시키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이어 "이제는 스님들이 싸우면 모두 공멸하는 시대이기에, 원래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종단이 화합해 한국불교를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연스님은 "이제는 조계종이 태고종을 도와줘야 할 때"라면서 "내년도 태고종 총무원 청사 이전 불사(강남 불국사 1500평 부지 이용)에 조계종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대스님의 발언에 대해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두 종단이 화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구본사의 포기 문제는 신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선암사는 50년대 조계-태고 두 종단 간 분규로 법적인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으나,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으며, 관리권은 순천시장에게 있다. 97년에는 조계종에서 주지로 발령받은 모 스님이 접수를 시도하다 이를 막는 태고종 스님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정대스님은 조계종에서 주지로 발령받은 스님이 여전히 선암사 접수에 관심이 많은 것과 관련, "요즘은 본사 주지들이 총무원장 보다 높은 것 같다. 그 스님이 자꾸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고 말해 선암사와 관련해 통제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태고종에서 총림으로 지정한 선암사는 구랍 15일 사찰운영위원회를 열어 24대 주지로 지허스님을 선출했다.

두 총무원장 스님은 또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면 협력해서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면서, 선거가 끝나도 집권당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새 아 침 칼 럼



윤 구 병
변산 공동체학교 교장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밥상머리는 나눔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제 몸 바쳐 남 살리는 자리이지요. 좁쌀 하나 뿌려 가꾸면 수천 알의 좁쌀이 달립니다. 그러나 그 좁쌀이 온 세상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어미 좁쌀의 소망은 대가 끊기지 않고 새끼 좁쌀이 살아남는 거지요. 한 알만 제대로 싹터 대를 이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나누어줍니다. 나누어 먹여 다른 생명체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좁쌀의 섬김입니다. 우리 밥상머리에 오르는 밥, 반찬, 어느 것 하나 살보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제 몸을 바쳐 우리를 살립니다. 몸으로 나누고 몸으로 섬긴다는 게 이렇게 숙연합니다.

저는 처음에 변산에 와서 '음력 오월 단오날까지는 염소가 먹는 건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다'는 말을 들고 귀가 번쩍 뜨인 적이 있습니다. 요즈음 이 말을 곰곰 되새기면서, 염소가 뜯는 풀을 눈여겨보는 헐벗고 굶주린 아이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있는 집 사람들은 대대로 갖은 입맛에 길들여져서 아무 풀이나 입에 대지 않습니다. 밥상이 휘게 갖가지 산해진미를 차려 먹는다지만 저 나름으로 다 족보가 있는 음식이지요.

다른 생명체 살리는 일에는 관심없으면서 내몸 살릴 궁리 어찌 낼 수 있나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밥상에 오른 음식을 눈여겨본 적이 있나요? 한해를 두고 지켜본 적이 있나요? 그 밥상에 조밥, 보리밥, 가끔 가다 명절에 하얀 이밥이 놓이고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는 동치미나 깍두기, 배추김치가 놓이는 일이 있으나 놀랍게도 반찬 가운데 반 이상은 사람이 씨뿌려 가꾼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여섯 해째 변산에 살면서 해가 갈수록 더 절실하게 저도 우리 식구들도 사람이 짓는 농사보다 하느님이 자연이라는 논밭에 가꾸시는 농사를 먼저 배워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땅을 살린다는 게 내 논 내 밭만 살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산도 살리고 들도 살리고 개펄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고, 사람이 이루어낸 제도와 벌이는 싸움이고, 빗나간 가치관과 맞서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살아 있는 물논은 우리에게 맛난 우렁이, 미꾸라지, 민물새우 들을 아낌없이 길러서 밥상머리에 올려줄 것이고, 살아 있는 시냇물과 둠벙은 애써 기르지 않더라도 피라미, 붕어, 잉어, 가물치, 메기 들을 푸지게 먹여 줄 것이고, 살아 있는 들판은 온갖 약초와 나물을 거저 줄 것이고, 살아있는 개펄은 그야말로 온갖 산해진미를 마련해 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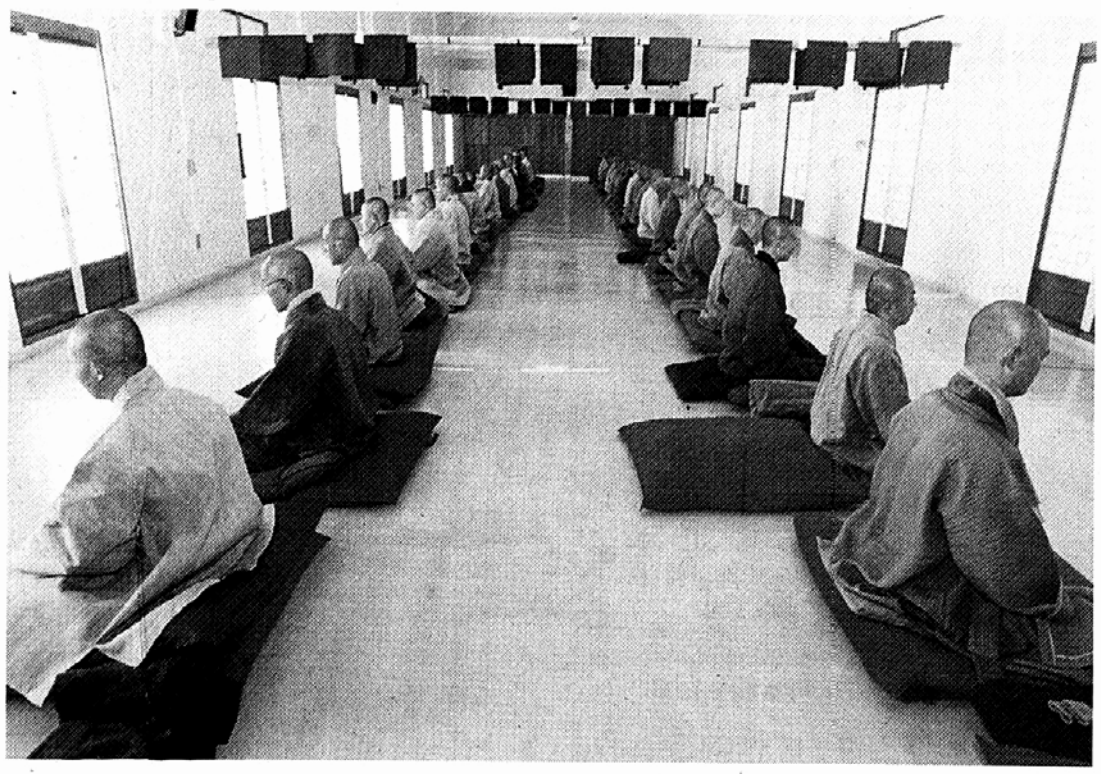
살림의 바탕에 먹을 것이 으뜸인데, 그리고 '살림'이라는 말이 '죽임'에 맞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뜻을 지닌 말인데, 다른 생명체를 살리는 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찌 내 몸 살릴 딴 궁리를 낼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자연이 거저 주는 단백질 보급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공장에서 갖가지 끔찍한 독약 성분이 든 사료를 먹여 키우는 닭, 돼지, 소를 먹어서라도 몸보신을 하러 들다 보니 제 명에 죽지 못하기 일쑤지요. 농촌이나 어촌에 남아 땅 살리는 일에 앞장설 젊은이들을 죄다 감옥같은 학교나 사무실이나 공장에 가두어 혹사시키다 보니, 늙은이들이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로 땅을 죽이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 논밭에서도 들에서도 안심하고 거두어 먹을 물이나 곡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물으셨나요?

참 답답하고 미안한 말이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우면서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있습니다. '굶으렴.' 중국의 백장선사가 '하루 짓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살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죽임' 에만 온통 눈이 팔려있는 끔찍한 중생들 더 죄짓기 전에 굶어죽는 게 더 낫지? 안 그래? 울컥하는 마음이 앞서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그동안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죽임'의 대열 맨 앞에서 날뛰던 전력이 있어서입니다.

먼저 어떻게 먹을까요?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먹읍시다. 경험에서 얻은 몸보신 방법인데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먹는 것'(小食多嚼)이 건강의 비결이더라고요.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요? 사람이 초식동물이었으므로 풀을 많이 먹어야 하고, 사람이 기른 것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자연에서 나는 것을 많이 먹읍시다. 다만 이것도 제 손으로 뜯거나 잡아야 안심할 수 있겠지요. 모두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佛紀 2545年



謹 賀 新 年

山色은 千秋綠이요
光明은 萬古明을!
산색은 항상 푸르고
광명은 언제나 밝도다

— 宗正스님 新年法語 中에서

佛紀 二五四五年 元旦

大 韓 佛 教 曹 溪 宗

宗 正 慧菴性觀
總務院長 月庵正大

불교지도자 신년메시지

산색은 늘 푸르고 광명은 언제나 밝다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함께 본 고향에 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꽃 빛은 찬란해도 지고야 말 것
이 세상 뉘라서 죽지 않으리
덧없는 험한 산을 오늘 넘어서

비고 비어 한 물건 없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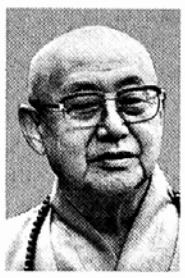
험한 꿈 꾸지 않고 취한 사람 노릇 않으리.

꿈속에 밝고 밝게 나고 죽음 있더니
깨친 후에 비고 비어 한 물건 없어라
너와 내가 없고 부처와 범부도 없나니
적멸한 성품 가운데 묻고 찾지 말라.

모든 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이는 곧 여래의 성불함이로다
좁은 소견으로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알지 못하기에 그대를 위해 결단해 주네.

산색(山色)은 천추록(千秋綠)이요
광명(光明)은 만고명(萬古明)을!
산색은 항상 푸르고 광명은 언제나 밝도다.
아 악-.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땅에는 온갖 만물 만상이 있어
만물 만상에 사람
또한 있구나.
만물 만상 가운데는 사람이 제일이라.
사람이 제일임은 부처가 될 수 있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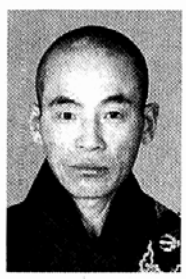
너와 내가 하나됨이 통일

사람이 부처됨은 모든 차원과 경계 여읨이라.
나 없어야 온 천지와 하나됨이라.

새 해가 밝아 희망의 새 해가 다시 뜨니
일체 만물이 새 생명 얻어 기뻐함이요, 너와 내가 모두 함께 손잡고 기뻐함이라.
너와 나의 벽을 헐고 하나됨이라.
너와 내가 본래 하나이었음이라.

신사년이 밝으니 지혜 또한 밝아라.
교묘한 지혜 버리고 참된 지혜 얻어 기뻐함이라.
새해가 밝아 조국통일의 앞날이 밝아라.
너와 내가 하나됨이 통일이라.
너와 내가 하나되야 남북이 하나됨이라.
남북이 통일됨이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새 해 첫째로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되기를 희구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위정자(爲政者)의 무아(無我) 사상에 입각한 대아(大我) 정신이 소용되는 것입니다.

새천년 첫 번째 해를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인간 존엄성으로

새마음으로 새사람 되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가 부처님의 정법(正法)으로 사는 정의(正義)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가 정법에 입각해서 영위되어야 하고 관민(官民)이 모두 정법과 질서를 지켜 생활할 때 도의(道義)와 정의와 광명의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더욱 화합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돕는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하며 양보하는 가운데서 화합한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더욱이 각계각층의 대립과 갈등 · 불신(不信)이 우심해 가는 오늘날 관용과 이해와 이타로써 화합하는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폐쇄된 북녘땅의 고난에 시달리는 동포들에게 화합과 이타(利他)의 손을 뻗치어 민족의 통일 의지를 드높이며 국토가 통일되고 민족이 자결합할 새역사를 창출합시다.

진각종 총인 각해 대종사



해와 달이 서로 비치는 곳에/삼라만상이 조화롭게 장엄을 이룸이라/따로 부처님의 금색광명을 찾으려고 하지말라/ 이 몸이 곧 법계의 주인공인 비로법신의 빛이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새로운 천년에 간직한 희망이 채 현실화되기 전에 심성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

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려온 결과 많은 이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신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데서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만능 시대에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을 앞세워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을 자신으로부터 찾고, 모든 변화의 출발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자세가 바로 세상을 자주로 사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신 의미에 통하는 말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주인의식을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국가 사회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변화의 문화를 만들어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주는 회향의 삶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



대망의 신사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광명으로 나라의 융성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의 한해를 여는 오늘 무엇보다도 대승보살의 서원을 굳게 세워 실천

민족·인류에 희망 빛 주자

하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가 부단한 자기혁신과 반성으로 민족과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종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대화와 양보로 화합하는 불교, 이웃에게 따스한 자비를 베풀어주는 불교, 민족통일의 시대를 선도하며 새 정보문명 시대를 앞서가는 불교가 되기를, 그리고 공동체의 건설에 모든 사부대중이 한 마음이 되어 정진하기를 기원합니다.

화합·경제안정 발원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



불일(佛日)이 증휘(增輝)하고 법륜(法輪)이 상전(常轉)함이여!

희망찬 2001년, 이제 우리는 방황과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참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이제 소아적인 자기편견을 넘어서 대승적인 보살정신에 입각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을 실천하여 이나라 이 국토를 정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2001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국토에 평화적 정착, 그리고 한민족의 화합과 시급한 경제안정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다같이 힘을 합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이 땅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이 난국을 해결해야만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신 찾자

총지종 종령 록정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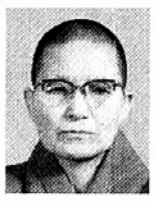
해마다 돌아오는 새해 아침이건만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더 많이 들리니 마음 또한 무겁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행은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으니 언제 진정으로 맑은 새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져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

교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 사회의 마지막 정신적 보루로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수행으로 자신을 다듬고 중생을 이끌어야하고 불자들은 항상 정도를 받들고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현혹되어 남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

보문종 종정 혜안 스님

새해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거센 변화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자들은 역경을 오히려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아 넉넉하고도 풍요로운 마음의 밭을 일궈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이란 결국 선한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확보하여 주변환경을 주도해 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니까요. 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마음



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체상 용 3대의 커다란 덕성을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를 미혹에서 깨달음에로 실어나르는 발심의 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심의 대승적 구조입니다. 대승적 중생심을 바탕으로 선한 마음과 깨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실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음 밝아 세상 밝게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밝아오는 새 해를 맞이하여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지금, 우리는 이 참담하고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스스로의 자만과 타성에 더욱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 또한 지난 한 해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불교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냉랭하다 못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

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이 밝아지면 인간이 사는 세상도 밝아지듯 주위를 돌아보고 작은 정성으로 남모르는 선업을 베풀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원융의 원리를 구현하고 실천하여 불교인 각자가 화합 원융을 이루는 마음으로 새 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자리 알면 부처

관음종 종정대행 홍파 스님



법신충만의 마음자리를 안팎으로 밝게 하는 신심은 무량공덕의 참마음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크기로 말하면 우주삼라만상을 감싸고도 남고, 작기로 말하면 한 티끌도 용납하지 못하는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작용은 한없이 자유자재하여 이 마음의 자리를 알고 살면 부처라 하고, 모르고 살면 중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깨어 살면 극락, 모르고 살면 지옥이요, 업장만 더해 갑니다. 한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한 생각을 돌이키면 극락세계가 됩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스스로 마음으로 짓고 받기 마련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신사 원두에 참마음의 주인공을 찾아 떠납시다.

평상의 마음이 곧 道

열반종 해곡 종정

20세기는 냉전의 시대, 공포의 시대, 폭력의 시대, 전쟁의 시대로써 우리는 탐 진 치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21세기는 평화의 시대, 화합의 시대, 행복의 시대로 극락정토를 만들기 위해 불자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밤이 길면 새벽이 오는 것이요, 낮이 길면 밤이 오는 것이요, 고통과 괴로움이 길면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오면 고통과 괴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항상 행복하고 기쁠 때 먼저 괴로움이 온다고 생각하고, 중생과 부처님이 둘이 아니듯이 행복과 불행도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도 내가 만드는 것, 내가 청정하면 행복하고, 탐진치 삼독에 얽매이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불교도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위한
신년 대법회

불교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신년하례)

■ 일 시
불기 2545(2001)년 1월 19일(금) 오후 3시
■ 장 소
하림각 (세검정)

부설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

■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 E-mail
kboasm@mahayana.or.kr
■ 대표전화
02) 732-2613
■ 팩 스
02) 737-7872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정 대

우)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대표전화 : 02) 732-4885 팩 스 : 02) 737-7872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정사

주 지
관 장 정 련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복지관
전화 : 051) 264-9033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반야원(치자마을)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천리 346
전 화 : 055) 632-1854
법인사무국 : 051) 261-962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전화 : 051) 405-5222~4,
405-6079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2
전화 : 051) 242-0691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조 실 숭산 행원
주 지 성광

사부대중
신도일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 02) 902-2663

미리 보는 2001년 불교계

지난해는 통일 · 환경 · 포교 · 복지 · 문화 · 학술 등 교계 각 분야의 활동이 어느해 보다 두드러진 한 해였다. 그러나 각 분야 관계자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2001년은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재촉하는 걸음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2001년 문을 열며 각 분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통해 올 한 해 불교계가 갈 길을 미리 따라가 본다.

불상 · 탑 등 불교 예술품 전산화

종림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장)



학술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대장경 전산화에 이어 한국의 불교문화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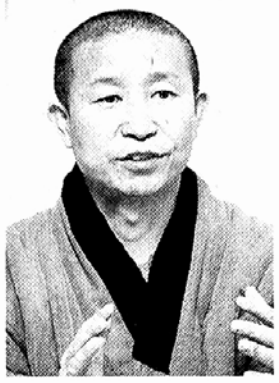
8년 간 고려대장경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끝내고 '고려대장경 2000'을 발간한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스님은 2001년 한 해를 한국불교의 문화를 전산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1년 전부터 문화재 · 인터넷 · 데이터베이스 분야 전문가 4명으로 '전자불상' 팀을 만들고, 30여 개의 불상을 선정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불상이나 탑과 같은 불교 예술품 대부분은 〈조상경〉 등 대장경의 기록에 근거해 제작되었습니다. 대장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불교 예술품을 전산화하는 이유입니다."

종림 스님은 1년 간의 성과를 모아 만든 '한국불상-시험버전'을 오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이카이(ECAI, 전자문화지도) 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불상-시험버전'에는 국내 30여 개의 국보급 불상에 대한 정밀 측정 자료는 물론 얼굴, 손, 발, 옷주름, 앉은 자세 등 모양새까지 세분화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것을 지리정보시스템(GPS)에 올린 자료들이 제공된다. 오종욱 기자

대안 아카데미 세워 생태 교육

도법스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대표)



환경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의 인재불사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해 도시인들을 위한 대안사회아카데미(가칭)를 개설, 생협 · 귀농 · 공동체교육 등을 펼치는 한편 귀농전문학교 학사 신축을 계기로 귀농교육과 환경농업에 대한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립하자마자 한해동안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주도하는 등 불교생명운동을 이끌어 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상임대표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먼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가 추구하는 여러 활동의 사상 및 이론적 토대 형성을 위해 '화엄 무차광장'을 열어 지속적인 탁마의 장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안사회아카데미를 설립, 교육불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작은학교(중등과정 대안교육)를 소중한 인재불사의 장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역사찰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리산유역을 중심으로 생태마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리산살리기로 촉발된 환경과 생명의 문제를 불자들이 내일처럼 여기며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범불교 환경연대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김재경 기자

남북불교 교류확대 · 대중성 확보

도각스님 (민족공동체 사무처장)



통일 "지난 해 남북관계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폭발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조계종에서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결성한 것도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올해는 대북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남한 내의 통일운동 열기를 확산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도각스님은 "이제는 지원성 교류에서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공동법회, 상호방문 등 협력성 교류로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불교지도자의 남한 방문을 이미 요청했으며,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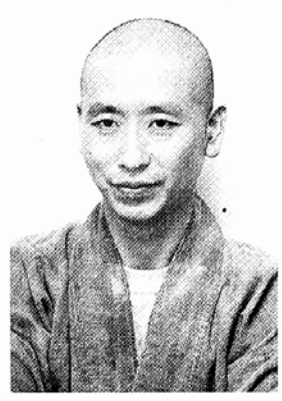
대북교류와 함께 불교 통일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도 밝혔다. 월례 통일세미나, 압록강-두만강-백두산을 발로 찾아가는 통일기행, 각종 강좌를 준비해두고 있다.

도각스님은 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과 평불협 좋은벗들 등 통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종단과 단체들과의 연대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정 및 철폐운동에도 참여해 진보적인 통일운동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는 데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음악회등 산사 문화축제 활성화

원경스님 (서울 심곡암 주지)



문화 북한산 형제봉 사이에 자리잡은 심곡암. 말 그대로 깊은 계곡 속의 작은 암자인 심곡암에서 벌써 2년째 '단풍문화축제'를 열고 있는 주지 원경 스님은 이제 사찰도 "문화행사 등을 통해 불자들에게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곡암뿐 아니라 사찰 문화행사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충북 진천 보탑사의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 백천사, 경주 미황사, 분황사, 강화 전등사 등 산사와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열렸다. 내용도 음악회나 전시회 등 초창기의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다도시연, 시낭송회, 체험현장까지 보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추세를 쫓기보다 자기 사찰의 전통과 특성에 맞게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경스님은 말한다. "사찰 문화행사는 놀이문화식 장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전하는, 보이지 않는 설법인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내년부터는 봄에도 문화축제를 열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산사에서 불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교구본사 중심 지역복지 강화

지현정사 (진각종 복지재단 국장)



복지 "시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구, 정책을 생산하는 전문인력, 지도자들의 마인드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먼저 이런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98년 2월 설립된 진각복지재단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7개의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게 된 데에는 종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복지종사자들의 열의, 치밀한 사업전개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현정사(진각종 복지재단 사무국장)는 보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요소들이 불교복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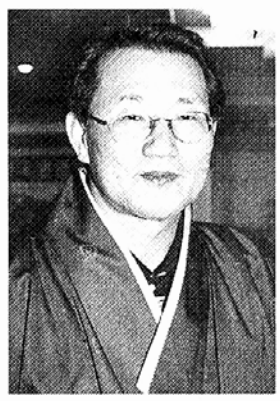
지현정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불교복지도 교구본사나 교구청을 중심으로 지역현실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론과 불교복지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에도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진각종이 올해 수도권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통해 불교복지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각 종단 복지관계자들의 협의체인 '불교사회복지협의회' 구성으로 불교복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한명우 기자

전문 분야별 눈높이포교 주력

김기병씨 (포교사단장)



포교 "새로운 시대 포교현장은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 분야의 포교현장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포교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김기병 포교사단장은 이를 위해 각 단체와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분야별 포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단체에서 포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하는 데 올 한해 사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계내 주요단체들과 사이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사이버팀도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예 · 결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단체들도 유용하게 활용하게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신륵사와 금산사에서 시범실시를 바탕으로 전국 관람료사찰의 사찰안내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불교문화를 관람자들에게 소개하고 그 속에 깃 든 불교의 의미를 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각 단체간 교류활동으로는 생명나눔실천회와 생명나누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교계 NGO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실천운동 생활화 열린강좌, 체험 · 실천교실 개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와 공동기획 진행 등의 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김원우기자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방 장 서 옹
주 지 다 정

총림 대중일동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전화 : 061) 392-7502
팩스 : 061) 392-2081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주 지 성 오

총무국장 석공
재무국장 석호
교무국장 진명
포교국장 지종
호법국장 각우
원 주 초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전화 : 051) 508-3122~7 팩스 : 051) 508-3229
원주실 : 051) 508-3636

대한불교 조계종 제 3교구 본사
설악산 신 흥 사

주지 이법장외 대중일동

재단법인 설악산 신흥사
성준 장학재단
신흥사 불교 교양대학
도서출판 설악불교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
반야 무료노인 요양원
구로 종합사회복지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연꽃 어린이 집 반야 · 어린이 집
장사 룸비니 어린이집 · 아나율 어린이집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2번지
전화 : 033) 636-7044
팩스 : 033) 630-7556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방 장 노천 월하
주 지 신 허

총무국장 중선 재무국장 현기
기획국장 만오 교무국장 신본
포교국장 오심 사회국장 혜원
호법국장 보화

대 중 일 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전화 : 055) 382-7182
팩스 : 055) 382-7196

지역불교 활성화하자

95년 6월27일 34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구본사를 비롯 주요 종단의 큰 사찰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때 마침 문화관광부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정하고 지역간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풀뿌리 문화를 되살려 문화적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발

사찰, 정신·문화 공동체 중심축

조계종,지역사찰 특성화 네트워크 구축

조계종 포교원과 24개 교구본사 전국 각 사암련과 사찰들이 사찰특성화, 포교네트워크 구성, 지자체와 시민단체 연대강화등 본격적인 지역불교 활성화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지역불교 네트워크사업에 따라 지역 거점사찰들이 인근지역 사찰과 협력을 강화해 불교정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한 환경등의 현안문제 해결등 지역불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 차원에서도 지역별 교양대학 설립, 지역전법단 구성, 지역순회 포교대회 개최, 지역사찰 특성화 지원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불교 활성화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역민에 열린마당
'봉사의 삶' 이끌고
시민운동 참여 유도

구랍 28일 조계종 포교연구실은 15개지역 19개 사찰 현지조사결과서에서 지역사회와 사찰의 연계구축이 지역불교를 활성화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찰의 지역 밀착도에 따라 포교의 바로미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지역밀착형 사찰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밀착형 사찰의 모범사례는 남원 실상사와 여수 석천사. 실상사는 귀농학교나 지리산살리기 운동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을 계도하고 지역주민의 이슈에 결합하면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수 석천사는 시민운동 참여와 자원봉사 등 실천모델과 교리교육 의무화 등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신도를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사찰별 특성활동 모범사례는 포항지역으로 옥천사는 유치원 및 어린이법회 운영, 죽림사는 청소년및 불교대학 운영, 문수사는 교사불자회등 계층포교, 운흥사는 사회복지법인 열린 가람과 학산사회복지관 운영등 사찰별 특성활동을 전개하며 상호보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표 참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찰이 지역내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민과의 관계설정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서는 전반적으로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불교강세지역 사찰보다 기독교 강세지역의 사찰들이 오히려 모범적인 사찰운영과 신도교육, 포교활동에 더 적극적인 점이 특징이다.

지역사찰 운영현황

지역	사찰	지역특성	사찰재정	팔요조직	종교현황	특 징
예산	향천사	사과농사	공개	불자교사회	비등	유치원 운영
아산	옥련암	관광특구	공개	교육기관 기독교	강세	청소년포교 활성화
고성	운흥사	도농지역	공개	불자교사회 불교	우세	지역시민단체 연계
	옥천사	관광지역	비공개	신도조직 불교	우세	관람료사찰
진주	두방사	도시지역	비공개	일요법회 불교	우세	유치원 운영
마산	정법사	도시지역	공개	스텝진영 불교	우세	무료급식소 운영
함양	법인사	농촌지역	비공개	중고등부 불교	우세	어린이법회 운영
거창	심우사	농촌지역	비공개	청년회	불교우세	전법도량 지정
남원	실상사	농촌지역	공개	지역신도회	기독교 강세	생태학교 운영
여수	석천사	도시지역	공개	사암연합회	기독교 강세	4개 복지관 운영
포항	문수사	공단지역	비공개	공무원회	불교우세	계층포교
	옥천사	공단지역	비공개	교육기관	불교우세	유치원 운영
	죽림사	공단지역	비공개	중등부	불교우세	불교교양대학 운영
	운흥사	공단지역	공개	교육기관	불교우세	사회복지법인 운영
울진	불영사	해안지역	비공개	환경단체	기독교 강세	10개 지역법회 운영
	통립사	도농지역	비공개	문화단체	기독교 강세	문화센터건립 계획
안동	대원사	도시지역	비공개	중고청년회	기독교 강세	대원불교대학 운영
영주	영전사	도농지역	비공개	청년회	기독교 강세	어린이집 운영
봉화	청량사	농촌지역	비공개	청년회	불교우세	출장법회 운영

특히 지역사찰간 유기적 협조체계와 신도조직이 부실하고, 잦은 주지교체로 인한 종무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포교원은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찰 협의체 형성 △사찰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전략적 포교대상의 선정 △청년포교의 활성화 △신도교육 강화 △사찰재정의 지역회향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원우기자(wwkim@buddhapia.com)

2001년 '지역문화의 해'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해 8월 문화예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했다.

문광부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민들이 문화자산을 창조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인에 대한 지원확대, 지역문화 유산의 보호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찰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수원불교연합회(회장 성관스님)가 수원환경운동센터와 공동주최한 '우리꽃 심기 생태방생' 장면.

사회복지 활동
생태사찰 만들기
지역연대 강화

사찰 NGO 시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이 '사찰 사회활동 모델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복지·생태·NGO분야 등에 지역 사찰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활동, 생태사찰 만들기, 지역연대활동 등 세 영역으로 나눠 추진될 이 사업은 사회복지재단, 중앙신도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두레생태기행 등 10여개 사찰 및 사회단체를 연구조사팀으로 편성, 영역별로 전개된다.

먼저 사찰 사회복지활동 영역은 조계사, 부천 석왕사 및 사회복지재단 실무자들로 구성된 연구조사팀이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양사회복지관, 영등포 보현의 집, 낙산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조계사는 시설물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체계화해, 사찰의 복지활동 새 모델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어 생태사찰 만들기 영역은 사찰환경위원호를 결성한 남원 실상사와 생태사찰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길상사 등 기존사찰과 동국대 이영경교수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국장 등 사찰 생태와 조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2~3개의 사찰을 선정해서 해우소 등 사찰 내 제반 살림부터 사찰조경, 정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찰을 둘러싼 생태문화적 요소들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 사회부가 주최한 사찰생태문화기행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생태사찰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사찰과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해당사찰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불교교리강좌를 개설하는 등 신도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대활동을 폄으로써 사찰과 지역간에 안고있는 환경문제 등 현안들을 푸는 방안을 제시한다.

조계종 사회부 윤승환 주임은 "사회적으로 NGO운동이 확산돼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찰의 사회활동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사찰의 사회활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불교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3월부터 전국 본말사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찰 사회활동 모델개발 사업'은 2월까지 대상사찰의 표본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갖고 향후 종단 종책에 반영하게 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사암련 위상 키우자"

전문가의 눈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포교사회학과

지역불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대만의 자제정사와 울진의 불영사 등 두 사찰을 거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제정사는 30여 년의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병원과 각종 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세계 43개국의 빈민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불영사는 천년 이상의 고찰로서 그 동안 전통적인 수행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르러 읍면 단위로 10개의 지역조직을 구성해 단위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10%를 신도로 확보할 만큼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두 사찰의 공통점은 주지스님의 지도력이 지역주민의 정신적 구심점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신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의 문화와 종교적 양태는 다르지만 두 사찰은 지역불교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할만하다.

지역중심의 전통이 있는 한국불교의 각 사찰들은 근세기에 이르러 중앙집권적 운영체계를 띠게 되었다. 일본의 강점기에 불교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중앙집권적 종권구조가 해방이후 국가의 통치구조에 영향을 받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결과 단위 사찰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최근 5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각 지역의 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찰들은 그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종교 사회에서 지지기반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요 본사급 사찰들이 관광객의 관람료 수입에만 의존하여 지역포교를 등한시한 결과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불교계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불교를 활성화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조직체계의 정비, 인적자원의 육성,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직능 - 연령별
신도조직 구축

불교계의 각 종단과 소속 사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종단의 경우 교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와의 관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종무원제를 채택한 종단들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계종단의 경우 본사의 영역을 조정하고 행정지역별로 특정 사찰을 선정하여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광역 행정단위를 관할할 수 있는 중심사찰과 기초 행정단위를 관할할 수 있는 거점 사찰을 정하고,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 연합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암연합회의 기능이 더 종적 횡적으로 연계된 지역사찰 공동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위 사찰의 신도조직이 제대로 구성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사암연합회와는 별개로 여러 분야의 지역 신도 연합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직능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신도 조직도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직운영은 스님을 비롯한 불교지도자의 지도력과 신도의 추종력이 결합될 때 효과적이다.

단위 사찰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인문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환경운동, 문화예술 시설 및 단체 육성 등을 통해서 지역의 정신 및 문화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포교가 활성화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신도조직이 없고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없다면 지역불교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각 사찰이 특성을 띠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때 지역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내설악산
백 담 사
주 지 일문외
대 중 일 동
산내암자
봉정암 감원 근행
오세암 감원 일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690번지
전화 : 033) 462-6969
팩스 : 033) 462-3224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주 지 지 홍
대 중 일 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전화 : 033) 672-2448

대한불교조계종
심 원 사
주 지 정영도
대 중 일 동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호1리 72
전화 : 033) 455-5882

대한불교조계종
두타산 삼 화 사
주 지 원 명
대 중 일 동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전화 : 033) 534-7661~3
팩스 : 033) 534-7546

맞춰 조계종 총무원도 '사찰 사회활동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해 복지 · 생태 · NGO분야 등에 지역 사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포교 · 문화 · 복지 · 환경 · 청소년 · NGO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범사찰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지역불교 활성화하자

분야별 모범사찰



그림 · 박구원

사찰 재정 30% 복지예산

사회복지 - 신흥사

속초 신흥사(주지 법장)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97년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을 설립하고 복지를 통한 지역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반야무료노인양로원, 속초종합복지관, 신도림복지관, 구로복지관, 반야어린이집, 장사룸비니어린이집 등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신흥사는 사찰재정의 30%를 복지예산으로 투여하고 있다. 특히 98년 총예산 1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반야노인무료양로원은 신흥사복지원의 대표적인 시설로 부지 1천1백평 건평 3백20평의 최신시설로 지역사회 모범 노인양로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구로복지관이 99년 서울시 복지관 종합감사결과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개별독서지도, 집단동아리활동, 작품발표 등 어린이 프로그램이 수범사례에 선정돼 서울시장의 표창을 받는 등 복지관 운영이 모범적이다.

속초복지관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의료 법률자문 밀반찬 요리 등 8개팀 2백5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캠프도 국내최초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호평을 받고 있다.

신흥사는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은 복지실천이라는 원력으로 시대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올곧게 지역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내 장애인을 위한 근로복지관 부랑인시설 여성쉼터 설립을 모색 중이다.

김원우기자

각종 교양교실 '시민발길'

지역포교 - 삼광사

도심속의 사찰은 도시인들의 쉼터이자 정진외 장이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삼광사는 지역별 법회를 통한 신심 진작을 기본으로 크게 불우 이웃을 위한 후원금 지원,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 제공, 각종 교양교실 개강 등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등 불우 이웃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은 이미 연례 행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지역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물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셈.

또한 삼광사내에 있는 법당은 법회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각종 교양교실이 열리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삼광사가 열고 있는 삼광한글학교, 한문서당, 서예교실이 그 대표적인 예. 한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삼광한글학교는 이제 역사를 자랑하며 노인복지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중고등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200석 규모의 독서실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삼광사가 펼치고 있는 지역 포교사업은 다양하다.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 결연, 진구 관할 중학교 학예제 시 지관전 무료 대여, 유물관 무료 개방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고 활짝 열려 있는 사찰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천미희 기자

문화체험 공간 '자리매김'

문화포교 - 통도사

사찰 곳곳에 면면히 맥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문화, 전통문화를 십분 활용한 포교야말로 사람들의 내면에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포교다. 문화를 근간으로 한 양산 통도사(주지 신허)와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해)의 포교 노력이 보다 가치있는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도사는 성보박물관 관람을 통한 간접 문화체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 개설된 서각공예반, 불화그리기반, 사진반, 다도반, 꽃꽂이반, 연구답사반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한 직접적인 문화체험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성보박물관대학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쌓게 해 문화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보박물관은 정기적으로 괘불탱 특별전, 월저 김진조 선생 기증 서양화 특별전 등의 전시회와 성보예불제, 산사음악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기획, '문화가 있는 산사'로 통도사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통도사의 문화포교는 전통불교문화와 불교 의식 복원을 통해 느낌과 감동이 살아 있는 불교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또 통도사가 부산에 개설한 포교원(원장 심산)이 운영중인 문화관의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어머니합창단, 국악단, 사물놀이반, 우바이 무용단등의 활동은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불교문화를 보다 일상적이고 쉬운 것으로 이해시켜,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한 포교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천미희 기자

불교적 도·농공동체 지향

생태사찰 - 실상사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생태마을 즉, 불교적 도 · 농공동체를 지향한다.

실상사 인근 지리산 자락 산내면 백일리에 구성될 생태산촌마을은 3,750평의 교육장부지와 3만평의 실상사농장(제1실습장), 4만평의 제2실습장에 법인출자금 4억원, 중 · 소농 고품질사업비 2억5천만원, 교육장 정부보조금 3억원(자부담 20%) 등 총 9억5천만원을 들여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는 지역두레마을과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사부대중 공동체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상사는 2001년에 강의동과 숙소, 환경농업전시관 · 유기농하우스 · 지역발전센터 등을 설치하고 2002년 식물클리닉 · 유기농과수원 · 주말농장 · 귀농자주택 · 유기농산물판매장, 2003년 생태체험학교 · 농업컨설팅센터 · 농산물가공실 · 그린음악실습장 · 황토방 · 도자기공예실 · 명상수련원, 2004년 환경농업전문대학 · 천적사육장 · 주민복지관 · 자연휴양촌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실상사는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농업교육과 자녀들을 위한 중학과정의 대안학교, 귀농인들이 만드는 생태마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영농조합 또는 학교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공개적으로 승계하면서 불교 생태공동체운동의 전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재경 기자

도서실-동아리방 등 운영

청소년 포교 - 옥련암

아산 옥련암(주지 종인)은 매우 작은 사찰이다. 대웅전과 삼성각 및 요사체가 전부다. 그러나 지금은 옥련암하면 지역에서 '청소년 포교와 교화의 모범사찰'로 통한다.

옥련암은 81년 초 · 중 · 고 불교학생회를 조직하고 청소년 포교를 시작했다. 한국불교에 가장 시급한 불사는 바로 인재불사라는 인식하에 주지스님과 사찰 신도회는 지난 19년간 청소년 포교에 매진해왔다. 특히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과 재정을 공개한 것이 신도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사찰과 신도회가 청소년 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지난 97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산시내 '사단법인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을 설립하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화활동에 나섰다. 처음에는 지역내 청소년 문화활동 경험이 없어 청교련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방법 등 노하우를 배워 지금은 지역내 청소년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은 무료공부방, 문화의집, 동아리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공부방은 95석의 좌석과 3,500권의 도서를 확보해 청소년에게 개방하고 있고, 동아리방은 댄스, 독서토론회 등 10여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문화의집은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등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고민과 과제를 해결해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항상 열려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옥련암은 지역불교활성화와 청소년 포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작은 권리찾기 운동' 전개

NGO 활동 - 미륭사

부산 미륭사(주지 정각)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정의 모든 부분을 감시하고 바르게 이끌도록 하는 활동 즉,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NGO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들이 시민들의 작은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작은 권리찾기 운동' 등 시민들과 밀접한 시민운동을 벌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 제고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활동이 미약한 인권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주지 정각스님은 2001년을 불교인권센터 조직강화의 해로 정했다. 정각스님은 각종 교도소 교화활동을 벌이며 자칫 무시되기 쉬운 재소자들의 인권 보호운동을 펼치면서 환경운동, 경제정의를 위한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미륭사가 펼치고 있는 또 다른 NGO활동분야는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활동. 부산불교자비원을 통해 무료노인병원인 새부산복지센터와 희망노인병원에 매일 300명분의 점심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한편 구랍 27일 코모도호텔에서 100명의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조선족 기자들을 초청, 6개월간의 연수를 실시해 우리나라 바로 알리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현재 정각스님이 가진 직함은 부산불교교권수호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부산인권센터 상임공동대표, 청소년문화재단 원장 등 무려 15가지. 다양한 시민 · 사회활동을 펼침으로써 사찰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조실 석주
주지 원혜

봉은학림
사부대중이 한자리에서 경전을 공부하며 지혜의 텃밭을 가꿉니다.

봉은선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의 불꽃,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되는 환희장 세계를 열어 갑니다.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가족과 함께하는 도량

한국불교의 중흥 도량, 도심 최고의 포교 도량으로 거듭 나고자 봉은사는 정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종무소 02-511-6070,4 팩스 02-544-2141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주 이혜성
주지 김광복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 FAX : 02)993-3164

인터뷰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한글로 쉽게 옮긴 현대인의 대장경"

"부처님은 재세 시에 45년간 중생들을 위해 많은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문자를 빌어 나뭇잎과 나무판과 돌과 종이에 새겨지고 씌어져 경전을 이루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인도 지역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나라마다 문자가 다르고 문화 풍토가 다르니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과 방법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은 다 생략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글과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한글대장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동국역경원의 제4대 역경원장 소임을 7년째 맡고 있는 월운스님. 스님은 한글대장경 불사는 우리시대 불교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불사이자 국책사업일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해인사에 소장된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로부터 비롯되어 영겁을 누릴 나라의 보배이고 우리시대에 한글로 환생한 대장경은 우리시대로부터 무한한 미래로 이어질 또 하나의 국보라는 것이 월운스님의 지론. 그런 소신으로 스님은 93년 원장직을 맡은 이후 역경불사의 절반 이상을 지휘해 왔다. 스승인 운허스님(초대 원장 역임)의 지중한 원력을 이어 역경불사의 현장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작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어느 지역, 어떤 법회에 가서도 역경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연이 닿는 대로 역경 후원금을 화주 하는 것이 월운스님에게는 자연스런 일상이 되었다. 물론 스님도 한역경전의 번역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 "팔만대장경 한글 환생은 미래로 이어질 또하나의 국보"

월운스님은 한글대장경의 간행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이해하고 삶의 체험으로 승화시킨 숱한 선지식들의 마음자리로 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는 답을 던졌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고유의 글과 말이 있음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문판본으로 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이 국보이고 세계의 문화유산이듯이 우리 글로 다듬어진 한글대장경을 통해 보다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 나아가 온 국민이 경전을 읽고 우리의 문화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훌륭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주문에도 힘을 주었다.

"역경원장으로서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스님은 좀 어색한 웃음과 함께 "인재난과 재정난을 매일 매일 절감한다"고 답했다. 재정난은 정부와 종단 등 여러 기관과 뜻 있는 인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지만 인재난은 시간과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재정적 투자까지 필요하므로 해결이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월운스님은 현재 2500여명으로 결성된 역경후원회와 봉선사와 실상사 등에 개설된 능엄학림, 화엄학림의 학승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진각혜심 스님의 〈선문염송〉이 한글로 번역된 이후 10여명이 연구에 매진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역경불사는 불교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지요. 포교현장에서 학자들의 연구실에 이르기까지 한글대장경이 엄청난 효용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이 일이 선불리 손댈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역경불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월운스님은 "나는 그저 야구의 희생타자처럼 한 단계의 일을 마치고 물러날 뿐이고 뒤의 선지식들이 더 갈고 닦아서 진정으로 빛나는 우리시대의 국보를 창출해 주길 바랄 뿐"이라며 역경불사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월운스님은 역경불사는 끝이 없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는 이미 출간된 번역서들의 맞춤법 어휘 등에 대한 교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손쉽게 구입해 읽을 수 있는 단행본 한글대장경 해제본 등을 보급하는 일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편집위원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동국역경원과 손잡고 한글대장경이 많은 불자들에게 읽히고 많은 사찰에 봉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벌인다. 2001년 한 해 동안 전개될 이 캠페인은 한글대장경 읽기를 위한 각종 행사와 역경 관련 불사의 지속적인 후원, 각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보급하는 사업 등으로 진행되어 대장경 한글화 불사의 후속 작업에서 향후 추진될 한글대장경 디지털화 불사까지 외호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대장경 역경불사의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보완과 보급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좌담을 마련했다.

'불교 어렵다' 통념 깰 한글대장경 두루 읽자

신년 좌담

일면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 은정희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 최철환 부장 동국역경원 | 사회: 임연태 본지 편집위원

조계종 3대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한글대장경 번역 간행 불사가 동국역경원에 의해 36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동국역경원은 1964년 개원을 기점으로 대장경 한글화 작업을 시작하여 2000년 연말까지 총 320권의 한글대장경을 완성했다. 이는 한국불교 현대사의 중요한 업적이자 소득일 뿐 아니라 한문문화권에서 한글세대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 문화사와 불교사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쾌거다. "불교는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신행의 현장에서 보다 쉽고 명료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한글대장경으로부터 열렸기 때문이다.



◇동국역경원이 36년간의 한글대장경 번역불사를 마침으로 불교의 신행과 문화적 발전이 증폭될 것이라 진단하는 좌담참석자들. 좌로부터 최철환 부장, 일면 스님, 은정희 교수.

36년 불사 320권 완간

사회자: 바쁘신 가운데 좌담에 참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불사가 일단락된 것은 불교집안 뿐 아니라 국가적인 경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대의 언어로 환생한 대장경이 아무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도 불자들이 읽고 배우지 않으면 그 가치는 반감되고 말 것입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잘 정제된 대장경 즉, 우리의 언어로 우리 일상에 바짝 다가온 부처님 가르침도 읽고 배우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맛을 알 수 없을 것이니까요. 우선, 일면스님께서 한글대장경 불사의 의의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면스님: 역경불사를 위해 36년이란 세월을 꾸준히 걸어 온 관련자들의 원력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원력이 이제 볼자와 국민 앞에 커다란 성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대장경 한글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읽어 그 참뜻을 바로 새기도록 하자는 데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글대장경의 완간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려시대에 처음 조판된 대장경은 소진이 되었고 두 번째 조판된 대장경이 지금 해인사에 남아 있는 이른바 팔만대장경인데 그간 우리는 이 팔만대장경을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장경이란 삼장 즉, 경(經) 율(律) 론(論)을 다 망라했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 지고한 가르침을 떠나서 불교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한글대장경은 우리시대의 불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은정희: 고려시대의 대장경 조판은 무신정권의 힘을 드러내는 유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배경도 있지만 그보다는 외적의 침입이라는 현실문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원력을 모으고 부처님의 가피에 힘입어 극복하고자 했던 동기가 어려 있습니다. 어쨌거나 팔만대장경은 그 조판의 역사로부터 많은 수행자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장경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대장경이 있음으로 인해 불교의 발전도 가능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최철환: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교의 수행가풍을 선(禪)과 교(敎)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선은 교를 떠나 있고 교는 선과 별개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에 대한 이해의 폭도 그리 넓게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과거의 조사들도 대부분 교학에 밝았던 분들이고 교학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거나 무용지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로 성철스님도 수많은 장서를 통독하셨고 더 위로는 경허, 한암 스님 등 근세 선의 종장들이 다 교학적 바탕으로 선을 수행하여 일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일면스님: 신라말에 구산선문이 속속 개창됨으로 우리나라는 선불교를 꽃피우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원효나 의상 스님들이 대표되는 교학적인 불교가 성했습니다. 우리 조계종도 선교를 원융하는 종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해탈이고 해탈을 위해서는 선만이 옳은 길이라 할 수도 없고 교만이 바른 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과 교, 염불, 심지어 사판의 행정도 하나의 수행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란 점입니다. 다만 옛 조사들은 선을 통해 해탈의 길로 빠르게 이를 수 있다고 믿어 선수행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큰스님들께 책을 버리고 선을 해야 성불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만, 책을 버리라는 것은 문자와 알음알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계인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오해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대장경은 불교수행의 지식적 체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문자는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화, 육화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피에 힘입어

사회자: 현대는 사회의 인적 배경이 매우 향상된 지식인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글대장경은 바로 우리 글로 다가온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에 대한 승가의 이해가 고양되어야 사회지식층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부장님께서는 역경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지요.

최철환: 기존의 수행가풍과 관련이 있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역경사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번 인재의 부족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경을 수행으로 여길 스님들과 재가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장의 양성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로하신 큰스님들은 교학적인 면에서나 수선의 측면에서나 일가견을 이루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스님들의 자리를 이어갈 후학들이 꾸준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경은 시대를 따라 한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불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정희: 인재난이 대두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스님들만 역경불사에 종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역경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의 작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계문제에 직면해서 그 뜻을 접고 말거든요. 종단이든 어떤 기관이든 스님이나 재가자를 구별 할 것 없이 좋은 인재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마음놓

佛紀 2545년 (辛巳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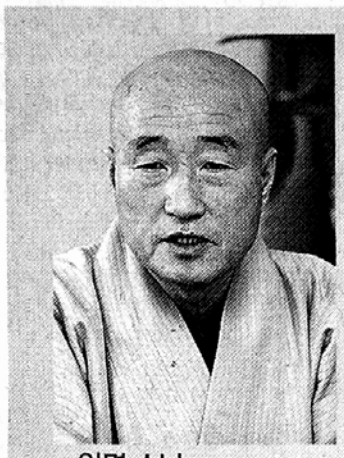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천 안 天 佛 寺
사회복지법인 미타세계
만불동산 천안 108법수회
(매월음력 초닷새는 큰스님 초청 법회일)
회 주 이기연
주 지 석부불
신도회장 민병달
신도회 일동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번지 흑석산
전화 : 041) 557-3223, 557-3506
팩스 : 041) 555-6550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 덕 원
대표이사 서성운 상임이사 김도광
인덕노인복지회관 · 인덕재가노인복지센타 · 주간보호소
인덕치매중풍단기보호소 · 노인전문불교요양원
호암마을 · 노숙자 희망의집 · 청소년 응암 공부방
인덕어린이집 원장 허영숙 · 수색어린이집 원장 나영희
개나리어린이집 원장 최숙희 · 불광어린이집 원장 장현주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번지
전화 : 02) 385-8205~6 팩스 : 02) 385-8207
은평불교사원연합회
회 장 서성운 (삼천사주지)
부회장 한자용 (수국사주지)
부회장 김혜진 (시연사주지)
부회장 이법성 (관음사주지)
부회장 김혜장 (송천사주지)
은평경찰서 경승실 , 서부경찰서 경승실
총 무 김도광 (불광한의원원장)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27-1
전화 : 02) 353-3004 , 359-7766

대한불교
북한산 중 흥 사
주 지 명도각
신 도 일 동
중흥사 문화재 건축허가 취득
태고보우국사가 중국의 석옥청공대화상에게
정법 전수한 부처님 조계선법 전법처
5교9산 통합하여 조계종 창종 중흥 종조도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59
전화 : 02) 355-4488 / 357-7744(팩스겸용)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개금사회복지관
보현어린이집
양정노인 복지관
선혜마을(실직자 쉼터)
선원장
관 장 정 여
국 장 박용하
소 장 김 영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전화 : 051) 853-5486~7



일면 스님

"한글대장경 활용 공부하는 불제자"



은정희 교수

"완벽한 번역위해 인재양성 최우선"



최철환 부장

"역경을 수행삼는 스님들 더 많아야"

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은 사람들이 큰 원력으로 모여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다 완벽한 번역의 문제입니다. 한글화라는 명제는 지당하지만 그 내용에서 한글화가 무색할 정도로 오역이 되거나 경전의 본질을 어긋나는 해석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한문원전을 보라고 권하는 편이 낫겠지요.

최철환: 솔직하고 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역경원 설립 초기에는 번역하고자 하는 경전에 대한 전공자가 없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경전을 우선으로 선정해 번역을 하다보니 체계적인 순차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문 해석을 잘 하는 것과 경의 대의를 잘 알고 번역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36년이란 시간을 진행해 오는 사업이다 보니 그 사이에 전공자도 생기고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으로 초기의 문제점들을 대다수 해결했습니다. 맞춤법의 문제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도 꾸준히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경불사를 매듭짓는다고 하지만 그 보완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경 초기 문제점 해결

은정희: 논문을 쓰기 위해 경전을 읽는 경우에는 혼자 주석서에 의존해 읽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 몇 명이 윤독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며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경을 할 때도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번역분과, 증의분과, 윤문분과가 나누어져 있지만 각 분과별로 많은 의견과 토론을 거칠 수 있다면 보다 좋은 번역이 될 겁니다.

사회자: 한글대장경의 대중화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한글대장경이 음식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부뚜막의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일면스님: 세간에서도 어려운 일과 더러운 일과 위험한 일은 회피하는 풍조가 있다고 합니다만, 스님들도 면학을 전제로 하는 경전 공부는 기초교육기관 이수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이제 점차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법회를 주도하거나 대중 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신도들보다 지식적인 면에서나 수행자의 위의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종단에는 학림이나 승가대학원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경학을 연구하여 역경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왕에 한글대장경이 완간 되었으니 도심 포교당의 스님들도 공부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 봅니다. 나도 법회에서 법문을 하는 경우가 한 달에 5회 이상은 되는데 정기법회의 경우 하나의 경전을 택해서 강론식의 법문을 하니까 신도들이 좋아합니다. 책을 통해 복습도 하고 예습을 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한문 경전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스님과 한글경전을 통해 포교 일선에서 뛰는 스님으로 대별 될 것으로 봅니다.

은정희: 스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신도들에게 경전을 읽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스님들이 법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아듣기 힘든 법문보다는 체계적이고 쉬운 법문이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무슨 책을 읽으라고 막연하게 제시하면 책을 안 봅니다. 무슨 책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읽으라고 조목조목 일러주면 책을 구해서 읽어 옵니다. 법당에서 스님들이 무슨 경을 보라고 권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전을 어떻게 얼마큼 씩 읽으라고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대장경을 문고본으로도 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최철환: 역경원에서는 번역작업은 끝났지만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보급판을 만들어 일반 보급에도 나설 생각이고 무엇보다 개역 작업을 거쳐 인터넷 상에도 한글대장경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글대장경의 디지털화 작업에도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는 언어문화를 따라잡으면서 각 경전들이 갖는 대의를 충분히 살린 역경서들을 내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한글대장경의 번역 완료와 완간은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글경전 포교 큰 도움

일면스님: 교육원은 올해를 '교육중흥의 해'로 정했습니다. 각종 연수회나 회의를 통해 한글대장경의 활용도 강조하고 법계 고시도 강화하여 공부하는 종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원의 계획에 때맞춰 한글대장경이 완간되어 몹시 기대가 큽니다.

사회자: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이 보다 많은 불자들에게 읽히고 보다 많은 사찰에 봉안되기를 바라며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벌입니다. 조계종과 종단협의회가 후원하는 이 캠페인이 불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동국역경원이 걸어온 길

동국역경원은 1974년 7월 21일 동국대 대학선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첫발을 내디뎠다. 초대 원장은 운허스님. 이에 앞서 62년에는 조계종이 3대사업으로 포교 · 역경 · 도제양성을 정하고 역경위원회법을 제정, 역경원의 설립 기초를 다졌으며 63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총장이 동국대학교 부설로 동국역경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대장경의 한글화를 위한 불교계의 염원은 그 이전부터 현실화되어 동국역경원이 설립되기 직전인 63년 6월에는 대한불교청년회가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간행했는데 이때 운허스님과 법정스님, 이종익 박사 등이 동참했었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은 역경원이 대장경 한글화 불사를 시작하는데 많은 경험적 뒷받침이 되었다.

동국역경원이 개원한 후 펴낸 첫 한글대장경은 〈장아함경〉으로 2천부를 출간했다. 초기 역경위원으로는 운허스님을 비롯해 탄허스님, 법정스님, 김달진, 조지훈, 서정주, 우정상, 홍정식, 이종익 등 당대의 학승과 기라성 같은 학자와 문인들이 대거 참여했었다. 이들은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며 경전의 한글화에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66년부터는 국가의 재정지원도 받게 되어 활기찬 역경불사를 전개, 1970년까지 매년 8책씩을 간행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70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1994년부터 재개되었다)

강남 봉은사에 역장(譯場)을 두어 역경연수생을 양성하는 등 역경사 양성과 역경사업 전개를 해 왔으며 이들 토대로 73년까지 총 67책을 발행했다. 역경원은 76년 부처님 오신날에 고려대장경 영인본 전 48책1질을 완간해 불교계에 법공양을 했다. 그러나 봉은사 역장은 잇따른 80년대 중반 이후 종단 사태로 폐쇄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1979년 운허스님이 명예원장으로 추대되고 영암스님이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해 85년까지 한글대장경 제100집이 간행되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장정을 변형해 신판한글대장경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1987년 제3대원장에 취임한 자운스님은 1992년 입적 때까지 원장직을 역임했다. 자운스님은 역경불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역경지원에 노체를 아끼지 않았다.

따지고보면, 역경불사는 종단과 동국대학교, 정부의 관심 속에 진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의 작업의욕은 역경원장을 맡은 스님들의 원력에 큰 힘을 입었다.

초대원장 운허 스님은 당대의 대당백으로서 후학양성과 역경작업에 일생을 걸었던 스님이고 제2대 원장 영암 스님과 제3대 원장 자운 스님도 역경불사를 위해 쌈지돈까지 털어내는 의욕을 보였다.



◇1964년 7월 21일 역경원 개원식.

64년 7월 개원식
76년 대장경 영인본 발간



◇1965년 10월 17일 용주사에서 열린 역경위원회간담회. 운허 스님, 탄허 스님, 조지훈, 서정주, 우정상, 홍정식 등 15명 참석.

94년 정부지원 다시 받아
95년 역경후원회 발족



◇1973년 8월 20일 봉은사 역장에서 열린 역경연수원. 가운데 앉은 운허 스님과 뒷줄 우측으로 법정, 밀운 스님이 보인다.

역경불사는 1993년 제4대 원장 월운스님의 취임과 더불어 활기를 띄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정부의 국고지원이 재개되었다. 94년부터 4년간 13억원의 국고를 지원 받았으며 98년에는 2년간 지원을 연장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했다.

무엇보다 역경원의 역경불사를 돈독하게 지원한 단체는 1995년 발족한 역경후원회, 삼장법회다. 조계종의 원로 석주스님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후원회는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동국대 대각전 법당에서 역경후원회 법회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회원은 2500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4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해 지원했다. 석주스님은 역경사업의 성취를 필생의 원력으로 삼아 승가는 물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동국역경원은 총장과 불교대학장 등 8명의 편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경번역위원회는 번역분과, 증의분과, 윤문분과로 나뉘어 각계 학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편찬실에서는 편찬과 교열 업무를 담당하고 원활한 보급과 유통을 위한 업무지원팀이 별도로 가동되고 있다. 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의 간행 외에도 〈불교사전〉 〈불교성전〉 〈능엄경 주해〉 〈원각경 주해〉 〈신역화엄경〉 〈법화경〉 〈시와 불교의 만남〉 〈청허당집〉 〈인도철학의 산책〉 등 단행본도 출간했다.

임연태 편집위원
(ytlim@buddhapia.com)

금강불교대학 2545년(2001)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본 대학은 국내최고의 교수진으로 3년간 22과목을 가르치는 국내 최고의 불교교양대학으로써 한국 불교중흥에 이바지 할 천태종 종립교육기관입니다. 입학의 문은 불교신도가 아닌 누구에게도 열려 있으며,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전형

학과 / 정원	지역(기수)	교육년한	교과목	교육일시	지원자격	특전
불교학과	서울(19기) 부산(14기)	2년	1학년 불교학개론 불교문화사 인도불교사 불교문리 원시불교 금강경 중국불교사 빈아사상 2학년 한국불교사 법화불교 정토사상 비교종교론 대승불교론 선사상 천태학개론 불교경전의이해	1학년 매주 월 화 2학년 매주 목 금 1교시 오후 6시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90분간	·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및 2000학년도 졸업 예정자 · 천태종 총무원장 또는 주지의 추천인	· 수업료 종단지원 · 교법사과정 진학 자격취득
교법사과정	서울(8기) 부산(8기)	1년	포교방법론, 천태종학, 불교학특강, 포교실습, 유식사상, 육묘법문, 불교의식, 의식교육	매주 수 목 1교시 오후 6시30분 - 90분간 2교시 오후 8시 - 90분간	1 본대학 2년 수료자 또는 2 불교전문 교육과정 2년 과정의 수료자	· 수업료 종단지원 · 포교사 자격증 수여

학과	모집정원	원서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원서료 및 전형료	전형방법	면접일시
불교학과	서울 부산 각 120명	가 기간 2000년 11월 13일부터 2001년 2월 5일 오후 4시까지 나 접수처 서울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가 입학원서1부(본교 소정양식) 나 주민등록등본1통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라 반명함판사진 5매(원서용포함)	가 원서료 5,000원 나 전형료 10,000원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면접	서울 2001년 2월 21일 (오후4시) 부산 2001년 2월 13일 (오후6시)
교법사과정	서울 부산 각 50명		불교학과 구비서류 + 본대학2년 수료증명서 또는 불교전문교육과정 2년 수료증명서1통	가 원서료 5,000원 나 전형료 20,000원		서울 2001년 2월 21일 (오후4시) 부산 2001년 2월 22일 (오후6시)

2. 교수진 소개 (불교계 국내 최고의 정상급 교수진)

이재창 원의범 정태혁 김영태 리영자 권기종 서윤길 장충식 김상현 조용길 이봉춘 강동균 곽만연 권탄준 김용표 이은윤 최봉수 김사업 장휘옥 최종석 허경구 지창규

3. 대학위치

서울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내
- 양재역 성남방면 7번출구 마을버스 5, 6번 버스
- 강남역 6번출구 414번 버스

부산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131번지 삼광사내
- 어린이대공원 인접지역에 위치함

4. 원서 교부 및 문의처

서울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 2층)
전화 : 02-576-6401-2 팩스 : 02-574-1541

부산 금강불교대학 교무과 (부산진구 초읍동 삼광사 지관전 1층)
전화 : 051-808-0730 팩스 : 051-819-7654

대한불교 천태종 **금강불교대학장**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천보공업사
임직원 일동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89-3
전화 : 051) 315-2859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서비스를 창조하는 기업
아리테크 서비스
A-RI TECH SERVICE Co. LTD
◇ 선박수리(기관 / 갑판)
◇ 유 압
◇ 추진기
◇ 감속기. 역전기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28
전화 : 051) 417-9177~8
팩스 : 051) 417-9179

봉사 - 공부 도반이자 경쟁자

신행현장

이종천-나청자 부부의 신행



◇올해 포교사고시에 나란히 합격한 이종천거사와 나청자보살이 간이법당에서 함께 예불을 모시고 있다.

울 포교사고시 나란히 합격
며느리와 함께 경전공부
탑골공원서 매일 무료투약

'나모 다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붇다싸(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구랍 26일, 종로 묘각사(주지 홍파)에서 초하루법회를 마친 나청자 보살(61 · 불자보리약사회 회장)이 부군인 이종천 거사(65 · 서덕석유주식회사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남방불교의 〈초전법륜경〉 독경소리가 들려온다. 사무실 옆에 간이법당을 차린 이 거사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최근 공부하고 있는 남방불교 경전독경을 하고 있다. 나 보살은 가만히 법당으로 들어가 이 거사와 함께 독경을 한 뒤 참선에 들었다. 이 거사와 나 보살은 가정에도 법당을 차려놓고 매일 아침과 저녁 함께 예불을 올린다.

서로를 도반으로 생각하는 이 거사와 나 보살은 12월 23일 합격자를 발표한 제 6차 포교사고시에 나란히 합격했다. 능인불교대학과 동산불교대학을 함께 다니며 불교공부를 해 온 부부는 나란히 포교사가 된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며 현재의 삶에 감사를 느끼게 됐고, 부부사이와 가정이 훨씬 화목해졌지요. 불교공부를 하니 사업 등의 스트레스나 고민도 녹아 안정과 평온이 찾아왔지요."

또 다른 즐거움은 타종교인이었던 예비 며느리를 능인불교대학 20기로 입학시켜 졸업 후 능인선원 법당에서 지광스님 주례로 결혼시킨 일이다. 며느리는 '이런 훌륭한 가르침에 인도해 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며 외동아들까지 포교하여 보살계를 함께 수계했고, 현재 수요경전모임에서 시부모와 함께 경전공부를 하고 있다.

이종천 거사는 고교시절부터 성가대에서 활동했던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새벽부터 불교방송 교리강좌를 듣고 열심히 절에 나가는 부인이 못마땅했다. 그러던 그가 상공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91년 심갑보 사장(삼익물산)이 보내준 경영자 조찬회 지광스님 특별강연 테이프를 듣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부인나 보살의 끈질긴 포교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이 거사는 회사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에 사원들의 마음순화와 불교이해를 위한 글을 수시로 올려 주는 따뜻한 사장님이다.

98년 회장을 역임한 강서로터리클럽에도 외부연사로 무진장스님과 최봉수 교수를 초청하여 회원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적극적인 '예비포교사'다.

또 부인이 회장으로 있는 불자보리약사회의 든든한 물질적 정신적 후원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남을 위해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는 나청자 보살은 3년 전 불자보리약사회가 창립하자 천직이라 여겨왔던 약국까지 문닫고 남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매달 둘째주 일요일 탑골공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료투약봉사를 펼치고, 강남 봉은사는 물론 타종교 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에도 나가 봉사중이다. 주1회 광림교회가 운영하는 서초복지관과 천주교 가평 꽃동네에 가서 수지침 봉사를 한다.

나 보살은 "종교를 떠나 내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나 간다"며 "이러한 작은 활동이 종교화해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거사와 나보살은 "금생에 별로 좋은 일을 한 사실이 없는 우리가 전생 수겁의 지극한 업(業)의 연(緣)으로 오늘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삶을 누리고 있다"며 "부부로서 도반으로서 합심하여 선업 짓도록 노력하며 내생에서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한다며 서로 마주보고 빙그레 웃음지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내가 보살이면 남도 보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찌 상대가 나를 받아 주겠는가.

마음이 상응하는 것은 물과 물을 섞는 것과 같다. 상대가 하찮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밉게 여겨질 때에는 '저것이 바로 내가 몰랐던 시절의, 못났던 시절의 내 모습이지!' 하고 한 생각을 돌려 보라. 수억 겁 진화의 과정에서 나라고 하여 어찌 고상한 길만 걸어왔겠는가. 온갖 모습을 다 해보았을 것이니 상대가 비록 하찮게 보인다 하여 '너는 아니다' 라고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물에 물을 섞듯이 상대와 하나가 되려거든 먼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열지 않고서는 상대가 내게로 올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수용할 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줄 때,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강요된 순응이나 복종은 있을지 몰라도 있을 뿐 물과 물이 섞이는 것과 같은 동조, 공감, 융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수용하는 것은 부화뇌동하는 일도 아니고 비겁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의 수순일 뿐이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도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격의없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해져야 공감대를 넓힐 수 있으며 공감대가 넓어져야 둘이 하나되는 동조(同調)가 이뤄지는 것이다. 고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무주상보시의 첫걸음이 된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이라도 같다. 내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야 그도 내가 된다.

내 몸 속에 들어온 것은 들어오는 순간에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내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나는 그의 일부가 된다. 고로 그도 나의 한 부분이 된다. 마음과 마음이 섞인다면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그이겠는가. 그냥 한마음인 것이다.

내가 보살이면 남도 보살이다. ▩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팔정도·육바라밀 실천 부처님처럼 성불하는 길"



지하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견명성오도(見明星悟道) 하신날이 음력 12월 8일 성도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날이 큰 명절로 전국 사찰마다 볼자들이 모여 철야정진 기도를 하고 각 선원에서는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용맹정진으로 밤을 꼬박 지샙니다.

불자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자고 큰 원력을 세우고 신행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자는 것이요, 힘없는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자유자재함을 얻어 생사를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만을 챙기는 못난 인간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남도 생각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로 가는 길

탐진치 그대로 두면
미망 속에서 사는 중생

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등 팔정도와 보시, 지계, 인욕 등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유한한 세계와 영원한 세계 역시 각각이 아님도 일러 주셨습니다. 또한 극락과 이 사바세계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과 이 세상 아주 작은 것 하나 하나에도 시방세계 모든 것이 다 함유(含有)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 현실은 아집과 갈등,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고 나만을 챙기고 우리만을 지키느라고 다툼과 투쟁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미망 속에 인류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인류사회는 다 함께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는 사회, 희망과 즐거움이 있는 사회, 맑고 밝게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탐진치 삼독심을 그대로 두면 미망 속에 살아가는 중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심기일전하여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 나간다면 이는 곧 깨달음의 삶이요, 보살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살심이 없이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맑고 밝은 희망이 있는 사회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리만 바꾸고 사람이 바뀐다고 우리사회가 달라 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이 바뀌어야 이 사회가 달라집니다.

심기일전 이야말로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임을 인식해 공생의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확산되어져야만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평화가 유지되는 인류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참다운 불자라면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해 삼독심으로 아집과 편견, 그리고 투쟁을 일삼는 중생의 삶을 대신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줄 줄 아는 지혜롭고 여유 있는 보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지럽고 어두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희망 없는 사회를 일러 사바세계라 했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웃으며 맑고 밝은 사회를 화장세계(華藏世界), 극락세계(極樂世界)라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멋진 사회로 향해 가는 길이 불도인 것입니다. 이 불도를 이루는 길은 오직 심기일전의 길 뿐입니다. 오직 내 마음하나 바꾸는 길 뿐입니다. 그래서 불가의 가훈은 일체유심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세기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인류의 역사 앞에 함께 사는 사회를 열어 가는데 그 사명과 원력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1월 3일 (수)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오전 10시 불교회관 1층에서 2001년 시무식을 봉행한다.(02)732-9342

■동화사 단기출가 수련회=대구 동화사는 6일까지 3박4일동안 '참회와 발원을 위한 수행'이란 주제로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참선, 삼천배 철야용맹정진, 부모은중경 강의, 운력, 팔공산 산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53)982-0101

1월 4일 (목)

■거원선원 겨울수련회=고흥 거원선원은 7일까지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수련회는 오후불식, 화두 참선법 등으로 진행된다.(061)843-8848

1월5일 (금)

■정비파 목판화전=정비파씨는 10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다색목판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주탑', '경주 감은사', '운문사 금당암 석등' 등 70여점 판화를 감상할수 있다.(051)853-2021

■동산불교대학 금강경 법회=동산불교대학은 오후 2시 여수 석천사주지 진응스님을 초청, 금강경 법회를 봉행한다.(02)732-1206

■파라미타 간부수련회=파라미타는 7일까지 2박 3일간 여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2001년 지도사연수 및 분회 간부 수련회를 개최한다.(02)723-6165

1월6일 (토)

■불국사 어린이 겨울수련학교=경주 불국사는 8일까지 심검당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제 15회 어린이 겨울수련학교를 개최한다.(054)746-1472

■부산불교교육원 참선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방학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부모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청소년 참선교실'을 실시한다.(051)466-4080

1월7일 (일)

■백양사 참사람 겨울 수행결사=장성 백양사는 11일까지 참사람 겨울 수행결사를 실시한다.(061)392-7502

1월8일 (월)

■'봉축장엄등' 제작강습회=조계종 봉축위원회는 12일까지 불교회관 1층에서 '봉축장엄등' 제작강습회를 개최한다.(02)725-6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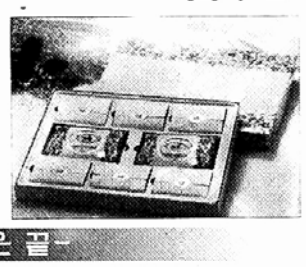
1월9일 (화)

■대원사 천일기도 대법회=부산 대원사는 오전 10시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을 초청해 천일기도 대법회를 봉행한다.(051)891-7255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다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天蓼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박태원 교수의 ⑲

불교로 보는 인생

진주에 훌륭한 한의사 한 분이 계신다. 한 스님의 소개로 알게 되어, 벌써 10년 가까이 선우 인연을 가꾸어 가고 있다. 처음 인사하던 날, 그 분의 자기 소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의업을 선택하게 된 사연과 공부 과정을 소상히 드러내 주셨는데, '보기 드문 선근(善根) 공부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하는 내용이었다. 가식이나 과장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분의 공부 과정은 알짜 교훈으로 가득하였다.

젊은 시절 어느 날 심장에 이상을 느껴 의사를 찾아가니, 잘 해야 몇 달 더 살 수 있는 상태라나. 그 소리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어 얼마 안 걸리는 그 길을 몇 걸음 걷다 앉고 또 주저앉으며 천근 만근 마음으로 무겁게 걸었단다. 너무도 급하게 들려온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가 그 확실하던 삶의 모든 것을 일시에 허망하게 증발시키려 덤비니, 걸음 걸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오더란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한동안 넋을 놓다가 정신 차려 자신을 돌아보니, 을 숙고하게 하는 계기를 만날 때는 누구나 새삼 진지하고 숙연해진다. 어줍은 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드려대는 나는 어떻게 걸었고 또 걸을 것인가? 일년을, 그리고 평생을 비추어 볼 구체적 거울 하나를 생각해 본다. 부처님이 권하시는 생명 성숙의 길, 그 존재 해방의 길 위에서, 나도 내 숙업(宿業)의 습벽과 관련된 구체적인 향상의 기준 하나를 서원 삼아 확인해 두고 싶다.

직업 환경 상 나는 지성(知性)의 타자 부정적 성향에 함몰되기 쉽다. 학문의 길이란 비판 기능의 연마를 내포하는 것. 인간과 세상에 관한 경험과 관점과 이론들을 근저에서부터 세밀히 음미하는 지성의 능력을 함양하다 보니, 각종의 장, 단점, 그 일리(一理)와 무리(無理)와 한계들을 정확하게 판별해 내는 비판 능력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새 타자 부정의 차갑고 예리한 성향에 쉽게 물들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이 성향을 그대로 방치하면 삶을 망가뜨리는 세

신사년 서원 하나

성냄의 교묘한 함정 빠지지 않도록 노력

가지 잠재 습벽(三毒心)의 하나인 진심(嗔心: 성냄, 증오, 공격, 질투, 잔인함 등으로 표현되는 타자 부정의 성향을 키우게 된다. 예리하지만 차갑고 메마른 지성은 '타자 부정'의 유효한 도구로 전락하기 쉬운 법. 진리 탐구의 이름으로 비판 이성을 갈고 닦는 세상의 모든 학인들은 이 함정을 십분 경계해야 한다. 밝고 깊은 통찰과 따뜻한 자비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부처님 법은 그래서 수승하고 위대하다.

방심(放心: 경험하는 '것'들을 향해 마음이 치달려 나감)하기만 하면 곧 습벽에 밀려 차갑게 식곤 하였던 나를 되돌아보며, 새해 경건하게 원(願) 하나를 새긴다.

'21세기 그 중반을 못 넘기는 어느 시점에 마감할 '박 아무개'란 생명이, 진심(嗔心)의 그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정신 차리리라. 밝게 보면서도 따뜻하게 안으려 노력하리라.'

■울산대 철학과 교수

간 별 생각 없이 흘려 오던 허물들이 눈에 선명해지고, 그래서 절절히 참회하며 다짐하길, "혹 건강이 회복되어 더 살게 된다면 다시는 화내지 않으리!" 하셨단다. 이미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면서, 아마도 화급한 성격으로 가까운 사람들 마음에 상처 꽤나 입혔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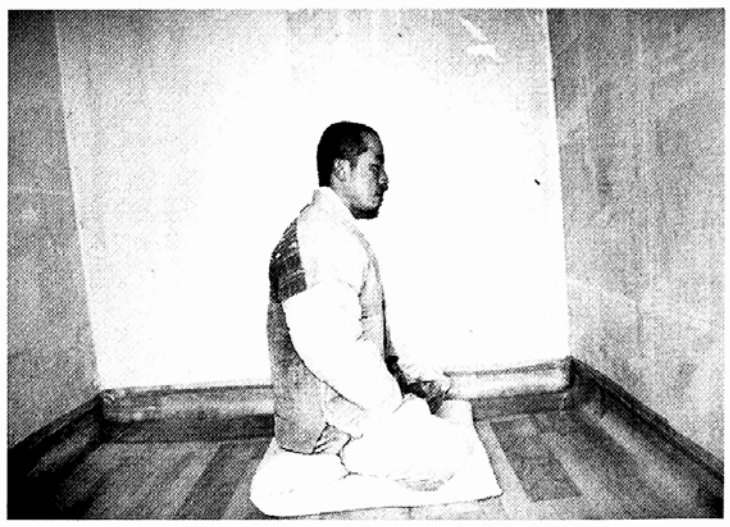
그 후 우여곡절 끝에 한의학 처방으로 기사회생하게 되고 그 인연으로 한의학의 길에 접어 든 그 분은, 죽음의 심연 앞에서 일으켰던 다짐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나한테 한 약속대로 그 후로는 별로 화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나 힘 실려 있는 그 분의 말을 들으며 나는 서원의 영험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입문한 의업의 길에서 60 넘으신 지금도 밤늦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분에게서는, 의술의 경지 만큼이나 수행의 자세와 성취 또한 선명히 돋보인다. 참선으로 밝아진 도안(道眼)과 마음 씀씀이는 주위를 언제나 법향(法香)으로 채운다.

또 한 해를 열고 있다. 기원(紀元) 설정에 개입한 인위적 편애가 무엇이건 간에, 걸은 길을 되살피고 갈 길

한평 남짓 흙집 솔바람 소리만…

참물자의 길 토굴수행 왜 하나



◇토굴은 세속의 잡사에서 벗어나 일체의 방해를 받지않고 용맹정진 할 수 있는 수행처다. 사진은 토굴에서 정진하고 있는 청견스님.

'이 뭐꼬', '무(無)'….

지금, 제방 선원에서는 수좌들이 외부 출입을 끊고 제각기 화두를 붙잡고 용맹정진 중이다. 이런 선 수행의 중심은 백양사 운문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등 선원이다. 반면 무문관(無門關)과 토굴(土窟) 등에서 홀로 가행 정진하는 선객들 또한 상당수다. 이러한 수행처는 전국의 유명산 곳곳에 여러 형태로 있다. 다만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토굴은 한국 선불교의 맥을 이어온 산실이라 할 정도로 많은 고승들이 거쳐간 수행처다. 진표 율사는 변산 의상봉 동쪽 불사의방장에서, 원효 스님(617~686은 전북 개암사 뒤 암봉 울금바위굴에서, 근세의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경봉 스님(1892~1982)은 고성 문수암 인근 천연동굴에서 뼈를 깎는 정진을 통해 깨침을 얻었다고 한다. 이러한 토굴 수행은 불교사의 맥을 같이하며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에서 '독살이(?)' 수행을 하는 것일까.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 등 여러 산 속 토굴에서 15년 간 수행을 해온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을 통해 토굴수행 이야기를 들어본다.

스님은 처음부터 토굴수행을 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선방엔 한번쯤 방부를 들이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구참 수행자다. 그런 스님이 왜, 대중 생활을 뒤로하고 굳이 산 속으로 들어가 험난한 토굴수행을 자처했을까.

구랍 23일 기자가 찾아간 양평 봉미산 자락 토굴에서 스님은 면벽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 토굴에는 간혹 새와 솔바람 소리만 들릴 뿐 모든 것이 정적에 싸여 있다. 스님이 직접 만든 이 토굴은 한 평 남짓한 흙집. 겉에서 보기에는 일반 농가의 작은 창고처럼 보인다. 하얀 색의 한지로 도배한 내부에는 좌복 하나만 덩그렇게 놓여 있을 뿐이다. 창문도 없다.

스님이 대중선방 생활에서 벗어나 토굴수행을 하게 된 것은 번거로운 세속의 잡사에서 벗어나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진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토굴수행의 좋은 점이기도 하다.

스님은 한때 수년간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생식을 하며 지낸 적이 있을 정도로 정진에 몰두한 적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씻지 않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얼마간은 온몸이 간지러워 참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선불교 맥 이어온 산실
의식주 집착 않는 정진
'쉼터' 변질 안타깝다

이 단계를 잘 견디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특히 토굴 수행자에겐 씻는 일 등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수행의 시간을 늘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스님은 또 토굴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먹는 일에도 집착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깊은 산 속의 토굴생활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먹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먹는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먹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수행의 순조로움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여러 곡물을 갈아 만든 미싯가루를 수행식으로 한다.

세상의 괴로움이 자신을 옥죄어 올 때 불보살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힘들고 어지러운 시절이어선지 최근 단기출가, 주말선수련회 등에 참여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어떤 불자들은 어디에서 수행해야 잘 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스님은 초심자에게는 장소보다 투철한 신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투철한 신심이 확립되었을 때,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가르친 수행의 방법을 직접 몸으로 수련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출발점은 철저한 신심이라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스님들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토굴수행은 보통 한 평 남짓한 방에서 홀로 묵언과 부동의 고행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촌철살인의 원력과 풍부한 수행경험, 그리고 선지식의 지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무위도식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독살이를 하는 만큼 자칫하면 부처님이나 조사를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닌 신비적인 직관으로 인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스님은 "자신의 근기는 생각하지 않고 '토굴수행'이란 꿈 하나만으로 수행을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점이다"고 귀띔한다. 즉 자신의 근기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의 기초가 이뤄지지 않고 섣부르게 하다보면 오히려 헛된 망상만 쌓이거나 수행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일에만 치중하는 병폐를 초래할 수 있다. 요즘 토굴문화가 수행이 아닌 '쉼터나 별장' 개념으로 변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근기를 스스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선지식의 가르침이다. 선지식은 수행의 길을 안내해 줄뿐 아니라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에선 '선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옛 선승들만큼 수행을 하는 선객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직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굴에서 용맹정진하는 있는 선객들을 수행의 사표로 삼을 만하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辛巳年 불교소사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 발족…1461년 간경도감 설치

▲681년(신라 신문왕 1년): 경흥을 국사로 삼아 삼랑사에 머물게 함.

▲741년(신라 효성왕 5년): 왕이 승하하니 유언에 따라 법투사 남쪽에서 화장하여 뼈를 동해에 뿌림.

▲801년(신라 애장왕 2년): 조성왕비 무장사에 미타상과 신중상을 조성.

▲861년(신라 경문왕 1년)
2월: 원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곡사(885년 대숭복사로 개칭) 창건.

▲921년(고려 태조 4년)
3월: 법경선사 입적. 7월: 원종국사, 투자대동(投子大同)의 법을 얻고 중국에서 돌아옴. 10월: 대흥사를 오관산에 창건, 승려 이언을 맞아들여 스승으로 섬김.

▲981년(고려 성종 1년)
11월: 팔관회 개최, 법황사에 거동하여 행향(行香).

▲1101년(고려 숙종 6년)
4월: 왕이 일원사에 거동하여 금자 〈묘법연화경〉이 이루어진 것을 경축. 7월: 일꾼 1,900인으로 국청사를 중수. 8월: 신라의 원효에게는 화쟁국사, 의상에게는 원교국사의 법호를 내림.

▲1221년(고려 고종 8년)
9월: 원진국사 공산(公山) 염불암에서 열반(1171년 출생).

▲1281년(고려 충열왕 6년)
3월: 승지 염승익의 요청으로 그 집 한 채에 금자대장사경소 설치. 6월: 왕이 경주에 거동하여 승직을 내림. 승려들이 비단 뇌물로 직을 얻으니 사람들이 이를 나선사(羅禪師) 능수좌(綾首座)라고 했음.

▲1401년(조선 태종 1년)
1월: 건성사에 제석례참(帝釋禮懺) 개설, 진관사에 수륙제 개설. 3월: 사헌부, 숭불의 폐해를 건의. 5월: 태상왕, 의종에게 대자(大字) 〈능엄경〉을 선서케하여 간행.

▲1461년(조선 세조 7년)
6월: 간경도감 설치, 불전 국역. 10월: 승니 호패의 법을 제정.

▲1701년(조선 숙종 27년)
지리산 화엄사를 선교양종 대가람으로 삼음.

▲1881년(조선 고종 18년)
5월: 이동인, 서울에서 피살. 9월: 건봉사에서 제3회 염불만일회 개설.

▲1941년
4월: 사찰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전 조선의 사찰 및 승니를 통할하는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사법' 인가. 조선불교조계종 발족. 6월: 조계종, 제1회 중앙종회 개최, 종정에 한암 스님 선출. 종무 개시. 12월: 조계종, 전국 각 사암에 대동아전쟁 필승기원제를 봉행하라고 통첩.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 본원종
삼각산 연화정사
주 지 범해 이 대화
총무원장
신 도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6호
TEL : 02) 379-1965/391-4376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생명이
한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시대가 되소서

재단법인 선학원
여여선원
선원장 혜 운
신도회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82-4
TEL : 053-622-0336/629-4945
FAX : 053-655-38251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징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 중 일 동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http://www.bongsanbud,org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치악산 구룡사
주 지 (慈光)
李遠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번지
TEL : 033) 732-4800~3
FAX : 033) 732-1211

대한불교 조계종 통천사
주 지 이선지
신 도 일 동
TEL : 053) 953-4481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 지 보 혜
신 도 일 동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호
TEL : 033) 682-1933

대한불교 조계종 성주사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창원시 천선동 102번지
TEL : 055) 262-0108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망 해 암
주 지 법 두
봉 사 회 일 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 19번지
TEL : 031) 443-5559

佛舍郎 선종사
대 표 신선종
직 원 일 동
불교용품 제작판매
각종 불사 상담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 314-5
사무실 : 031) 858-8661
공 장 : 031) 858-1408
핸드폰 : 011) 9355-1328

각지에서 몰려온 승려들로 안팎이 꽉 찼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⑭

(13) 영취산 대법회

달마선법의 핵심은 벽관(壁觀)과 좌선(坐禪)으로 집약된다. 벽관은 벽을 향해 앉는, 이른바 면벽(面壁) 수행법을 말한다. 그러나 벽관은 단지 면벽하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벽같이 되지 않고선 진정한 벽관이랄 수 없다. 나아가서 벽관은 마음과 벽이 하나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안심(安心)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벽관에서의 관(觀)은 물론 견(見)과는 뜻을 달리한다. 견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데 반해 관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벽관은 마음의 눈으로 벽을 본다는 뜻이 된다. 벽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벽관은 내가 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벽이 나를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달마선법의 좌선은 흔히 결가부좌의 앉음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보리달마가 스승인 반야다라에게서 전수받은 좌법은 이른바 궤좌법이었다. 좌선에서는 결가부좌를 하든 궤좌를 하든 지켜야 할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는 앉음세 자체가 피라미드처럼 중심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좌선할 때 반쯤 감은 눈은 코끝을 보게 하고 코는 다시 마음을 보게 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함으로 들어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보리달마는 천축 즉 인도에 있을 때 이미 세 차례나 벽관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벽관수행을 통해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고 안으로는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닦음으로써 옥처럼 티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도견왕의 병을 고쳐 주기 위해 보리달마는 줄곧 왕궁에 머물렀다. 이 날도 내전에서 참선을 끝내고 나오는데 숙직하던 스님이 합장하며 아뢰었다.

"영취산(靈鷲山)에서 곧 대법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조사께서도 참석하시는지요?"

달마는 며칠 있으면 2월 8일날 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께서 출가한 날인 동시에 세존께서 염화시중(拈華示衆)하여 가섭에게 법을 전한 날인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천축 불교계는 오랜 전통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영취산에서 큰 법회를 열어 왔다. 이날 불교계의 여러 종문과 종파의 스님들은 모두 영취산에 모여 법을 논하는 자리를 갖는다. 각 종문과 종파가 교의(敎義)와 법지(法旨)를 교류하고, 그 이치를 밝히는 데서 의의를 찾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석가모니가 출가한 날과 세존이 전법(傳法)한 날을 함께 기념해 왔던 것이다.

세존께서 염화미소로 가섭에게 전한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진법(眞法)을 이어받은 보리달마가 어찌 이런 법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번 법회는 스승 반야다라로부터 법통을 이어받은 뒤 갖게 되는 최초의 행사이기도 했다.

2월 8일. 드디어 10년만에 열리는 영취산 대법회가 시작되었다. 영산정사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승려들로 안팎이 꽉 찼다. 법단 앞은 물론이고 정원 구석까지도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그러나 질서정연했다. 모두가 차분하게 열 번의 종소리가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영산정사는 영취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었다. 정사 주변으론 오래된 전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정사로 향하는 길목 양 옆엔 역대 조사(祖師)들의 부조 석상이 세워져 있고 정사의 우측엔 종루(鐘樓)가 우뚝 솟아 있었다. 종루 사방의 여덟 군데 모서리에는 풍경이 걸려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땡그랑거리며 산 속의 운치를 자아냈다. 정사 중앙에 위치한 법단의 문 위에 걸려있는 영산법계(靈山法界)라는 네 글자의 금박 편액이 유난히 돋보였다.

"댕! 댕! 댕! …."

장엄하면서도 맑은 종소리가 드디어 10번 울렸다. 10년만의 모임을 상징하는 10번의 종소리와 함께 붉은 가사를 몸에 걸친 보리달마가 손에 염주를 굴리면서 법단으로 올라갔다. 참석자들의 눈길은 일제히 달마에게 쏠렸다. 과연 세속을 초탈한 대조사답게 비범한 기운이 온몸에서 풍겨 나왔다.

한데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이 곳에 모인 승려들이 모두 보리달마를 숭앙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인 듯싶었다. 사실 달마가 내세운 대승선(大乘禪)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고승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보리달마는 그런 반대를 극복하고 인화(人和)를 통해 선법을 널리 선양하는 것이 그가 해야할 일이라고 여겼다.

냉정을 잃지 않는 달마

법단에 좌정한 달마는 도도하게 흐르는 대하(大河)처럼 선종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파했다. 수 천명의 승려들은 설법의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달마선법의 클라이맥스는 입세수행(入世修行)과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참뜻을 말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법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리달마가 법단으로 올라갔다
세속을 초탈한 佛祖답게
온몸에서 기품이 풍겨나왔다

한쪽 구석에서 갑자기 "닥치시오!"하는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리가 들려온 쪽에서 회색 가사를 입고 검은 색 신을 신은 대화상(大和尙)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달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당신이 말하는 입세수행과 견성성불은 이단의 사설에 속하는 것이오. 그런 설법은 걷어 치우시오. 우리가 수행하는데 꼭 입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그리고 꼭 입세해야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소."

대화상은 자못 강경하게 힐문했다. 그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여기저기서 소란이 일어났다.

"당신의 설법은 불문(佛門)을 더럽혔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보리달마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태연자약했다. 그는 손에 쥔 염주를 굴리며 '아미타불!'을 외쳤다. 그런 다음 다시 설법을 계속했다.

"여러분이 이 곳에 모인 것은 각기 자기의 의견을 펼쳐서 부처님의 법륜(法輪)을 빛내고 넓히기 위해서 입니다. 반승이 비록 선종의 가르침을 말하고는 있지만 여러 동문에 대해서 한 번도 천박하게 여기거나 경멸한 적이 없고, 더욱이 억지로 남을 설복하려고 한 적도 없소이다. 지금 천축의 불교계에는 여러 종파가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각 종파가 서로 격려하며 절차탁마(切磋琢磨)하고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오. 각 종파의 가르침과 방법에 비록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은 하나로 일치될 것이라고 믿고 있소이다. 모든 중생을 고해(苦海)에서 구해 내고자 하는 목적 말이외다."

"옳은 말씀이오."

"참 훌륭하신 말씀이오."

여기저기서 칭찬과 찬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란을 피우던 승려들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머쓱해서 침묵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그들이 어찌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기 종파의 승려들을 선동하여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 전하신 법은 한 가지의 일문일종(一門一宗) 뿐이다. 어찌 너희같이 불법을 왜곡해서 별도로 선종을 세우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법문(法門)에서 축출해야 한다. 다시는 사도(邪道)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달마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세력들이 우르르 법단 앞으로 몰려들었다. 법단 주변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달마를 추대하고 숭앙하는 승려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계속해서 "업보로다, 업보로다"하며 탄식해 마지않을 뿐이었다.

그러나 보리달마는 냉정을 잃지 않고 의연했다. 석가모니 부처의 옛날 규율을 철저하게 받들어 온 승려들은 그가 어느 종파에 속해 있든 간에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더군다나 얼핏 독창적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선견(禪見)의 사상(思想)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천축 불교계의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종파의 분쟁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6대 종문을 설득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승려들의 소란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커져만 갔다. 심지어는 보리달마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기세까지 보였다. 그의 머리엔 문득 스승인 반야다라 조사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조사로부터 이어받은 하나(一)의 진법이 동쪽 땅에서 무르익게 될 연고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었다. 만약 동녘 진단(震旦)에서 진정으로 불법이 꽃피고 그것이 되돌아와 천축에 영향을 주게 되는 날이면 종파와 파벌의 다툼도 없어지고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초의 선사 作 달마도(종이에 담채, 지리산 칠불사 소장, 110×38cm)

웃으면서 대답했다

보리달마는 천축에서의 인연이 잠시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절감했다. 그는 법단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무리들을 향해 합장한 채 "아미타불. 잘들 하는 짓이오. 잘들 하는 짓이오"하고 탄식했다. 그리고 법단을 내려온 다음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소이다. 바라건대, 여러 대화상들께서 알아서 이 모임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기를 부탁하는 바이오. 빈승은 이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소이다."

보리달마는 몸을 돌려 훌쩍 나가 버렸다. 소란에 앞장 섰던 승려들은 더욱 기세 등등했다. 달마의 속마음은 모른 채 이치에 몰려 도망가는 것이라고 여겼다. 과격한 몇몇 승려는 달마의 앞을 가로막고 노기 띤 목소리로 힐난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오늘의 모임인 영산논불(靈山論佛)에서 아직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는데 어째서 스스로 패하여 물러가는 것이오?"

달마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오늘의 영산논불은 불교 각계가 의견을 교류하여 서로 깨우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결코 자웅을 겨루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를 정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지 않소."

"당신은 오늘의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도중에서 법단을 떠나 우리를 모욕하고 있소."

승려들은 노기를 뿜으며 달마의 코앞까지 대들었다. 달마는 한 발 물러서며 대답했다.

"법단에서 내가 불법을 말할 때 조금도 불손한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런 소리를 하시오. 오히려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오."

달마가 부드럽게 대하자 승려들도 차츰 기세가 꺾이는 듯싶었다. 승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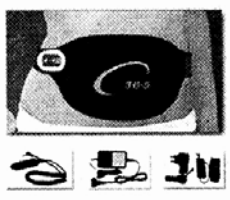
"이렇게 가시다니 …,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시오?"

"빈승은 인연이 동쪽 땅 진단에 있어 그곳으로 가려 하오."

인터넷 불교쇼핑 마하몰 신년 특선 상품전 www.mahamall.co.kr 02)732-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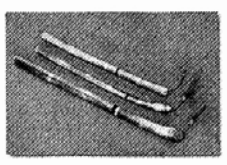
108 나한단주

산목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玉 건강벨트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빗데리
(휴대용 구입시)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삼보죽염 세트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600g / 가격 : 105,000원

죽 비

뿌리죽비(대) 30,000원
뿌리죽비(중) 25,000원
뿌리죽비(소) 20,000원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뿌리 大, 뿌리 小, 일반형)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옴 문양 실크스카프

소재 : 100% 실크(트윌) / 색상 : 아이보리, 네이비
규격 : 90 Cm × 90 Cm / 가격 30,000원

연꽃 불자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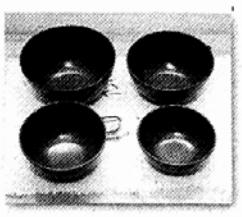
◇ 특별사은품
(달이시계 +
수입목108염주)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원
숯기반 35,000원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경 상

재질 ASH(느릅나무)
완전원목
규격 : 72Cm (가로)
×34Cm(세로)
×32Cm(높이)
가격 : 85,000원
가격 85,000원

와 발 우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가격 :
4합 60,000원
(무게 2.7Kg)
2합 30,000원
(무게 1Kg)

왕사성의 비극

부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물가에서는 노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제하는 것이다.
비디오 (1시간35분)
책 포함 가격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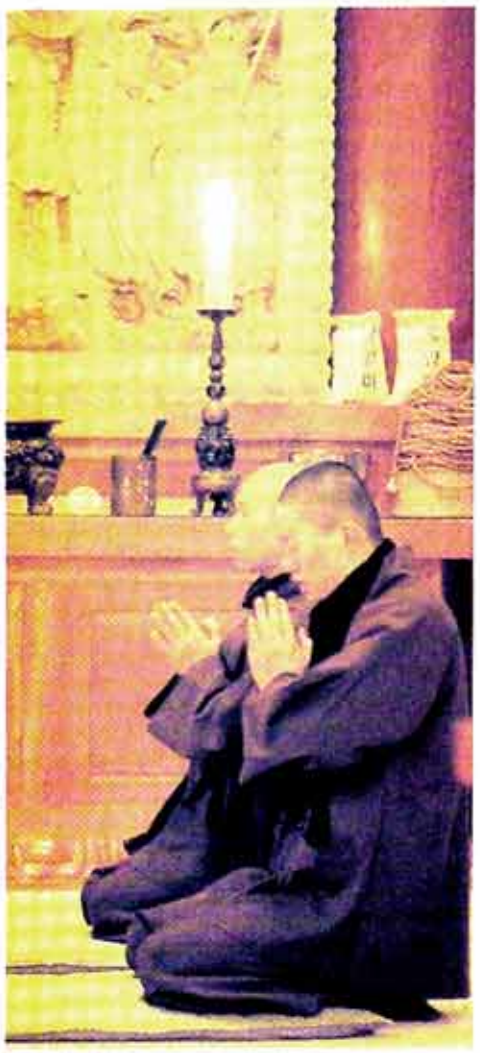


◇샘터에서 청수를 받고 있는 모습.



◇새벽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나오는 봉영사 스님들.

새벽 산사에선…



◇새벽 예불을 하고있는 행자들.

칼바람 맞으며 '기필코 성불' 서원

"식은 화로 아무리 헤쳐 봐도 불기운은 없고/ 외로운 등잔불은 다시 밝아질 줄 모르네/ 적막한 채 이 밤이 지나 가노니/ 먼 개울 소리 벽을 뚫고 들어오네."

새벽-. 어느 선객은 이 때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날 때라고 말했다. 이러한 새벽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사다.

어느 사찰이든지 산사의 새벽은 목탁소리로 시작된다. 새해 첫날 찾아간 경기도 남양주 천점산에 자리한 봉영사(주지 철안)도 그렇다. 이 산사의 도량석은 출가한지 6개월 째 되는 한 행자의 몫이다. 한겨울의 추위를 막아주지 못할 것 같은 감색 행자복에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유난히 추워 보인다. 하지만 행자의 신심은 한겨울 추위를 무색케 한다.

새벽 3시. 한 행자는 법당을 향해 예를 올린 뒤 목탁을 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약하게 두르리다가 차츰 커진다. 법회나 기도 때와는 반대이다. 도량석 목탁소리가 새벽을 가르고 경내 곳곳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산사는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선객들은 화두를, 학승들은 경전을 챙긴다.

한 행자가 〈천수경〉을 독송하며 공양간을 막 지날 때 또 한 명의 앳된 행자가 물주전자를 들고 샘터로 향한다. 부처님께 올릴 맑은 샘물을 받기 위해서다. 새벽 산사의 공기보다 더 시린 물주전자를 손에 쥔 그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샘터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한 뒤 청수를 받아 법당으로 잰걸음을 옮긴다. 이렇듯 분주히 움직이건만 소란스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도량석(道場釋). 스님들은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 시간을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긴다. 눈뜸과 동시에 찾아오는 번뇌를 잠재우고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 의식은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맑히는 '정구업진언'으로 시작된다. 이어 모든 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그리고 '사방찬'과 '도량찬'이 이어진다. 이런 독경은 수행처를 조성하기 위한 의식이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목탁을 잡은 손을 옴짝달싹 할 수 없게 할 때 스님들은 '참회게'를 외우고 참회진언을 한다. 그리고 반드시 부처를 이루겠다는 발원과 함께 '여래십대발원문'을 외우고 사홍서원으로 도량석을 마친다.

참회와 발원. 이것이 새벽 산사의 하루를 여는 도량석의 몫이다. 도량석은 결코 잠을 깨우는 의식이 아니다. 지비를 베풀고 법음을 전하는 깨달음의 도량을 열어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깨달음으로 세계로 가기를 서원하는 수행의식이다.

새벽 3시 도량석 염불소리 온산 울리듯 청량

새벽 4시 기도정진하는 스님 경전공부하는 행자

새벽 5시 팔걷고 도량청소 분주한 공양준비

이러한 의식이 마치면 공비로 땅과 하늘, 금과 지옥 중생들까지도 일깨우기 위해 법고 · 운판 · 법종을 예불 직전에 친다. 이 사물의 울림 속에는 예불문의 마지막 구절인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願共法界諸衆生 自他一時成佛道' 즉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지고한 정신이 담겨 있다.

작은 범종의 마지막 울림에 모든 대중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그리고 새벽 예불문의 첫 구절인 다게에 이어 대중들은 오분향례를 다함께 독송하며 절을 한다. 부처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간절한 서원이 또 시작된 것이다.

반야심경 독송을 마지막으로 새벽예불이 끝나는 시간은 보통 새벽 4시. 이 때부터 새벽 산사는 활기를 찾는다. 봉영사의 경우 법당에선 1천일 기도에 들어간 혜복 스님이 법당에 남아 기도하고, 두 명의 행자는 30여분 절을 한 다음 경전공부를 한다. 그리고 주지 스님은 하루의 일정을 점검한다. 요즘같이 밤이 긴 겨울에는 이러한 스님들의 공부는 2시간 정도 이어진다.

어슴프레 남이 밝아오는 시간. 스님들은 골짜기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안개를 밟으며 빗자루 하나씩을 들고 나타난다. 딱히 쓸 것이 없는 마당이지만 스님들은 비질에 열심이다. 마당을 쓰는 것도 수행의 한 방편이라 했던가. 그래서인지 마당을 쓰는 스님들의 모습은 우리네 모습과는 달라 보인다. 이 때쯤이면 공양간도 분주하다. 장작을 지핀 부뚜막 가마솥에는 밥이 익어 가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공양주 보살이 막 김장독에서 꺼내온 김치와 된장찌개가 군침을 돌게 한다. 특히 봉영사는 매일 아침 콩을 삶아 직접 두부를 만든다. 이 일은 두 행자와 올해 사미계를 받은 혜총 스님의 몫이다. 이들에게 있어 두부를 만드는 운력은 새벽의 일과 중에서 가장 재미있어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추운 겨울 활활 타는 장작불 앞에서 불을 쬘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란도란 이야기도 마음껏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부 만드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가마솥에서 뭉글뭉글 순두부가 만들어진 것을 두부판에 담아 누를 때면 아침 공양시간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들려온다.

분주하면서도 고요한 겨울을 나고 있는 산사. 겨울이면 아직도 군불을 지펴 공양을 짓고 두부를 만드는 산사. 그곳에 가면 정겨운 옛 절의 분위기를 만날 수 있다. 새해 새아침, 새벽산사로 가보자. 그리고 그 품에 안겨 도심에서 고단했던 삶의 보따리를 모두 풀고, 청정한 자신의 본성을 찾아보면 어떨까.

글=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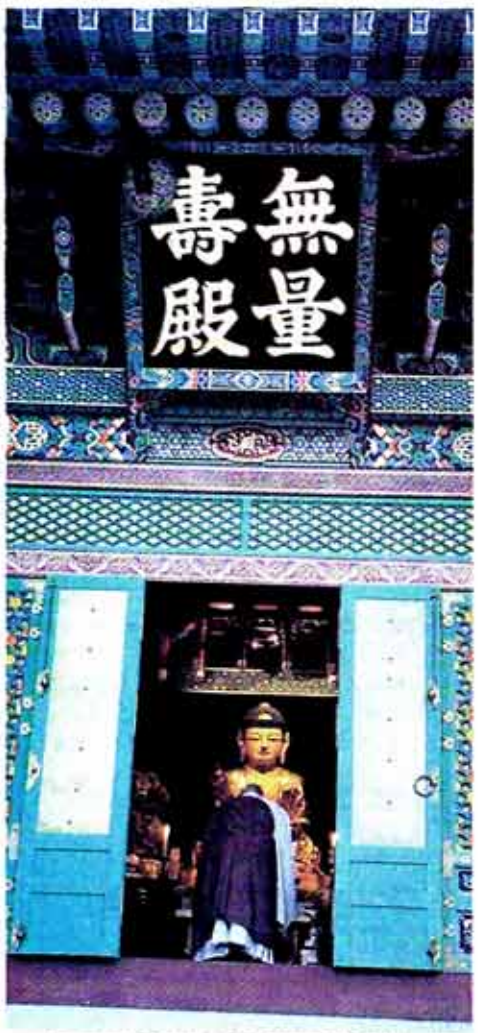
◇새벽예불을 마친 행자들의 경전공부 모습.



◇스님들에게는 마당을 쓰는 것도 수행이다.



◇산사의 겨울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부를 만들고 있는 스님들.



◇새벽예불이 끝나면 스님들은 각자의 수행을 한다. 사진은 법당에서 1천일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 모습.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칡견과튀김



"강중剛中이! 편안한가?"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스님이 대궐로 들어가는 대감의 행차를 막아섰다. 한 나라의 재상인 서거정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오! 설잠. 오래간만이네. 여기는 어떤 일인가?" 서거정 대감이 걸인같은 스님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설잠은 김시습의 법명이었대.

장안은 온통 이 스님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어디 그뿐인가. 김시습이 머무는 셋집에는 많은 유생들이 찾았다. 그 중에는 재상인 서거정 대감도 끼어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기절초풍할 일이다. 15년이나 아래인 김시습은 방바닥에 벌렁 누워서 발장난을 하는데, 서거정 대감은 꼿꼿이 앉은 자세로 응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서거정은 김시습을 여전히 찾아오고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하루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였던 한명회가 쓴 현판을 붓을 꺾내 서슴없이 고치기도 했다.

김시습은 수락산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는 제자 선행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나 늘 먹을 것이 모자랐다. 그는 자신을 중국의 도연명과 비교하며 콩과 조, 칡죽을 끓여서 먹었다. 김시습은 걸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다 얻어먹는 것도 괴로워 하루는 서거정을 찾아갔다. 그가 내놓은 진수성찬 앞에서 정작 김시습은 찬물에 말아 죽을 만들어 먹었다. "이것이 소승의 한끼 끼니옵니다."

답답한 세상에 김시습의 굳은 지조가 새삼 그립다. 김시습은 몇 차례 환속을 했다. 그는 이상과 현실에서 수없이 갈등했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는 불암산자락에서 제자와 먹을 것이 없어 밥을 굶으며 칡뿌리에 조 한 주먹을 넣어서 끓여먹기도 했고, 불암산자락의 칡포기를 셀 수 있을 만큼, 그의 끓어오르는 울분과 열정을 갈근(칡녹말)으로 삭혀냈을 것이다.

■박선식 연구가.<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신경성 스트레스와 울화병 치료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칡녹말 1컵, 단호박 50g, 견과류(잣, 호두, 땅콩) 50g, 식용유, 초간장(혹은 조청시럽)

요리법 ① 단호박은 살짝 쪄서 으깬다. ② 칡녹말(갈분)에 견과류를 적당한 크기로 잘게 부수어 넣는다. ③ ②에 ①을 섞어서 동그랗게 완자를 빚어 녹말에 굴린다.(물기가 많으면 녹말을 섞는다.) ④ 130도의 끓는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낸다. ⑤ 간식으론 조청시럽에 담가 내놓고, 반찬으로 낼 때는 초간장을 곁들인다.

효능 ① 위에 열을 내리게 하고 기침을 치료한다. ② 고혈압으로 어깨가 걸리는 사람은 1주일만 칡을 먹으면 크게 호전된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⑭

圓覺經云 一切衆生 種種幻化
원각경운 일체중생 종종환화
皆生如來圓覺妙心 猶如空花
개생여래원각묘심 유여공화
從空而有 衰相國云 血氣之屬 必有知
종공이유 배상국운 혈기지속 필유지
凡有知者 必同體 所謂眞淨明妙
범유지자 필동체 소위진정명묘
虛徹靈通 卓然而獨尊者也 背之卽凡
허철영통 탁연이독존자야 배지즉범
順之卽聖
순지즉성

〈원각경〉에는 '모든 중생들의 갖가지 허망한 모습들이 다 여래의 원만히 깨달은 심오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마치 눈병 때문에 나타나는 허공 꽃이 허공에서 생겨난 것과 같다' 하였으며, 배상국은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아는 것이 있다. 아는 것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바탕이 같은 것이니, 이른바 진실하고 깨끗하고 밝고 심오하며 텅 비었으며 신령하고 통달하여 홀로 높은 존재로다. 이것을 등지면 범부요 그것을 따르면 성인이다' 하였다.

雲盖智禪師 常謂門人曰但莫瞞心
운개지선사 상위문인왈단막만심
心自靈聖 此等是諸經論
심자영성 차등시제경론
及天下善知識 所留言句中徹旨也
급천하선지식 소유언구중미지야
但時人 自欺自瞞 日用而不自信自修耳
단시인 자기자만 일용이불자신자수이
脫或有信之者 不加決擇 隨情向背
탈혹유신지자 불가결택 수정향배
未免斷常 而堅執己見 豈可與之語道也
미면단상 이견집이견 기가여지어도야

운개 지선사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마음은 스스로 신령하고 성스럽다' 하였다. 이런 말들은 여러 경론과 선지식들이 남긴 말 가운데 핵심이 되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나날이 마음을 쓰면서도 믿지도 않고 닦지도 않는다. 혹 믿는 이가 있어도 가려서 결정하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여 '없다, 있다' 하는 생각에 빠져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니, 어떻게 그들과 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問曰修多羅中 演說百千三昧
문왈수다라중 연설백천삼매
無量妙門 布網張羅 該天括地
무량묘문 포망장라 해천괄지
諸菩薩 依敎奉行 至於斷證階位則逸
제보살 의교봉행 자어단증계위즉수
有三賢十地 等妙二覺
유삼현십지 등묘이각
今但依惺惺寂寂二門 對治昏沈緣慮
금단의성성적적이문 대치혼침연려
終期究竟位者 如認一微塵 以爲窮盡
종기구경위자 여인일미구 이위궁진
瀣渤 不其惑乎
영발 불기혹호

물었다. "경전 가운데 여러 가지 삼매와 한량없는 묘한 법을 연설한 것이 그물처럼 덮여 하늘과 땅을 다 둘러쌌으니, 모든 보살이 그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여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는 삼현 · 십지(둘 다 보살 수행의 지위를 뜻함)와 등각 · 묘각(등각은 제51위, 묘각은 최고 지위인 佛果의 자리임)이 있는데, 단지 성성(惺惺)과 적적(寂寂)의 두 가지 법에 의해 혼미함과 번뇌의 생각들을 다스려 최종의 지위를 얻겠다는 것은 마치 작은 물거품을 보고 바다를 보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없다' '있다' 자기소견 고집하니 어떻게 그들과 도를 이야기하나

答今時修心人 具佛種性
답금시수심인 구불종성
依頓宗直指之門 發決定信解者
의돈종직지지문 발결정신해자
直了自心常寂 直然惺惺 依此而起修故
직료자심상적 직연성성 의차이기수고
雖具修萬行 唯以無念爲宗 無作爲本也
수구수만행 유이무념위종 무작위본야

대답했다. "현재 마음을 닦는 사람은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어서 바로 깨달음을 가르치는 돈종(頓宗)의 문에 신해(信解)를 가진 이는, 자기 마음이 본래 고요하고 깨어있음을 알고 거기에 의해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만행을 한다 해도 무념(無念)으로 종을 삼고, 무작(無作)으로 근본을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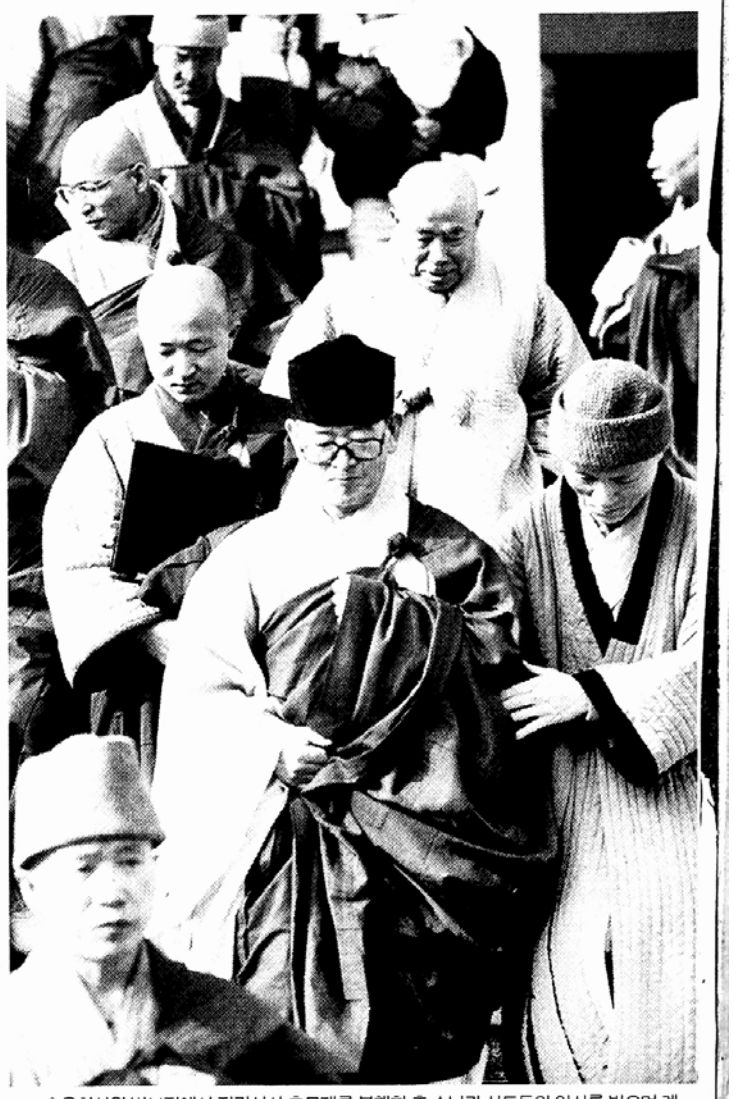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본 큰스님

송담스님

인천 용화선원 원장

"참선은 출-재가 누구나 할수 있다"



◇용화선원 법보전에서 전강선사 추모재를 봉행한 후 스님과 신도들의 인사를 받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송담스님(가운데).

구랍 27일 인천시 남구 주안5동에 소재한 용화선원 법보전. 스승인 전강선사의 26주기 추모재를 맞아 인사말을 하는 용화선원 원장 송담스님. 이날 용화선원에 입추의 여지없이 몰려든 스님 200여명 등 1천여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선지식이지만 스승의 육성법문을 법어로 대신한 채 법단 아래에 서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겸손함이 예사롭지 않다.

스님의 하심(下心)은 스승인 전강선사(1898~1975)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송담스님은 조실 추대를 거절한 채 여전히 열반한 스승을 조실로 모시고 있다.

일반 불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 법보(비구)선원 외에 시민선방과 보살선방까지 운영하고 있는 용화선원에선 25년이 지난 오늘도 전강 선사의 테이프(700여개의 육성녹음 남김) 법문이 매일 흘러나온다.

이는 "가고 옴이 없음이 여래의 진면목, 중생의 눈엔 전강 선사께서 돌아가신 걸로 보이나 생사없는 도리를 증득한 스님은 열반상만 보인 것이기에, 전강 조실스님은 생존시와 똑같이 항시 도량에 계시며 후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송담스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전강-송담 두 선지식의 사제지간의 정은 피와 살을 나눈 부모보다도 더 깊은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23세 때 전남 곡성 태안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33세의 나이로 통도사 보광선원의 조실로 추대될 정도로 선풍을 드날렸던 전강 선사는 6 · 25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거듭할 때도 제자의 수행을 돕기 위해 실로 눈물겨운 행적을 보였다. 행여 제자인 송담에게 해가 올 것을 걱정하여 집 천장에 숨겨두고 스스로 구멍가게를 열어 제자를 도운 일화는 두고두고 사표가 되고 있다.

그러한 전강선사의 예측대로 송담스님은 오늘날 한국 선종의 선맥을 이끌어 가는 거목이 되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휴스님이 〈전강평전〉(우리출판사)에서 서술한 것처럼 "10년 넝어리로 오도하지 못하면 다시 10년간 눈까지 감아버리려고 했다"는 치열한 구도와 스승의 배려에 힘입어 스님은 홀연히 생사의 대의를 깨쳤으니, 10년 묵언수행을 깨고 진여 대도에 이르는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황매산 뜰에는 봄눈이 내렸는데
차운 기러기는 저 장천을 울며 북을 향하여 날아가는구나
무슨 일로 십년간 헛되이 힘을 낭비하였는고
달 아래 섬진대강이 흐르는구나.

黃梅山庭春雪下
寒雁 天向北飛
何事十年枉費力
月下蟾津大江流

이 절, 저 절에서 앞다투어 나이든 스님들을 조실로 추대하는 이른바 '조실 홍수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 조계종에서 최고의 선사중 한분으로 추앙받고 있는 송담스님은 "자격이 없다"고 겸양하며 여전히, 스승의 상징인 조실 자리를 마다하고 있다. 지금도 송담스님이 전강스님의 육성녹음 테이프를 듣고 난 뒤 상당법문을 하는 것 또한 선가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지고 있다.

용화선원에선 오늘도 25년전 열반한 전강선사의 육성법문 듣는다

이는 전강 선사가 생전에 '조실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조실이란 불조의 혜명을 잇는 명맥인데, 스승의 인가 없는 조실이 날로 많아져서 큰일이다"고 개탄한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위음왕불(威音王佛) 이래 스승없이 깨우침은 외도(外道)이며, 이들은 비단 초심학자들을 눈 멀게 하고 불법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해친다"는 게 송담스님의 선지식론이다.

용화선원의 전통(寺乘)은 이처럼 전강선사의 유지를 받들어 조사선풍을 진작하여 활구참선(活句參禪)을 선양하는 것이다.

전강 · 송담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활구참선법은 송담스님의 다음과 같은 게송에 잘 나타나 있다.

뾰족한 산봉우리에 달뜨는 것을 보고(芭崙午更看月出)
두견새 소리 속에 나귀를 먹인다(杜鵑聲裡牧將驢)
원앙새 수놓은 것 보여주어도(鴛鴦繡出從敎看)
수놓은 금침은 주지 못하네(不把金針渡與人)

"'파수오경'의 오경은 낮 '오'(午)자 오경입니다. 달은 밤에 뜨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낮 오경에 달뜨는 것을 보느냐? 이 '파수오경간월출'은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고, 만져볼래야 만져볼 수 없는 한 물건을 깨닫는 도리를 표현한 것이고, 두견새 소리 속에 나귀를 먹인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깨닫고 그 도리에 입각해서 깨달은 뒤에 수행해 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바로 내가 나를 깨닫는 길이다. 그러나 내가 생사해탈 하고 모든 중생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수행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다. 또 바른 길을 알았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도업을 성취할 수 없다는 법문이다.

송담스님은 활구참선을 "선지식으로부터 공안 하나를 받아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화두를 참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당장 처음 시작할 때는 꽉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지어가되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바로 참나를 깨닫는 길이다.

사구(死句)참선 즉, 공안을 부처님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론적으로 따지고 더듬어서 알아 들어가려고 하는 죽은 참선과 대조되는 말이다.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수도원
대한불교수도원거사림회
신 도 일 동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67
TEL : 043) 256-2655 / 257-2655

대한불교 조계종 마태사
주 지 재 화
신 도 일 동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거산리 산851-1
TEL : 031) 532-6481

대한불교 천도사
주 지 법 성
신 도 일 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552
TEL : 031) 595-0108

관음불교백화점
대 표 박정림
탱화 불상 법상 등 불구류 판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82-4
TEL : 063) 282-4070
FAX : 063) 231-4070

대한불교 조계종 광덕사
주 지 윤성광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3
TEL : 031) 962-8363
FAX : 031) 963-8363

한국불교 태고종 대덕사
주 지 월 암
신도회장 윤춘화
반야회회장 서희숙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산 69-7
TEL : 02) 3159-888
FAX : 02) 3159-9774

대한불교 조계종
기도도량 통일사
주 지 최선규
신 도 일 동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 201
TEL : 032) 886-7529

대한불교 조계종 대자사
주 지 자 운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3-5
TEL : 031) 964-6075 / 963-9251
964-0031 (팩스겸용)

명성종합불교
대 표 권영욱
불상 탱화 등 불구류
조상옷 동자선녀 그 외 신복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126-11 3/2
TEL : 051) 415-0706 FAX : 051) 415-0705
C. P : 011-878-9985

북한산 형제봉
깊고 가까운 절 심곡암
주 지 원 경
신 도 일 동
오시는 길 : 정릉 국민대학과 북악터널사이 북한산국립공원입구에서 도보로 20분 거리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산1번지 1호
TEL : 02) 914-8860 www.simgokam.org

송담 스님은

친견 어렵기로 유명
불립문자 철저 추구



수좌계에 '북 송담, 남 진제'로 일컬어지며, 납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송담스님은 세간에 친견하기 가장 어려운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년전까지 인천 용화선원의 매월 첫째주 일요 정기법회에서 법문하던 송담스님은 최근 74세의 고령에다, 필생의 불사인 전법제자 양성을 위해 출 재가를 막론하고 일체의 외부 법문과 친견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평소 토굴정신과 야인정신을 강조해 온 스님은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 시봉하는 스님들조차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용화선원 조실추대는 물론 수년전 봉암사 조실 추대를 사양하기 위해 자취를 감출 정도로 명예를 멀리하고 평생 수행과 참선 지도에만 매진해 왔다. 한 권의 법문집도 내지 않고, 법문 녹음테이프 조차 글로 풀지 못하게 하는 철저하게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추구하는 스님에게서 일체의 상(相)에 걸리지 않으려는 치열한 구도심을 읽을 수 있다.

지면에 소개하는 것 조차 망상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 자못 우려지만 스님의 법향을 단편이나마 접하고 싶은 불자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 후학의 도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송담스님은 1929년 12월 生으로, 45년 전강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해 사미계(법호 松潭, 법명 正顯)를, 51년 나주 다보사에서 전강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광주서중을 졸업하고 10년간 묵언정진 한후 깨달음을 얻어 전강스님의 인가를 받았다.



◇구랍 27일 인천 용화선원 법보전에서 봉행된 전강선사 26주기 추모재에서 송담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선원, 92년 시민선원을 잇따라 개설하면서부터, 선원장 송담스님은 "참선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언제나, 누구든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송광사신도회장을 역임한 조달공 성균관대 명예교수, 세계적인 음악 거장 故 윤이상씨 등 수 많은 재가불자들이 송담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부산과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 와 매월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거사들을 비롯 많은 우바새·우바이가 스님의 법문에 따라 생활 속에서 정진하고 있다.

20여년전 송담스님으로부터 화두 드는 법을 배운 조달공 거사는 "스님은 신도들의 번거로운 질문에도 언제나 자상하게 대답해 주셨지만, 수좌들의 정진을 독려할 때에는 무척 엄하기도 하셨다"면서, "스님 법문의 특징은 세상의 어려운 현실을 활구참선법으로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참선법을 가르치는 데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송담스님은 최상승법인 활구참선을 수좌들은 물론 재가불자들에게도 가르쳐 참선의 대중화 및 포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수행과 함께 포교에도 높은 원력을 가진 사실은 고려대장경 전산화 불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99년 2월 송담 스님의 첫 법문으로 시작된 용화선원 팔만대장경 전산화 후원은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려대장경연구소에 기사회생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날 25년동안 한번도 법상에서 용화사와 관련한 불사 모연을 하지 않으셨다는 스님은 불사를 위한 법석의 문을 활짝 열어 전자 대장경 불사를 왜 해야 하는지를 날낱이 일러 주고, 부처님 당시의 가난한 수달장자 비유를 통한 보시의 공덕을 법문하실 때 대중은 모두 그 엄중함과 간절함에 감동의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스님은 들어온 밎은 공양물을 대장경 불사를 위해 돌렸고, 손수 당신 손으로 동참문을 받아 주시기도 하면서 먼저 귀감이 되었다.

치열한 구도와 스승의 배려로 생사의 대의 깨쳤으니…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스님은 "그와 같은 큰스님의 뜻이 있었기에 한해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스님과 신도들의 연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의 종지를 이 땅위에 꽃피워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말법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간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보이지 않게 중생구제의 방편을 제시하는 한편 필생의 과업으로 전법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지막 원력을 쏟고 있다.

"도인의 책무는 부처님의 혜명을 이을 전법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 온 송담스님은 말법시대에 수행자들의 구도열이 미약해진 것을 가장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미 당신 열반 후 스승인 전강 선사처럼 화장 후 유골을 서해바다에 뿌릴 것을 유언한 송담스님은 오늘도 몸소 용맹정진을 보이며, 출·재가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서원하고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이 뭣고', 한 마디로써 모든 고통을 다 치료해 나갑시다. 미운 사람을 만나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나, 좋은 경계를 만나나, 괴로운 경계를 만났을 때, 환(幻)인 줄 깨닫는 법이 바로 '이 뭣고'이니, 이 화두를 놓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길입니다."

글·김재경/사진·고영배 기자
(jgkim@buddhapia.com)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약아져서 힘은 적게 들이고 쉽게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참선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약은 생각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바보가 되어, 자기의 온갖 지식과 상식을 다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

"활구참선을 하려면 그 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불교에 관한 것은 물론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까지도 다 놓아 버려야 해요."

송담스님은 활구참선을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호흡을 바르게 하며, 생각을 옳게 지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말과 행동과 마음씀에 덧붙여 '이 뭣고'를 참구해야 하며, 앉아서나 서서나 걸어가면서나 일하면서나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이 뭣고'를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속이 상할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성이 날 때나 외롭고 슬플 때나 원망스러울 때나 무슨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일어날려고 하자마자 탁 숨을 단전까지 깊이 들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뭣고', 숨이 다 나가면 또 들이 마셔서 내쉬면서 '이 뭣고', 이렇게 하다보면 치밀어 올라오던 가슴이 쑥 가라 앉으면서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되고 참 나를 찾는 공부로 나아가니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입니다."

송담스님은 처음에는 별로 재미도 없고 맛도 없지만 법문을 자주듣고 자꾸 법문대로 '이 뭣고'를 열심히 찾으면 차츰차츰 저절로 동요하지 않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언제나 납자들을 자상하게 독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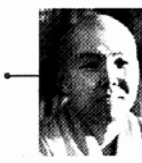
"번뇌망상이 일어나도 짜증 내지말고 그냥 그대로 놔둔 채 '이 뭣고'만 추켜들면 번뇌망상은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이라 저절로 없어지고 화두가 순일하게 됩니다. 어떠한 찰나에 등의 밑구멍 빠지듯 툭 터져서 의단을 타파하게 되면 그때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확철대오를 했으면 공부해 나가는 법을 지도받을 것이고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 아니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 가야 할 것입니다."

24시간 개방 시민선방에는 200여명의 불자 가부좌 틀고있다

용화선원은 하·동절기만 안거를 지내고 있는 다른 선원과는 달리 춘·하·추·동 4계절로 방부를 받고 있어 연중 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잠시도 수행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스승 전강 선사의 간곡한 책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특히 매일 24시간 개방하는 시민선방에서는 200여명의 불자들이 스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원하는 시간에 가부좌를 틀고 화두에 몰입할 정도로 재가 수행자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고 있다.

이곳이 국내 처음으로 시민들의 참선도량이 된 것은 지난 63년 산문을 나와 도심 한가운데 선원을 연 전강선사의 유지를 받든 송담스님이 84년 보살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법해스님

스님들 모두가 출가의 동기도 다르고 수행의 방법도 각기 다 다르다

요즈음은 기초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지만 몇년 전만 해도 자유였고, 마음자리 하나 닦으면 되지 뭘 글공부냐고 생각하는 어른 스님들이 이끄는 방향에 따라 자신의 수행방향도 달라지기 마련이었다. 보통 기초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비슷한 수행의 모양으로 닮기는 하지만 그 교육 기관에서 떠나면 각자의 살림살이는 다르다. 학문을 위해 서울로 가는 스님, 각자의 사찰로 돌아가서 포교와 주지의 소임을 사는 스님, 아니면 선원으로 들어가 참선하는 스님… 각기 다른 모양으로 수행의 자리를 굳혀간다.

법해스님은 법주사 수정암으로 출가를 했다. 그리고 운문사 강원(지금은 승가대학이라 하지만 강원이 더 정감이 가는 말이다)을 졸업한 후 곧장 선원에서 한 안거도 쉼없이 수행정진하고 있다. 지금은 대구 동화사 양지암에서 입승 소임을 맡고 있다. 이제는 스님의 나이 또래 수좌들이 나름대로 정진의 힘을 모아 보겠다고 대중보다는 토굴을 찾고 있는 실정인데도 스님은 대중과 더불어 정진을 해야만 게으름이 생기지 않고, 모두 토굴을 찾아가면 각 사찰마다의 선원을 찾는 초납자들의 버팀목 역할은 누가 하느냐면서 대중과 함께 정진하고

대중과 함께 20여년 정진

초납자들의 버팀목 역할

있다. 높은 수행의 경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는, 스님의 평소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많은 편리함속에 묻혀있는 내 살림살이가 그저 초라해 보이기만 하다

스님은 선원에서 정진하면서도 지병으로 오래 고생하신 은사스님의 병 간호도 지극했다.

때론 짜증을 부릴만 한데도 이것도 수행의 한몫이며, 노후에 나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수행해 오신 은사스님의 시봉을 할수 있는것도 나만이 가지는 큰 복이고 화두를 챙겨 가는 만큼 소중한 일이며, 수행의 한 부분이지 수행을 따로 떼어서 좌복 위에서만 이루워 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좌의 근본 생각이 아니라고 하며 맑은 미소를 보인다.

은사스님 열반 후에도 스님은 입승 소임을 맡아 대중을 외호하면서도 틈틈이 스님 영전 앞에 49일 동안 기도하는 그 효성은 정말 지극했다.

또 스님은 학문을 하고 포교를 하는 도반들을 만나면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산중에서 앉아서 졸기만 하면 되지만 학문을 하거나 포교를 하여 한사람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꿔 놓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스님은 모아 둔 용돈을 학인들에게 책값으로 주기도 하고 포교하는 스님들에게는 포교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넌즈시 건네 주기도 한다.

지난해 일이다. 도반의 은사스님 49재가 법해스님이 안거하고 있는 사찰에서 봉행됐다.

오래간만에 만난 도반들은 스님의 온기가 감도는 좁은 방안에서 손수 끓여 주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스님이 문득 일어나 벽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스님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신문스크랩이었다. 지면으로만 만날 수 있는 정운스님이기에 이 지면 속에 도반의 생각과 모습이 담겨있는 듯 하여 스크랩해 두었다고, 그리고 우리 도반이 쓴 글이라고 선원대중들에게 읽어주고 자랑을 했다고 하면서 방안에 있는 도반들에게 그 내용을 읽어 주었다. 내 도반 중에 이리 글을 쓰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고 일깨워 주는 도반이 있다는 것이 든든한 힘이 된다고 하며 다시 벽장속으로 넣는다. 작은 것 하나도 내 일인 양 기뻐하는 스님의 맑은 심성, 불립문자(不立文字)를 내세우는 수좌들의 근본자세와는 달리 좋은 글이 있으면 그냥 스치지 않고 읽을 줄 아는 스님이다. 수좌라고 대접받고 싶어하거나, 학문하는 스님, 포교하는 스님을 사판(事判)이라고 나무라기는 커녕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다.

스님은 참으로 가식이 없다. 법해스님을 보고 있노라면 비운다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확신한다. 그것은 20년동안 불철주야 오로지 챙겨온 화두의 참의미를 다듬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왔기에 가능 한지도 모르겠다.

겨울산사는 지금 고요한 무언의 침묵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 침묵이 오래 잠들지 않게 죽비의 큰 깨침으로 초납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는 법해스님이 안거하는 도량엔 겨울의 거친 바람도 결코 창호지를 뚫지 못하고 잠들 것이다.

납월 8일, 문득 부처님께서 새벽 별을 보고 "모든 것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평범한 사람에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우친 자리에 우뚝 선 것처럼 지금 법해스님도 산중에 묻혀 그 심오한 진리 터득을 위해 죽비를 치는 한, 산중의 침묵은 침묵으로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호부터 3개월동안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정운스님은 74년 석남사에서 성우스님을 은사로 출가, 운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현재 보령 세원사 주지로 청소년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보이고 있고, 〈가습으로 사는 사람들〉 등 다수의 시집과 수필집을 펴냈다.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금모선원 해운정사
조 실 진 제
주 지 명 언
신도회장 서석인
부 회 장 김오홍 홍무진성
신 도 일 동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2
TEL : 051) 746-4812 746-2256

대한불교
덕대산극락사
지장기도 도량
주 지 김법륜
신도회 일동
TEL : 055) 352-7224

불교도서 도매
법 우 당
대 표 이제우
직 원 일 동
각종 불서 판매
■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24-2번지
TEL : 02) 994-4437
FAX : 02) 994-4438

(주)기 반
대 표 유돈성
임직원 일 동
참선명상 방석 제작판매 전문업체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6동 429-13
TEL : 031) 441-6181

만복당
대 표 김종호
임직원 일 동
각종 향 제작판매 전문업체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9-8번지
TEL : 02) 577-4155 FAX : 02) 577-0746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
윤씨내승복사
대 표 청 안 (윤일대)
법복 소품 일체취급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651-15
TEL : 053) 257-5663 FAX : 053) 257-5667
C·P : 018-525-5663

현 덕 사
주 지 현 종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569
TEL : 033) 661-5878
033) 661-5607

대한불교
해업산 약사사
주 지 금 해
신 도 일 동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480
TEL : 031) 767-1048/767-1058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절
대 중 일 동
■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178
TEL : 031) 763-4674
FAX : 031) 763-2150

무봉산 보광사
주 지 성 현
신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2리 629-1
TEL : 031) 339-3366
FAX : 031) 339-0758

첫 눈 내리는 날 '冬天'으로 떠났다

미당 서정주의 생애

국화 옆에서 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 시단의 거목 미당 서정주 시인이 작년 12월 24일 타계했다. 폐렴 악화로 이날 새벽부터 혼수상태에 빠진 미당은 고령으로 인한 노환까지 겹쳐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28일 고향 선영에 묻혔다. 향년 85세.

미당은 1915년 5월 18일(음력)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질마재 마을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서당과 초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 중앙고보에 들어갔으나 광주학생운동 소식을 듣고 시위를 주도하다 퇴학당했다. 이후 빈민촌에 들어가 넝마주이 노릇을 하는 등 떠돌다가 석천 박한영 스님을 만나면서 지금의 안암동 개운사 뒤편 대원암에

한국인 의식 밑바탕
시어로 녹인 국민시인

박한영 스님과 만남
'불교적 세계관' 형성

서 〈능엄경〉 등 불교경전을 배웠다. 스님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중앙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에 입학시켰고, 불교적 세계관에 바탕한 윤회설에의 경도, 절대 영원에로의 회귀 욕망 등으로 말해지는 미당 시의 전반적인 기조는 바로 여기서 싹을 틔우게 된다.

미당은 1935년 '시건설'이란 잡지에 '스물세햇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로 널리 알려진 시 '자화상'을 발표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시적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벽'이 당선되면서부터다. 그 해말 김달진, 김동리, 오장환 등과 함께 동인지 '시인부락'을 펴내면서 본격적인 시작활동을 했다.

평생 1천여 편의 시를 남긴 미당의 시세계를 한마디에 가두기에는, 미당이 보여준 상상세계의 오지랖은 크고도 넓다. 미당의 시는 억눌린 정신의 아픔을 노래하는 관능적인 초기시서부터 신화 정신과 불교적 달관에 이르는 후기시까지 다양한 편력을 보여준다. 신라와 불교의 윤회전생, 그리고 민가에 떠도는 온갖 민화와 설화들을 에두르는 그의 시적 방황, 혹은 정신사적 편력은 한국인의 정서에 떠올라 있는 생사관, 이승과 저승을 한데 어우른다.

30대까지만 해도 매력에 지나지 않았던 불교는 40대를 지나면서 미당의 작품 깊숙히 천착하며 문학적 절정기를 일군다. 〈신라초〉에서 시작된 생명에의 근원적인 탐구 노력은 신라의 불교적 세계 천착으로 이어지며 특히 불교적 윤회에 모든 것을 위치지우려는 의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시집 〈동천〉에 이르면 이러한 불교적 윤회사상이 신라 천착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인 신앙의 체계를 이루게 된다. 마지막 절정기 작품 〈질마재 신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신화적 원형을 살핀다.

미당은 흔히 '시의 정부'로 불린다. 시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시인이 미당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미당에게도 늘 따라 다니는 '덫'이 있다. 일제말 친일잡지인 '국민문학' 편집일을 보면서 친일시나 종군기를 썼던 일은 설사 당시로서는 대세였다 할지라도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남겼다. 80년대 군부정권에 대한 찬양 발언 등도 그를 아끼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97년 11월 남현동 예술인 마을에서 마지막 시혼을 불태우던 무렵의 미당 서정주 선생. <한국일보자료사진>

서정주 시인 약력

△1915년 전북 고창 출생
△1936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입학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김동리, 오장환, 이용희 등과 '시인부락' 동인 결성
△1941년 첫 시집 〈화사집〉 출간
△1954년 예술원 회원
△1960년 동국대 교수
△1971년 한대시인협회 이사장
△1972년 불교문학가협회 회장
△1977년 한국문인협회 회장
△1991년 〈미당 서정주 시전집〉(전 2권) 출간
△1997년 시집 〈80 소년 떠돌이의 시〉 출간
△2000년 12월 24일 폐렴과 노환으로 별세

윤회적 상상력 현대시사 '최고봉'

서정주의 詩세계

서정주의 시적 성취에 있어 가장 뛰어난 대목은 불교적 세계인식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신라초〉(1960)와 〈동천〉(1968)무렵의 작품들이다. 1936년 시단 데뷔 무렵의 '생명현실을 격정의 육성으로 노래하던 시세계'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로운 세계를 구성한다는 중기 시 세계를 거쳐 도달한 이 시 세계는 아마도 가장 압축되고 율림 높은 서정주만의 세계임 것이다. 그래서 서정주를 가장 서정주답게 만든 시 세계라면, 이 불교적 세계인식을 기반으로 한 1960년대 무렵의 것들을 손꼽아야 할 터이다.

그러면 이 시기 서정주 시에 나타나고 있는 불교적 세계인식은 어떤 것인가. 이 시기 서정주에게 있어 세계는 일체 생명있는 것이나 사물들이 모두 통 · 공시적 차원에 있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상의 것이었다. 그 유기적 관계란 삼라만상 모든 것이 서로 인연과 윤회전생을 통하여 얽혀 있는 관계다. 또한 그 얽혀 있는 양상도 상하 수직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같은 피차의 수평관계를 띤 것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기와 햇볕 그리고 동식물에 인간이 하나로 어울린다는 세계이해이며 조금 과장하자면 일제 모든 사물이 우주적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는 상상인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시인 서정주는 여기서 삶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란 단순히 지금 이곳의 현세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생과 내생이란 시공을 함께 사는 사멸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인식한다. 결국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인식은 죽음 뒤의 사후세계마저 형식을 달리한 삶의 일환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홍신선
동국대 교수
국어국문학과

그러면 서정주는 이와 같은 세계인식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일찍이, 서정주는 자신의 이미지 생산원리를 초현실주의와 흡사한 것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다. 곧, 초현실주의의 절연(絶緣)의 원리와 비슷하게 불교의 연기나 윤회전생의 사고를 바탕에 깔고 이미지와 이미지의 돌연한 연결을 한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돌연한 이미지 연결을 은유의 풍토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서정주 나름의 독특한 불교적 상상력과 세계인식은 그의 시적 도정에 있어서도 특이한 미학을 성취한 것이지만 우리 현대시사에 있어서도 전무후무한 일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서정주의 시학이 다시 '질마재의 신화'로 대표되는 후기 신화적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5번째 시집 〈동천〉 이후 활발하게 쏟아져 나온 열 권의 시집들은 바로 이 같은 상상력과 세계인식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아무튼, 구한말의 큰스님 박한영을 만나 불교에 뜻을 두게 된 이래 서정주는 그의 생애 내내 불교적 상상력을 통한 독특한 시학을 성취했다. 그러나, 서정주는 이제 빌어 입었던 현세 육신의 의복을 벗고 작품 '내 영원은'에서 말한 그대로 '물빛 라일락의 빛과 향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시에게 그가 쥐어 주고 간 찬연한 꽃다발을 받을 아이는 지금 또 어디쯤 오고 있는 것일까. 선생님,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2001 辛巳年 **불교와 뱀**

"낮은 곳에서 모든것 본다"

법화경 "뱀은 유혹 - 애욕"
다산 · 풍요 · 윤회 등 상징

신사년(辛巳年). 다시 말해 '뱀'의 해다. 열두 가지 띠동물이 있지만 뱀만큼 극단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는 동물도 없다.

우리 풍습에서 뱀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속담에도 "밤에 피리나 휘파람을 불면 뱀이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뱀을 혐오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실뱀 한 마리가 온 바다를 흐리게 한다" "구멍에 든 뱀 길이를 모른다"는 말 역시 부정적 인상을 풍긴다.

불경에서도 뱀은 애욕이나 유혹을 상징한다. 〈법화경〉 등을 보면 "뱀은 유혹이요 애욕이다. 그는 제 몸을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꽃나무 뿌리 밑에 숨어서 사람을 미혹시킨다" "뱀은 악업이 깊은 동물이라 그의 일생이 대단히 괴롭다"는 구절이 나온다. 경전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비바사론〉에는 8대 지옥에 독사지옥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으로 뱀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은 특히 제주도 무속신화에 많이 나타나는데, 뱀신인 부군 신령이 깃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모셨더니 금방 부자가 되었다든지, 부군 신령이 달아나자 그 웅크렸던 곳의 흙을 가져다 모셨는데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다.

우리 사찰에는 십이지신상을 그린 벽화가 많이 전한다.



벽화에서 뱀은 무지한 중생을 교육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는 관자재보살을 뜻한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관찰할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근기를 모두 살펴 그들의 근기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다. 눈이 있어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실상을 듣지 못하는 중생들을 교육시킨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 자기 꼬리를 입에 물고 있는 뱀 그림은 윤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권형진 기자

'법화경 언해' 역주본 출간

"한글발달사 연구자료"

한글 초기 문헌인 〈묘법연화경언해〉(이하 '법화경언해') 7권 7책 중 첫 책의 역주본이 최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나왔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있는 원본을 토대로 동국대 김영배 교수가 현대 한글로 번역하고 설명을 붙였다.

〈법화경언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조선 세조 9년(1463) 불교경전을 번역하던 간경도감에서 〈법화경〉을 7권 7책으로 완역한 것으로 초기 한글 및 한국어 발달사 연구에 대단히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법화경언해〉는 중국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한 〈묘법연화경〉을 송나라 때



계환 스님이 요점을 해설하고 명나라 일여 스님이 주석을 단 집주본(集註本)을 세조가 토씨를 달고 간경도감에서 번역을 붙여 언문한글으로 완역한 다음 목판으로 찍어낸 것이다.

언해본 간행 연대는 〈세조실록〉 1463년 9월 9일 기록에 "간경도감에서 새로 간행한 〈법화경〉을 바쳤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때였으리라 추정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가격혜택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 강) (핑 크) (노 랑) (연 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만 월 등



(빨 강) (노 랑) (핑 크) (노 랑)
(오 색) (차걸이등) (오 색) (만월장등)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활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슬기샘 慧泉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 불사



석혜천「釋慧泉」
「진리로 만나는 한마음경」저자
· 강서법어소 부처는 있다
· 목탁이야기 에세이 정종출
· 논설 동문회 회원
· 전통 문화각 연구 소장
· 다담불교 명다선원 운영
· 법륜선화 신행상담실장
· 선화명상기 족관화가
1.학력총전 2.변상문화전
3.주최보승전 4.선 문화전
5.노정심평전 6.학변상도전
7.동경도쿄아 초대전
8.동방대전초대작전
· 슬기샘 박물관 건립추진

봉운불사기획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화동 20번지
전 화 032)884-9332
FAX 032)884-9333
은행선 국민은행 예금주 전승희 175-25-0001-318

위 변상도는 저작권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한 복사 도용 판매를 금합니다.

地藏堂 혜천스님의 원력이 담긴 세계최초의 선물상(禪物相) 화두 수행에 결정체인 복덕행 방편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학 변상도 시리즈 친필 선서화 특별 보급안내!
※ 각 사암에서는 불사의 방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주문제작 연화복덕학의 가족행운학을 주문으로 가족수에 따라 학의수를 맞추어 제작하여 드립니다

· 십일마도회 · 초대달마도 · 수심달마도 · 무심달마도 · 갈달달마도 · 원형달마도

일월성신칠성만호도 · 초인이든 옛부터 영귀나 사귀를 물리치는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시절에는 신선 또는 신선의 시자 혹 도참의 수호를 맡는다

· 천복용신도 무한한 능력에 최적물을 불법을 수호하는 길무중의 하나이며 길상을 맞한다

무악천마도 주진력에 상징이며 복된삶을 주고 악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전함. 악사여래불에 딸린 12신장중의 하나이다

○위 수익금은 슬기샘 박물관 건립 기금에 쓰여집니다.

○ 위 학 변상도 및 수신도는 혜천스님이 참선기도 수행후 직접 그린 작품으로서 다소 규격이 변형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鶴)이란 생부터 자재가 참초하고 고귀하여 신성한 새로 여겨으며 천년안에 푸른색으로 변하여 장학(青鶴)이 되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 색으로 변하여 현학(玄鶴)이 되는 장생불사의 새로 알려져 있다 불가에서는 성인이나 보살의 화신으로서 악을 구축하고 선으로 인도하는 이적을 베푸는 존재로 표상되었으며 주로 법당 안천장이나 벽면 높은 곳에서 하늘을 날며 부처님 신변에 감겨가 나타나지 않게 늘 지키고 있다

鶴變相圖 학변상도 (지역별 각 사암 특별 보급처 문의 요망)

※ 학(鶴)이라는 특수한 대상에서 기호와 문자로 변성되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는 선화(禪畵)로서 일명 학(鶴)변상도(變相圖)라고 이름 하는 것이다 학(鶴)이 주는 주관적인 삶에 소망을 이루어주며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업장(業障)을 멸(滅)해 줄 수 있다는 상징의 본상인 것이다 따라서 선 서법적(禪 書法的)에서 보면 진작상형문자(甲骨象形文字)의 언어라고도 한다

'불교학 성과물' 더 쉽게 만났으면 …

불교사전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용어의 산스크리트 원어 그리고 음역 · 의역된 한자어의 뜻, 용법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불교사전은 이 같은 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불교사전보다는 국어사전의 풀이가 더 쉽고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불교사전은 왜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불교사전이 불교학의 최종 성과물이 돼야 한다'는 전제아래 불교사전의 중요성과 현황 그리고 현 단계 사전 편찬의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불교사전' 왜 중요한가

△근대 이전의 불교사전= 대장경에도 사전이 있었다. 요즘과는 다르지만 옛 학자들이 대장경을 보는 지침서로 활용한 대표적 책이 〈현응음의〉, 〈일체경음의〉, 〈법원주림〉이다. 〈현응음의〉는 현존하는 음의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화엄경〉에서부터 〈순정리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458종 2천 2백권을 골라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고 난해한 글자를 해석해 놓았다. 이 책이 바로 불교사전의 효시인 셈이다. 이 책을 토대로 당나라 때 혜림 스님이 5천7백여 권의 경전에서 3만6천여 개의 어려운 글자와 용어를 골라 해석해 놓은 것이 〈일체경음의〉다. 모두 100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대체로 각 권마다 12종 57권의 경전에 수록된 360개의 용어들을 주석하고 있다. 〈법원주림〉은 1백권으로 여러 경론에 실려 있는 모든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대성하고 있다. 또한 법수도 있다. 사제, 육도, 십이인연 등 숫자로 분류하여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법집명수경〉, 〈대명삼장법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근대불교사전 편찬사= 근대불교사전의 효시는 1961년 운허 스님이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사전〉이다. 이 사전 이후 약 20여 년이 흐른 1982년에 〈한국불교대사전〉(전7권, 명문당), 1988년 〈불교학대사전〉(홍법원), 1989년 〈불전해설사전〉(민족사)이 출간됐다. 불교사전 출판의 중흥기는 90년대다. 〈한국불교사학대사전〉(보련각)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인명사전〉(불교시대사), 〈빠알리어사전〉(한국불교대학), 〈한국사찰사전〉(전2권, 이화문화사), 〈선학사전〉(불지사), 〈밀교사전〉(홍법원), 〈불교대사전〉(홍법원), 〈불교용어사전〉(경인문화사) 등 10여 권이 쏟아져 나왔다.

△불교사전의 현황=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전은 약 20여종이다. 이 가운데 완성도의 측면이나 사전적 기능으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없다. 그 중에서 불자들에게 오랜동안 사랑 받고 있는 사전은 운허 스님이 편찬한 〈불교사전〉(동국역경원)이다.

인명·사찰·선·설화 등 20여종 발간
'현응음의' 효시… '불교사전' 7만여권 판매
대부분 日사전 번역…전문편찬위 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은 40여 년 전에 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간했다는 점이다. 근대 불교사전의 효시이자 모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사전은, 지금까지 약 7만여권(35쇄)이 팔렸다. 맞춤법과 지명 등 고쳐야할 점도 많지만 아직까지 이에 버금가는 사전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동국역경원에서 올해 불교사전의 미비한 점을 대폭적으로 보완 증보판을 내놓는 한편 전산산화 작업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 사전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사전 편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가 홍법원(원장 김정길)이다. 이 출판사는 20여 년 동안 사전출판에만 전념해오고 있다. 〈불교학사전〉과 〈불교대사전〉(상 · 하, 〈밀교사전〉이 그 결실. 홍법원이 불교사전 출판에 뛰어든 것은 지난 83년, 무진장 스님이 일본의 '불교학사전' 번역출판을 권하면서부터다. 4년여간의 번역작업 끝에 〈불교학사전〉을, 다시 10년 만에 2권으로 증보된 〈불교대사전〉(상 · 하)을 출간했다. 그러나 김정길 원장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용성 있게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사전 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올 3월경 불교계 최초로 콘사이스 불교사전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법원은 〈불교인명사전〉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중국의 대표적 고승과 재가자를 수록한 이 사전은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다.

불교사전은 종합사전 이외에도 인명 · 사찰 · 설화 · 선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다. 〈한국불교인명사전〉(불교시대사)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명사전으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사람들의 생애와 사상을 집성하고 있다. 〈한국불교사찰사전〉(불교시대사)은 1천5백여 사찰의 위치와 연혁 그리고 유적 · 유물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또한 불교의 기초교리는 물론 경전 · 인물 · 용어 · 미술 · 민속 등 불교의 여러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백과사전 〈불교상식백과〉(불교시대사)이 나와 있다.

불교설화를 집성한 〈불교설화대사전〉(전2권, 이화문화사)를 비롯 〈선학사전〉(불지사), 〈밀교사전〉(홍법원), 〈빠알리어 사전〉(한국불교대학), 〈선시감상사전〉(민족사) 등도 있다.

또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국내외 15만여 항목의 불교술어를 결집하고 있는 '불교종합 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을 빼놓을 수 없다. 모두 15권으로 완간 될 이 사전은 현재 한국불교관련 항목과 인도불교에서 유럽불교학에 이르기까지 불교술어를 서술한 'ㄱ' 항목 1 · 2권이 나왔다. 이 달 중에 'ㄴ' 'ㄷ' 항목인 3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는 최근 〈고려대장경이체자전〉을 펴냈다.

△불교사전의 문제점 및 과제 = 불교사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용성과 창의성 부족일 것이다. 사전이 불교학문의 지침서로 용어나 인물 등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불교의 이해 부족과 맞춤법의 오류 그리고 일본사전 답습 등 어렵게 읽히는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불교사전의 대체적 편찬 경향이 단순한 글자 해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일본사전이나 기존 사전을 옮기는 답습의 차원을 뛰어넘어 창의성이 뒤따라야 한다.

일부에서는 진정한 불교사전은 없다고 평가한다. 사전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편찬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 · 국어 · 한문 · 역사 · 문화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전문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랜 산고 끝에 출간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품이 들지 않는 사전은 좋은 사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불교사전이 한갓 고급의 서재를 장식하는 시대는 지났다. 서가 속에 저만치 떨어져 꽂혀 있는 '님'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조언하는 '신행의 도반' 그리고 대장경을 보는 '돋보기'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은 사전 이용을 생활화해야 하고, 양심있는 출판인과 편집자 그리고 종단이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전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주요불교사전

사 전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가 격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61	2만5천원
한국불교대사전(전7권)	명문당	1982	각권 3만5천원
불교학대사전	홍법원	1988	8만원
불전해설사전	민족사	1989	1만7천원
한국불교사학대사전	보련각	1991	16만원
한국불교인명사전	불교시대사	1993	2만원
빠알리어사전	한국불교대학	1994	7만원
한국불교사찰사전(상 · 하)	이화문화사	1994	8만원
선학사전	불지사	1995	4만5천원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1996	4만5천원
불명사전	우리	1997	2만원
선시감상사전	민족사	1997	6만3천원
불교설화대사전(상 · 하)	이화문화사	1998	4만원
밀교사전	홍법원	1998	7만원
불교대사전(상 · 하)	홍법원	1998	22만원
불교용어사전	경인문화사	1998	8만5천원
가산불교사림 (진행중)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8	각권 11만5천원
고려대장경이체자전	고려대장경연구소	2000	20만원



●운허스님과 '불교사전'

'사전만들기' 화두삼았다

강사시절 구상
1961년 '초반'

근대 불교사전의 효시인 〈불교사전〉의 탄생은 대강백이었던 운허 스님(1891~1980)의 원력으로 가능했다. 교직생활을 하다 1921년 금강산 유점사로 출가한 스님은 이후 범어사, 개운사 강원에서 경학을 닦았으며, 1932년에는 봉선사에 불교강원 설립하고 동학사, 해인사, 통도사 강원 등에서는 오랜 강사생활도 했다. 스님은 강사생활을 하면서 〈화엄경〉, 〈자비수참〉 등 20여권의 경전을 번역 출판했다. 불교사전의 시작도 이 때부터다. 경전 번역을 하면서 틈틈이 사찰 · 인물 · 용어 등 각 항목별로 카드를 만들어 목록을 정리했다고 한다.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은 "운허 스님은 6.25때부터 사전편찬을 위해 카드를 만들어 항목별로 목록을 작성해왔다. 이 목록은 사과 상자 4박스 분량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늘 다락에 보관해 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들려줬다.

보명심 보살의 경제적 도움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때 스님은 정목 · 법정 · 인환 · 법안 스님 등 7명과 함께 본격적인 사전편찬 작업에 착수, 1961년 선학원 법보원에서 초판을 내놓았다.

스님은 또 동국역경원을 설립, 불교용어 한글화를 위해 최현배 씨 등 불교 · 국어 · 한문 등 그 당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불교용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월 2회 회의를 통해 난해한 불교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김중근 기자

고려대장경 이체자전

한역대장경 연구 '도우미'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한역대장경 연구의 기초 문헌이 될 〈고려대장경이체자전(異體字典)〉을 펴냈다.

이 자전은 대장경 원문 입력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3만여 종의 글자(이체자)를 정리한 것으로, 연세대 이규갑 교수 등 중문학을 전공한 7명의 석 · 박사들이 8년 간 색인하고, 정자(正字)를 찾아 자음 · 부수 · 획순 등으로 재분류해 엮은 것이다.

대장경을 연구하는 불교학자라면 누구나 웬만한 자전(字典)에서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이체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대장경에 나오지만 자전(字典)에는 없는 글자의 해독을 위한 사전"이라는 이규갑 교수의 설명처럼, 〈고려대장경이체자전〉은 '대장경 학(學)'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려대장경이체자전〉은 기존의 이체자전과 달리 글자마다 용례, 출처, 통용 연대 등을 소개해 다양한 해석과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또한 이체자의 뜻은 한글이나 일본어 외에 영어로도 밝혀, 서구 학자들의 편리를 도모했다.

이체자란 말 그대로 '몸이 다른 글자'. 형(形) · 음(音) · 의(義)로 구성된 한자의 이체자란 음(音) · 의(義) 등이 같은 동음 · 동의어이지만 형(形)이 다른 것을 뜻한다. 고려대장경에서 가장 많은 이체자를 가지고 있는 한자는 '뜷을 착(鑿)' 자로, 무려 65종으로 변형돼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연말 연시,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잘 · 익 · 은 · 생 · 각 · 의 · 집

이양희 시집



B6변형 / 값 7,000원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걸멋 내지 않고
늘 진실 편에 서려고 애쓰며
힘들 때마다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렇게 시에게 말을 걸다보면
시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넬까
시가 건네오는 첫마디에
부끄럽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일 없으리라.

- 저자의 후기 -

불교 · 사찰 · 자연을 소재로 한 주옥같은 시, 봉사활동을 하며 지은 시 등 우리의 마음을 맑이고 밝이는 좋은 시들로 가득합니다.

◈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권해봅니다

효림의 자회사 도서출판 여음에서 발간한 시집입니다. 주문은 효림으로 하세요.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주 지 석지명
대 중 일 동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사무실 TEL : 043) 543-3615, 8655
FAX : 043) 543-3620
원주실 TEL : 043)543-3615

한국불교 정토종
고려산 불광사
주 지 강 자현
신 도 일 동
주 운 합 장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53번지
TEL : 032) 932-8083

대한불교조계종
강화 선원사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259호
회 주 보 각
주 지 성 원
신도회장 조원태, 배발심화 합장
사부대중 일동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692-5호
TEL : 032) 933-8234/8834
■ 선원사 한증막,기와황토불 한증막(무료운영)
TEL : 032) 933-8985

관 음 사
주 지 박종하
신 도 일 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호
TEL : 02) 582-8609
FAX : 02) 597-3510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 재웅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31-80호
TEL : 02) 742-0172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주 지 지 광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 02) 577-5800
FAX : 02) 577-0052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주 지 석종후
신 도 회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내
TEL : 02) 353-5016, 4924
FAX : 02) 386-4198

마이산탑사
주 지 이왕선
신 도 일 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번지
TEL : 063) 433-2900/433-0303

대한불교 조계종 **법장사**
강북 제일의 포교와 기도의 절
주 지 퇴 휴(법장)
영산불교대학 일요가족합동법회
■ 서울시 중랑구 묵1동 25-4 신내4 단지
TEL : 02) 971-0303
02) 948-3111

전통문화 도예 연수원
무애원 포교당
원 장 설 봉
신 도 일 동
■ 포교당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3611번지
■ 가마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548-1
TEL : 02) 846-2156
032) 932-5087~8

한국불교 태고종
불 광 사
주 지 법 주
신 도 일 동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5-1
TEL : 02) 359-5367

불광불교 미술원
원 장 박갑용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 418-4호
TEL : 031) 584-3952

(사)대한불교 법화종
봉화산 법만사
주 지, 전법만
서울교구종무원
신도회, 법연회 일동
■ 서울시 중랑구 중화 1동 274-63호
TEL : 02) 433-6591~2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성지 낙가산 **보문사**
보문사 대중일동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
TEL : 032) 933-8271
FAX : 032) 933-8270

법명사 (부루나포교원)
주 지 선 일
부설기관
부루나어린이집 : 577-5123
특수아동조기교육원 : 583-1669
부루나청소년교육회관 : 577-0266
부루나청소년쉼터 : 761-7942
부루나복지회 : 579-3684
■ 인천시 서구 가좌 3동 83-6호
TEL : 032) 576-9741 FAX : 032) 579-0736

대한불교조계종
보 림 사
주지 묵 산
나를 깨닫자 운동본산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산 1번지
TEL : 02) 914-6187

대한불교 조계종
참선도량 **백운암**
주지 본 우
신 도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210번지
TEL : 033) 763-1514
FAX : 033) 763-1528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지 진 관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 02) 359-8410

지장기도 참회도량
삼학산 약천사
주지 허 정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동패리 1070-1호
TEL : 031) 942-3880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
주지 도 완
신 도 일 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TEL : 033) 374-9177
FAX : 033) 374-9178

대한불교조계종
성 보 사
주지 신 천
신 도 일 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2리 산78-35
TEL : 031) 594-2683/1397

송강기획
대표 윤성수
직원일동
불교음반 유통/이벤트기획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TEL : 02) 745-6015
FAX : 02) 745-6017

대한불교 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주 송월주
주지 일 원
부설(관인)영화유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 2동 9번지
TEL : 02) 444-4321/444-7215

인 과 선 원
주지 정 덕
신 도 일 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호
TEL : 02) 993-3706/907-3706

정 각 사
주 지 이 광 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대 중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호
TEL : 02) 742-1231

정 토 사
주지 설 산
배달문화 선양회 설산장학회
만일염불원
대 중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번지
TEL : 02) 379-5502

천왕찰매상
지리산 천왕사
주지 혜 범
신 도 일 동
■ 경남 산천군 시천면 중산리
TEL : 055) 972-1006

대한불교조계종 청법도량
청소년 수련원 **신흥사**
주지 오성일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TEL : 031) 357-2695/357-3916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崔光永
法華三部經講院
■ 대구시 동구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TEL : 053) 952-8711

대한불교조계종
수락산 학림사
주지 덕 오
학림불교회관, 학림유치원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번지
TEL : 02) 936-1700/936-4100

마음 주장자만이 재난 막을 수 있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차원들이 얼마만큼 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 연결이 돼서 무의 법으로 통신이 되는 가도 알아볼 겸해서 오늘은 그냥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1: 스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산은 산이되 둘이 아닌 고로 산이 아니고, 물은 믈이되 둘이 아닌 고로 또한 물이 없어 내가 산이고 산이 물이고 나와 둘이 아닌 고로 앞으로 미래에 닥칠 지구상의 모든 문제도 곧 내 문제로 절실하게 다가와 감로법을 청하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분명히 우주 삼세가 하나로 통하는 자리이고 일체제불과 상천, 중천, 하천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육신에 집착하고 삼독심에 물이 들어 상대와 나를 둘로 보고 나라고 고집하며 살다보니 오늘날 이 지구상에 닥친 문제들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지난번에 독일 다녀오신 이후 열일곱시간의 비행, 그 노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간곡하게 마음의 도리로써 나를 조절하고 나라를 조절하고 세계와 우주를 조절하는 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말씀 가운데에 뜨거운 아픔과 눈물을 감지하지 못하고 듣는 그 순간뿐,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결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제자로서 내가 없는 도리를 알았고 내가 없는 도리를 알고 보니 미약합니다마는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다 나였습니다. 지수화풍 만물만생이 다 나 아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대신하여 둘 아닌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청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의 능력으로 미래에 지구에 닥칠 재난을 정말로 막아낼 수 있다면 그 도리를 다시 한번 설해 주시길 청하옵니다.

마음공부 왜 해야 하나

스님: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길에 예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되 그 중에는 마음에 달렸다고도 했습니다. 마음의 주장자만이 모든 재난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신통을 알아도 도가 아니라고 한 거와 같이 알긴 알아서 말을 했으나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와 더불어 지구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그렇고 줄이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두 불, 물, 종교로 인해서 일들이 많이 벌어진 사연들을 볼 때 지금은 더군다나 깨이고 물질세계로 치닫기 때문에 정신세계는 미약해지는데 누가 그것을 대치해 나가겠습니까?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움죽거린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소인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은, 내 앞에 컵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컵에 물을 담아서 내가 먹고 남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유와 무를 둘 아니게 수행하는 자, 무의 과학자, 무의 실천자들이 이러한 문제로 공부를 한다면, 자기 주장자의 자유자재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세계를 건질 수가 있고 지구의 수명을 끝없이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나를 끌고 가는 나가 없다면 몸은 송장이 될 것이고 또 내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 무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는 나가 있고 또 나가서는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우주 삼세대천세계를 이끌어 가는 근본이 바로 마음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주와 직결이 돼있고 세상 만물과도 가설이 돼있다고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흘려버리겠지만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진리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될 줄 알아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원자는 가만히 힘을 배출해 주는 반면에 입자는 즉 '보살들은' 하는 소립니다. 입자는 천차만별의 이름으로 소임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지 보이지 않는 데의 50%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형성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또 채소를 심는데 종자가 없다면 물질이 나오지 않는데 그 물질이 나와서 다 먹이고도 또 종자를 이루어서 먹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가만히 볼 때에 우주 삼천 대천세계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러는 반면에 항상 내 가정, 내 몸뿐만이 아니라 조상, 자녀들, 사회, 전체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문제는, 바로 모든 것을 다 귀결해서 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쥐고 가기만 해도, 쥐고 가면서 생활을 해나가고 또는 살아나가면서 거기다 맡겨서 즉발로 우주법계에 통신이 되면, 우주법계에서 우리 중(中)세계의 살아나가는 것을 상세히 알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거니' 또 '그냥 해보는 소리겠지'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질문1: 신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그렇게 큰 문제가 닥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또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잘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인간은 죽고 살고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집착할 게 뭐 있는가' 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에 참석한 신도님들 역시도 제가 만난 신도님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예로 들어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권의



그림 · 최주현

예언은 보기만 하고 해결 못해 소인

정신 – 물질 둘 아닌줄 알면 피안 건너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언서가 너무나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조선 명종 시대의 '남사고' 라는 사람이 쓴 '격암유록' 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가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조선 명종 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깝게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조선말기로 넘어와서는 한일합방, 8.15 해방, 또 남북분단, 심지어 군사정권의 출현까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남사고의 대재앙 예언

제가 그걸 읽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스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예언서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닥치니까 대비하라는 뜻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비하라는 뜻에서 받아들이기보다 예언적인 뜻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편집하는 사람의 의식이 이와 같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길은 마음에 있다' 라고 분명히 적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마음을 굴리고 어떻게 작용을 시켜야 그와 같은 일을 막아내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어놓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사고의 격암유록 끝 부분에 '이와 같은 일이 닥치고 한반도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한반도의 동남쪽 백리가 물에 잠기고 스님께서 법형제 법회 때 말씀하셨던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작용으로 인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 내부의 열이 계속 높아지면서 얼음을 급속하게 빨리 녹인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동남쪽, 그러니까 제가 있는 포항도 해당되고 부산지원이나 마산지원 다 해당됩니다. 놀랍게도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 물에 잠긴다' 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에볼라' 라고 할 수 있는 괴질이 한반도에서 속출하여서 열 가구 중에 한 가구도 살아남기가 어렵고 아침에 봤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있고 모든 시체가 땅이란 땅은 다 덮어서 산 사람 보기가 극히 어렵게 되는 시절이 온다고 예언이 돼있습니다.

그 예언서의 두께가 상당한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놀랍게도 열 줄도 안되게 적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고 나와있어요. 마음에 달려있는데 어떤 마음에 달려있나, '해인을 얻어야 된다' 고 했습니다.

'하늘 세계에서, 상천세계에서 아래 중(中)세계를 내려다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해인을 얻는데 무관심하다는 걸 통탄하고 계신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해인을 얻는데 무관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인 삼매에 드는 사람은, 해인을 얻은 사람은 모든 재난을 전부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주어진다고 적어져 있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해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소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서 해인삼매에 들면 그야말로 얼음이 녹아서 대홍수가 벌어지고 괴질이 출현하고 지진이 일어나도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라고 나와있는 것입니다.

> **유와 무 둘 아니게 수행하는 자가 주장자의 자유자재권 얻었을 때 세계를 건지고 지구 구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편집한 저자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국문과 출신인데 그 사람이 해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져 있느냐 하면 '그러면 해인이란 무엇인가. 해인하면 생각나는 게 해인사가 있다. 성철스님이 열반하신 곳이다. 그래서 뭇사람들은 해인사에 해인이 숨겨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아마 그 해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렇게 많은 페이지에 수많은 예언들을 적어놓고 겁은 잔뜩 줘놓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도대체가 앞 뒤 꽉 막힌 그냥 해인이란 단어하나,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 찾아라. 그것밖에 적어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스님 법문 들으러 오라고요. 정말 그때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또 한 가지를 덧붙었느냐 하면, 이 격암유록에 '해인' 이라고 하는 말은 노스트라다무스의 '헤르메스의 지팡이와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지구인들은 노스트라다무스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999년이면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고 그 멸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헤르메스의 지팡이' 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헤르메스의 뜻이 뭐냐면 '조화의 지팡이' 랍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정도밖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구의 아픈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성격을 갖는 책을 쓸 수가 있는지 마음 공부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소 울음 소리나는 곳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모 종교에서는 소 울음소리가 한자로 훔자랍니다. 훔! 그래서 훔이라는 주문을 계속 외우면 그 주문으로 인하여 음기와 양기가, 수기와 화기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헤르메스의 지팡이, 해인을 얻는 사람은 한국에서 나온다고 돼있답니다. 한국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저희들께 항상 마음을 발견하고 둘 아닌 도리를 알아서 서로서로 통신하여 들고나면서 작용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스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법계의 심부름이구나. 일체제불 전에서 설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지구에 닥칠 이러한 재난들을 말씀하시고 마음에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라고 일러 놓으셨건만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조차 그게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어진 일이 공부 교재

그러나 스님의 그 간절한 이끄심으로 저희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둘 아닌 도리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 정말 절실한 우리들의 문제로 다가왔고 하루빨리 모두 다 알아야 될 문제이고 ,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 신도들이 이왕 죽을 거라면 그냥 살다가 죽지, 그러더란 말이지? 하하하하….

됐다. 다 도인들이 됐구만… (대중웃음)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죽을려면 농사도 짓지 말고 사회가 뭐 필요 있겠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농사를 짓게 되면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먹일 수 있고, 끊임없이 대대로 먹어야 되거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지극하게 해나가고, 그 해나가는 자체가 바로 교재라고 말을 해줘도 그냥 살다가 죽는다고 말을 하더란 말이지?

질문1: 그 문제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었죠. 만약에 법회를 하는데 법당에 불이 난다면 어차피 한번 죽고 한번 사는데 그냥 앉아 계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한대요. 눈앞에 닥치질 않았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님: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면서 능력이 주어진 사람은 앉아 있겠지만 능력이 주어지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방방거리게 돼있지. 지금 곧 하늘이 무너져

☞ 20면으로 계속

가족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해인을 얻어야 만물 자유롭게 굴려

☞ 19면에서 계속

서 우리를 덮친다 해도 하늘을 받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싱긋이 웃고 가만히 있겠지만, 능력이 없다면 방황이 되지. '곧 덮친다는데' 이러고 일어나게 돼있어요. 그러니깐 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코웃음을 탕 치고 팔짱끼고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지. 그러리만큼 돼라 이거예요.

질문1: 또 한가지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어떻게 내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님: 그거는 누누이 말했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있고 세상만물하고도 가설이 돼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 우주만물이 다 통신이 돼서 알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염려하고 어떤 거를 염려 안하고 어떤 것이 오염이 되고 어떤 것이 그렇다는 거를 알고 관하면 그냥 직속 통신이 된다고, 그렇게 통신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야 통신이 되겠어요?

보는 것 넘어 실천이 道

질문1: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모든 걸 한 자리에서 한다고 믿고 일체를 맡겨놓는 공부, 생활가운데서 그렇게 해나가는 수행 자체를 우주를 조절하고 세계를 조절하는 공부하고 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피안의 저 언덕을 넘어서야 된다 하는 말이 있죠. 물질세계에서 살면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저 언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거기까지 도달해야만 느끼고 알게 되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언젠가 확답이 나온다' 라고 항상 말을 하죠.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지,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지 않고 누가 믿어주고 누가 갖다줍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일체 뿌리의 세계는 무의 세계라고 그랬죠.

질문1: 지금 현재 제주도 크기의 1.6배정도 달하는 남극의 얼음덩어리가 남극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시속 6km로 북상중인 것을 작년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북극에 알프스 산 쪽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은 지구의 땅덩이들은 산산조각이 날거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위법의 세계와 무위법의 세계가 둘이 아닌 고로, 저희들도 무슨 문제 하나를 처리하는데 정책을 세워서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과정이 있듯이 상천세계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과정, 즉 무의 세계에서도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말씀하신 게송 '내가 없는 노래'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여래의 한생각이 우리들의 마음하고 연결되어서 찰라찰라 통신되어 돌아간다'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할 때에 지구 안이나 우주의 전체를 보지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천하는 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구가 어떠니 얘기를 하게 되죠. 지구가 엇갈려서 돌아가는 교차로에, 즉 차고 덥고 한 것이 교차될 때에 그 찌꺼기가 나가는 구녘, 조그맣게 놓고 본다면 나가는 구녘이 있고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문제들이, 화산도 일어나게 되고 물 속에서 화산이 일어나면은, 지축이 얕은 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두꺼운 데서는 일어나지 않고 얕은 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물 속에서 일어나면은 물이 펄펄 끓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돼서 지구의 혈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기가, 즉 말하자면 지난번에 말하길 '원상기가 압축이 되면 공기막이 터진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똑똑히 말을 안 했어도 전자에서부터 그런 말을 해내려온 것 같은데…, 벌써 몇 해전서부터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해왔고, 공산주의가 분열이 돼야 된다는 것도 내가 벌써 십 몇 년 전에 말했죠. 우리는 실천을 하는 주의지, 얘기하는 주의가 아니거든. 예언하는 자가 아니야. 예언만 하고 실천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을 해야 만이 성립이 되는 거지.

실천을 하고 성립이 돼야 만이 무의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의 과학으로서의 실천자라고 할 수 있겠지. 즉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를 자유스럽게 굴릴 수 있는 주장자를 말하는 거야. 그 주장자가 있음으로써 해인을 받는다 이런 거야. 인정을 받는다 이 소리이지. 뭐 어디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야.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인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건 우주간 법계에서 인가를 하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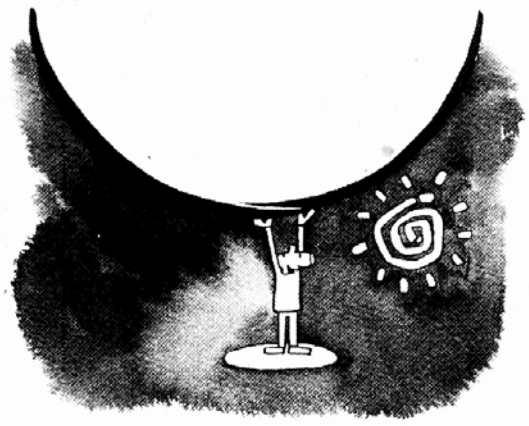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 가정 사회 우주 이끄는 주인

내 몸 하나 버리면 두려움·탐욕 없어

행주좌와 24시간 참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인가를 받게 되느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이승천자가 저승천자도 된다. 이승천자도 되고 저승천자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태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주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은하계의 별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인정을 받게 돼있어. 막대기 하나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소리야. 그 권리권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일으킬 수가 있고 지구를 받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대권을 가지고 있어. 내 자유로서 명을 내린다는 그런 대권 말이야. 신하하고 의논을 안 했어도 인군의 대권으로서 해나가는 게 있지, 그런 거와 같은 거야.

우주의 대권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그 모두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날날이 무의 법계로 통신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모두들 안으로 맡기고 모르더라도 그 자리를 쥐고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 아닌 딴 거를 보고 들었을 때에 그것이 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회의를 해서 책정을 하고 내려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고 봐야 되지. 우리 정수는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해야 돼. 대뇌는 오신통을 들이고 내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송신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연락줄이 끊기지 않고 있는 거야. 패기가 있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잘 봐서 맡겨야지, 무슨 원수나 사적인 문제라든가 또 공적인 문제라도 잘못 보고를 하면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잘 접해보고 들어보고 완강하게, 어떻다는 게 책정됐을 때에 관하라 이거야. 그것이 우주법계까지 통신이 되니까.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묵묵히 실천을 해나가는 수행자죠. 그래서 이 공부는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거든지 다 굴릴 수 있는, 말하자면 왕 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안정이 돼서 처리를 하는 거하고 안정이 되지 못하고 주인없이 그냥 처리를 하는 거하고는 전적으로 다르죠. 운전수는 자동차 속에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거기서 움죽거리게 해라. 움죽거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라, 이러는 건데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겁니다. 먹고살고 병이 낫는 데만 치우치니깐 그게 안되죠. 이것을 나의 절대적인 보배다, 나의 절대적인 보디가드다,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다, 하고 믿고, 되고 안 되고, 죽고 살고 다 너한테 달렸다, 이러고 그냥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믿지는 않고 되는 것만을 위해서 놓으니 제대로 될 뻔한 일입니까? 그게.

볼난 집에 있는 아이를 건질 때 '얘, 여기 사탕 사왔다, 빨리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잘 되게끔 해서 그 끈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게 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좀 되더니 안되네요' 이러 거든? (대중웃음) 그럼 만날 해주다가 보면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본인은 한번도 대처를 못하는 거죠. 자립하게끔 길러줘야 되는데 자립을 못하면은 세세생생 남의 것만 얻어먹고 살다가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기 때문에 자립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손을 댔다가도 떼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선…. 죽는 것도 이왕 죽을 거라면 거기 좀 놓고 죽으면 어때? 이왕 죽을 거라면 말입니다. 내 몸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다 버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리 좋아도 탐나는 게 없어요. 그 도리를 알면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면 욕심도 생기겠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서 알아보세요.

질문2: 마음공부를 할 때 하루 스물네시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스님: 그 말 잘했어요. 이십 사시간 살아있죠?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십 사시간뿐만 아니라 자는 것도 참선, 일하는 것도 참선, 서 있는 것도 참선, 앉아 있는 것도 참선, 일거수 일투족이죠, 이십 사시간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참선이고 그게 공부예요.

질문2: 공부 중에서 관을 할 때 비몽사몽 어떤 계산을 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생시에 생활하면서 계산 같은 거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관하는 것이 옳은지요.

스님: 관하는 게 이 구녘이 따로 있고 저 구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구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뿌리라는 건 한 구녘밖에 없거든. 그 구녘하고 모두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 구녘을 진짜로 믿고 놓는다면 입력이 돼서 사회에서 어떤 파워가 일어난다 해도 거기에다 맡기기 때문에 입자들이 나가서 상대방이 돼버리니까 전부 관한 사람의 마음과 동시에 같이 따라 주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데 이런 게 나오든 저런 게 나오든 그걸 관여치 말고 '나를 일깨워 줄려고 그러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그냥 되놓으세요.

공법은 수행공덕의 문

질문2: 이십 사시간 아무생각 없이 관을 하고 그러면 스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스님: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한 가지만 보고 살아요? 안 그렇죠? 듣는 것도 한 가지만 듣는 게 아니죠? 몸 놀리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한 군데만 가고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동생이 '형' 하고 부르면 금방 형이 되죠? 또 부모가 부르면 아들이 되죠? 아내가 부르면 남편이 되고 자식이 부르면 금방 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찰라찰라 화해서 건너뛰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면 그냥 살라는 말입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그러하고 진리 자체가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공했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죠? 그것도 모르면서 뭐. (대중웃음) 그러니까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아프면 병이 낫게 할 수 있다고 관하세요. 사회에 살면서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다 맡겨서 일을 처리해라 이 소리입니다.

질문2: 예를 들어 우리 삶에도 인생에 도장을, 졸업장을 따듯이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없다지만요.

스님: 매길 수 있죠.

질문2: 낮에 생활하면서 관을 하는 게 점수가 높은지 잠자면서 관을 하는 게 점수가 높은지, (대중웃음) 아니면 비몽사몽 왔다갔다 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게 높은 점수인지요.

스님: 자면서 하는 것이 50%라면 깨어서 하는 것도 50% 똑 같아요. 꿈도 생시고 생시도 꿈이니까 그건 똑같은 점수예요. 그냥 공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법을 수행하고 나가신다면 끊임없이 살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 하나가 공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6년 11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大韓佛教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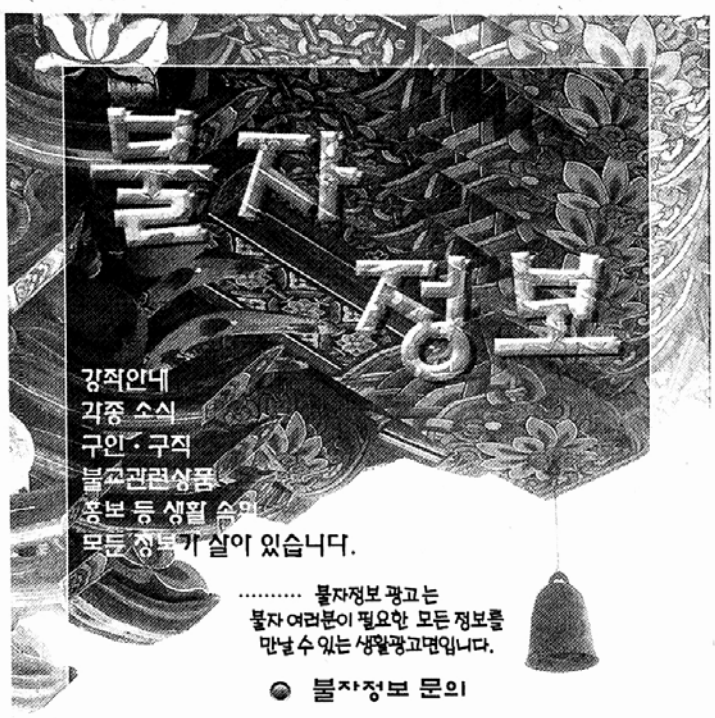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 스 (031)470-3116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리 산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Fax : 064)721-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3블럭 9-2노트
Tel : 052-244-0884 Fax : 052)244-0182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번지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5-342-6630/6639,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744-1321 Fax : 055)746-7825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Fax : 042)526-089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4-275-3163 Fax : 054)274-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번지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 555-8871 Fax : 054) 556-1986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01-1359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ap. Fed. CP1406,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Prv.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str. 102,
D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43 pattanavet Sukhummvit soi 71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칠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 창 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깨침 건강 자유
단 일주일안에 마음문제 완전 해결
삶을 온전히 누리기
www.nowheretruth.com
(읽기만 해도 일체의 미혹이 해소됩니다)
016-206-1001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고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男女철학원생모집
과 목 풍수, 사주, 직명, 궁합, 관상, 부적
과 정 초급반, 고급반, 개원반, 자격증반
강 사 원장직강(사주비전外 10여권 저술)
사주·감정 의뢰하실분(3만원입금후 전화요)
계좌번호 기업은행012-027395-01-017달마사
귄 달마사 포교원 달마스님
(051)328-5551 (051)312-4804
(02)999-5551 · 999-4804

구갑염주, 합장주 구갑은 장수와 행운을 뜻합니다.
· 108염주 150,000원 고급가공, 케이스 포함
· 매듭합장주 30,000(10mm)
서울판매처 길상원 (02)722-4435 (조계사 앞)
지방 - 전화를 주시면 물건을 보내드리고 대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구갑사)
02)444-2822
017)208-2822, 018)293-2823

영가 천도
대한불교 조계종
성거사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근처)
041) 567-6820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소원성취/특수작명 · 개 명 · 신생아 작명 · 상 호
- 운명이 확 바뀌는 개명(改名)비법 -
◆ 사업부진, 삼재예방, 부부불화, 교통사고 예방
◆ 시험합격, 결혼성혼, 금전문제, 매매성사
신년운세, 성명 감정 2만원, 전화로 예약하면 3일안에 집에서 받아 볼 수있습니다.
(053) 982-4976 · 011)813-3697 지장선원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판매 합니다. (직접가공함)
≪ 흑단염주, 108주 : 6천원
≪ 합장주 (매듭) : 천 오백원
≪ 일천주 (케이스 포함) : 6만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번지
덕림산방 : 박 정후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사찰 즉인 개인
경남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859번지
사찰명 : 수정암
055)882-7871
성명 : 박 순성

행 자 모 집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조계종)
www.TVbuddha.co.kr
▫ 우리나라 최대의 7층 대법당, 최첨단 시설
▫ 21C 세계불교를 이끌 의식있는 수행자 양성
▫ 노동보다는 수행과 교육위주 - 모든 지원
▫ 불교발전의 획기적 모델 / 한 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행자 전용교육장 / 남 · 여 행자원(위탁교육가능)
대구 (053) 474-8228 정규교리반, 통신반, 인터넷반 - 학생모집중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직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사리함 (벽조목)
● 부처님 복장 사리 봉안함
● 8cm×21cm 정교한 조각
● 전귀한 명품 예술적 가치 높음
●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053)982-4976
011)813-3679

공양주 모십니다.
- 60세 미만 -
▷신림동 약수사◁
02) 877-751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0~60세)
▷울산◁
052)288-4520
011)860-8793

배우자 구함
◎ 女 51세 (자녀 없음)
◎ 대구, 경북 거주자 원함
◎ 전직 공무원, 미모 겸비
- 불자의 만남
불연 결혼 연구원 -
053)982-6778
011)9353-6006

행자 모집
만 19세이상
38세미만
학력:고졸이상
042)583-5214

조용한 사찰에서 함께 기도하실 보살님을 구합니다.
(40~60대)
▷ 강원도 강릉 ◁
033)661-5878

신심있고 성실한 공양주 보살님 연락주십시오
▷ 대덕사 ◁
02)3159-8886

탈 종 공 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귀하
· 법 명 : 혜 성 · 이 름 : 황 옥 희
· 승 적 번 호 : 8-03 · 주민등록번호 : 620212-2462713
위 승려는 귀종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없어 2000년 12월 15일자로 탈종함을 공고 함
2000년 12월 17일 혜 성 (황옥희)

급구 신속한 소식 기다립니다
▷처사님 1분
▷나이 45~60세
원주치악산 구룡사
033)732-48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옆
• 가액 : 전세 3천 시설비와 물품은 답사 후 절충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118평 • 법당 : 18평
• 요사채 : 25평 • 가액 : 6천 5백
• 청평 800평 1억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 가액 : 2천만원
• 인법당 : 17평, 방 3칸
061)553-196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남현리
• 부지 : 242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체 2채
• 가액 : 상담 후 결정
055)391-5369

포교원 안내
• 위 치 : 방학 전철역 부근
• 평 수 : 20평 4층건물의2층
• 가 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만원
02)955-6609

포교당 안내
• 위치 : 미아 3거리
• 평수 : 46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일체 무료
02)941-319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11평 • 요사 : 25평 • 부지 : 425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충주 • 법당 : 22평 • 요사 : 5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8천 5백
• 위치 : 부산 • 법당 : 23평 • 요사 : 35평 • 부지 : 200평 • 가액 : 4억 5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군위 우보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1년 사시면 반드시 훼터
- 마당 넓고 뒷山 명당지
마을 맨 끝집 휴양지, 기도터

○ 군위, 고로 인각사 부근
○ 대지 151평 밭 724평은 집앞 100M떨어져 있음
○ 암반, 계곡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
○ 황토집 2채 - 불때면 3일간 따뜻
○ 양도가 3,900만원
사찰, 최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 괴산군 소재
• 부 지 : 1,700평
• 법 당 : 25평 (목조)
• 요 사 : 35평 (현대식)
※ 산세좋은 기도 포교도량 임
• 양도가 : 1억 5천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소재
• 대 지 : 25평
• 건 물 : 20평 (단층 주택)
※ 역시깊은 도심 포교도량 임
• 양도가 : 6천 5백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포교원 안내
• 위치 : 3호선 양재역 4번 출구에서 1분거리시장통로 2층
• 전세 : 3천 5백만원
불 일 사
02) 574-4252
011) 358-4252

사찰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기 이천 (서울 30분거리)
• 평수 : 대웅전 26평, 지장 12평, 요사체 35평
• 대지 : 250평 • 가액 : 4억 5천
• 전세 : 1억5천(전세후매입가능) 원금 분할 매입 가능
교통 A급, 전경 A급, 주의 개발 중) 총 공사비 6억들었음
011-239-117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요지)
• 평수 : 55평 3층 법당, 손님방, 공양실, 거실, 주방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월 1,000 50만 월 2,000 30만
• 시설비 : 1,700만원
051)581-8652
011)9790-1779

사찰(터) · 납골당안내
• 장소 : 원주시 문막면 비두리
• 평수 : 63,000평
• 가액 : 평당 4천원
좌청룡 우백호 큰 사찰터나 납골당 유력지. 산세좋고 물이 많이 흐르는 천연의 대지입니다.
011)286-2680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약 600평
• 법당 : 약 16평, 산신각 : 4평
• 요사채 : 약 35평, 현대식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어울어진 청정지역의 기도 정진합도량으로 아주 좋음. 교통편리
043)832-4785

토굴(급) 안내
• 의성 안계
• 대지 132평 법당, 요사채
• 황토집 벽난로 완전 올 수리
• 양도가 2600만원 (수리비 가격임)
053)982-4976
011)813-3679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절충
02)481-4483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소재
• 부지 : 320평(종교부지)
• 법당 : 40평(목조,단청) • 요사 : 60평
• 가액 : 11억 2천만원
• 특징 : 도심속의 전통사찰로 기도와 포교도량으로 아주 좋음.
※ 전국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53)964-0455
좋은 인연입니다. 서울 02)326-1060
동진불사 대구 053)655-1062 · 1063
휴대폰 018-334-9021

포교원 안내
• 양천구 신정 4동 111번 종점 위
• 법당 : 약 15평, 방 2개, 세면장, 거실 겸 주방
• 보증금 : 천만원 월 40만원
• 권리금 : 답사후 결정
02)2601-7759
016)280-1007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융자 포함 매 5억 2천
시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 시장 내에 3층
• 평수 : 35평 10년 됐음
• 가액 : 5천만원 전세
02)2618-0767
011)753-0768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 운천동
• 평수 : 65평, 방3개, 주방, 샤워실
• 특징 : 시설 A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41-3195

포교원(급) 안내 (합 600만원)
• 보증금 4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200만원
• 위 치 :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4-15 (2층건물에 2층)
• 평 수 : 20평 방1, 부엌1, 법당1 (6호선 마포구청역5번 출구 100m)
02)332-37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옆 진경경찰서 입구
• 건평 130평 법당 70평 방 5개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특징 : 시설 일체 완비 양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 법회가능
055)326-0671
011)843-5672

제6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제6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응모작품이 늘어 90편의 신행수기가 접수된 가운데 임순기씨의 '장애를 넘어'를 비롯 모두 7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일상 생활속에서의 신행과 진솔한 삶의 체험들이 새해를 맞이한 우키들의 가슴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신행수기에 응모해 주신 많은 불자님들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상 (유마상)

장애를 넘어

임순기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현대불교신문사장상(우수상)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백남영 (경북 경산시 진량읍)

◇특별상 (종단협의회장상)

삶 그것은 수행

강인준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특별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삼보께 귀의합니다

홍건자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특별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길을 찾아 나서다

심성일 (부산시 북구 화명동)

◇특별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새로운 삶

허준오 (경남 남해군 설천면)

◇특별상 (진흥원 이사장상)

개종해서 다시 찾은 삶

성경화 (부산시 진구 범전동)

■ 신행수기 대상 수상작

장애를 넘어

임 순 기



처음 108배를 하고 바라보는 부처님 모습에 물기가 어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여름 방학때의 일이었다. 동생이 며칠동안 절에 갔다 오더니 집에 와서 절을 하거나 벽보고 앉아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사찰 여름수련회에 가서 배운 절과 면벽좌선을 하는 것이었다.

"야, 너 뭐해?" 하며 벽을 보고 있는 동생 뒤를 툭치니 갑자기 돌아서면서 "형! 몸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하고 되물었다.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내 몸에 장애가 있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내 가방을 들고 함께 등·하교를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질문은 처음이었다. 생각을 한참 해봐야 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공부나 해"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동생을 통해서 나마 불교와 처음 접하게 된 계기였다.

내가 본격적으로 불교와 직접 접한 것은 금산군 보석사의 육바라밀 학생회에 나가면서 부터였다. 그때 처음 들었던 법문이 지금도 생생하다.

"부처님께서 법문 중에 토끼가 법상 밑으로 숨어들어 왔어요. 잠시후 사냥꾼이 와서 부처님께 '토끼가 이곳으로 도망 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밑으로 숨었다고 하면 토끼가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하면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겠습니까?" 이같은 스님의 질문에 20여명 되는 학생 중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때 나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은 도인이니까 도술로써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하며 어떤 도술을 부릴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스님은 잠시후 "부처님은 다른 곳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답을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부처님도 별 힘이 없으시네' 하고 실망했다. 그러자 스님은 그런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부처님은 신통력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가장 알맞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하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질 못했지만 그 한마디에 그때부터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무척 궁금해졌다.

고 3 가을이 돼서야 집안이 어려워 대학 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혹시나 장학생으로 뽑힌다면 보내줄까 하여 대학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나는 미대에, 동생은 자기가 벌어서 다닌다고 야간대 전산과에 시험을 봐서 둘 다 합격했지만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집에 있는 소까지 팔아도 한 사람의 등록금 밖에 되질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만 대학에 입학시켰다. 동네 사람들은 '왜 형을 보내야지 동생을 보내느냐'고 말렸지만 난 아버님께 여쭤 보지도 않고 동생을 학교에 보냈다.

그때 나의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스님 한분이 절에 와서 며칠 좀 쉬었다 가라고 하셨다. 절에 들어가서도 나는 그림은 나의 분신일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대학 진학에의 집착을 떨쳐 버리기가 힘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화실에 가고 싶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일언지하에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니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나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세요"라고 강력하게 버틴 정도로 화가가 되겠다는 꿈이 간절했다.

그 이듬해에 동생이 군에 간다고 하길래 나는 시험을 다시 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그림을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고통스런 현실에 눈앞이 캄캄했다.

고등학교때부터 다니던 보석사 스님을 찾아가 머리를 깎겠다고 했더니 스님은 그 자리에서 책 한 권을 건네 주셨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더욱 아팠다. 스님이 될 수 있는 신체조건이 육군사관학교보다 더 까다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나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스님 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후 답답하고 힘들면 힘든 만큼 부처님을 찾았고 불교에 관한 책이라면 쉽던, 어렵던 잡히는 대로 읽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1년 후 나는 스스로 자립할 길을 찾기 위해 서울 삼육직업훈련소에 입소해 1년동안 귀금속 세공 기술을 배웠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수료할때는 최우수 수련생이 되어 압구정동 귀금속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바쁜 상황에도 간혹 절을 찾아갔었지만 예전만큼 자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삼육직업훈련원이 안식일 재단이라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는 하나 일주일이면 두 번씩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취업한 공장의 사장님이 집사님이라 매주 월요일이면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예배하는 그 시간은 지루하고 너무 힘들었다.

궁하면 통한다고 하던가. 길고 지루한 고통에서 헤어나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 냈다. 예배드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욕상에 올라가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무엇보다 가게 사장님께서 "네가 교회에 다니면 공장이 더 잘될텐데" 하시면서 교회에 나갈 것을 은근히 강요할땐 당장에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그만두면 시골로 내려가는 수 밖에 없어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었다. 서울가서 기술 배워 금방에 취직했다고 좋아하시던 어머니의 주름깊은 얼굴이 떠올라 사소한 이유로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다.

나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할렐루야'나 '아멘'이 '관세음보살'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글자나 소리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아닌가. 그 후론 예배시간에 적극적으로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기독교 교리에도 관심을 가졌다.

13년 간의 예배 시간이 지금 내가 포교사의 길을 가면서 타 종교인들을 포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직장 생활도 결코 순탄하진 않았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기술자 대부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다가 중증 장애까지 있어 사람들의 눈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척추장애에 우측다리가 10㎝ 짧으면서 신경이 거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에겐 만만하고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심한 말을 들어도 부처님께 의지하며 참고 또 참았다. 그러면서 밤에는 주로 불교책을 읽었다.

한달 월급 8만원. 그때 백반이 1300원 했는데 공장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잤기 때문에 방값 걱정은 안 했으나 한달 밥값 밖에 안 되는 월급으로 교통비와 책을 사서 보느라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침은 굶고, 점심은 라면을 끓여 도시락을 싸온 동료와 나누어 먹었으며, 저녁 한끼만 밥을 해 점심때 남은 동료들의 반찬을 모아 국을 끓여 먹었다. 주위에선 그렇게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느냐고 했지만 〈반야심경〉의 불구부정(不垢不淨)을 염했고, 책에서 본 선지식들의 걸림없는 의식주를 많이 접해서 인지 창피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몸이 따라 주질 않는 것이었다. 불규칙한 식사와 과로로 몸에 이상을 느껴 미루고 미루다가 병원을 찾아가니 '신경성 만성위염'이라고 했다. 의사의 처방이 약도 먹어야겠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야 낫는다고 했다. 그래서 정신 수련을 위해 직장 근처에 있는, 압구정동 동산반야회 포교당을 찾아갔다. 그 때부터 법사님이 일러준 대로 〈천수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기 시작했다. 100일을 하고 나니 소화도 잘되고 공복만 되면 위가 쓰려서 위장약을 먹던 버릇도 눈녹듯이 사라졌다.

그 뒤부터 직장이 쉬는 날이면 압구정동 반야회 포교원과 잠실 불광사에 나갔다. 한때는 〈금강경〉에 심취하여 금강경독송회에도 열심히 다녔다. 일의 특성상 야근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밤 11시에 집에 와 잠을 자다가 새벽 3시30분까지 성북동 독송회 법당까지 가기 위해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곤 했다.

거의 한 달이 지났을까, 하루는 목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몸상태가 최악이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그때부터 난 정상인과 몸이 다른데 똑같은 수행법을 고집한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환경에 맞는 기도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위에선 나보고 절 잘하는 장애인이라고 불렀다. 누가 봐도 내 몸상태로 3천배를 했다고 하면 믿질 못하겠지만 사실이다. 3배 이외에는 해보지도 않았던 내가 동산반야회에서 기초교리를 배우던 14년전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가 3배를 한 후 조금 더하고 싶어 7배를 하고 21배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108배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108배를 하고 바라보는 부처님 모습에 물기가 어리어 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그 때, 한참 후 계단을 내려오는데 양팔과 성한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려 그 자리에서 굴렀다. 다음날 땅바닥을 기어다니다시피 걸어다니는게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부처님 전에 108배를 했다는 뿌듯함에 한없이 즐거웠다. 이런 체험 덕분에 절을 자주 하게 되었다. 절을 자주 하다보니 나만의 요령이 생겨 우측 다리가 신경은 거의 없어도 균형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5년 전 동산법당에서 여름과 겨울 한달간 3천배 정진을 할 때 퇴근 후 매일 200~700배를 하여 한 달간 총 10,500배를 하고부터 나는 절에 또 한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소문은 무서웠다. 어떻게 알았는지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KBS-TV 방송국 PD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001년 1월 1일 개 원 (서울)

마음을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 (여래선) 신문 수행처.

근본불교 진흥원 여래선원
Buddhapia Meditation Center
서울 ·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053)744-9009
미얀마 · Seikantha New Dagon Yangon Myanmar
95-01-70-3877

法山 붓다피아(Buddhapya)스님 직접지도

▷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민족사)
빈손도 내려 놔라 (출판예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잠신만을 의지하여 쉼 없이 정진하라!
(붓다의 마지막 유훈)

서울	에비기초반	매주 화, 목 - 오전 11:00~12:20
	일반수행반	매주 월, 수, 금 - 오전 10:30~12:30, 오후 7:30~9:30
	주말정진반	매주 토, 일 - 오전 10:30~12:30
대구	일반수행반	매주 화, 목 - 오후 7:00~9:30
	철야정진반	매월 세 번째 토요일 - 오후 8:00~익일 03:30

■ 수행일정표
서울 (禪院)의 숍日은 금강경과 아함경(원시경전의 계승집)을 강설함
■ 선원 오는 길
서울 센터 : 신사역 6번 출구 전방 120M에서 우측 60M 귀
대구 센터 : 수성구청에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80M에서 우측 500M 귀
미얀마 센터 : 양곤의 신도시 남양곤에 위치 (직접 문의)
■ 여래선원(대구)
선우회 회장(입승) 無我 한승세
부회장 飛散 이영태 부회장 功德華 한정숙
총 무 東安 정호엄 기 획 度綠草 이정헌
종 무 度綠華 조은수 재 무 甘露華 오인숙
포 교 菩提華 오인순

보건복지분야의 자원봉사 및 포교교육기관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 성오스님 학 장 : 예도스님

■ 개설강좌

교과과정	개 강 일	교육시간
불심호스피스 간병과정	1월, 4월, 7월, 10월 (3개월 과정)	주 2회(2시-5시)
포교사 과정	매년 3월 (1년과정)	주 2회(7시-9시)
자비심리상담사 과 정	매년 3월 (1년과정)	주 1회(7시-10시)
불교대체요법 과 정	매년 3월 (1년과정)	주 2회(7-10시)

■ 안 내
1. 수시접수
2. 구비서류(공통) :
사진 3장(3 × 4)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3. 문의 및 접수 : 본교 서무과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3-5 대아빌딩 4층
전화 : 051- 462-5670
팩스 : 051- 462-5671

갓바위 소원성취 달마도
2001년 액운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비의 달마도



▶ 사업 실패, 가정불화, 자녀 문제, 부부 갈등, 부동산 매매
▶ 삼재소멸, 국가고시, 자격시험, 승진시험, 답답하고 초조하신 분 망서리지 마시고 전화 하십시오.

지장선원
(053)982-4976 / 011)813-3679

▶ 아래구좌로 입금후 전화주시면 곧바로 우송해드립니다.
농협 150042-52-200478 예금주 : 이 민택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현대결혼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불자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열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건강과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 5일 강남 오피스텔에서 시흥시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이 멀고 활동범위 시간 관계로 옮기게 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운행 : 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흐름에 같이 못하는 순간이 장애
최선다해 같이 흐를땐 장애없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부처님 오신날 특집으로 화계사에서 개최하는 3천배 정진법회에서 절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으니 동참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그 때까지 한번에 700배정도 까지는 해 보았으나 그 이상은 한 적이 없어 일단 자신이 없었다. 또 척추가 안 좋아 정밀진단을 받아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남들하고 구조가 틀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충고때문에 밤마다 척추에 파스를 붙이고 자던 때였다.

PD는 3천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절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으니 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해 주면 고맙겠다고 촬영에 응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일단 500배까지만 도전 해 보고, 잘 되면 1080배를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앞에서 절하는 스님 속도에 맞추어 함께 따라 절을 했다. 50분을 절하고 10분을 쉬었다.

여러 카메라 중에서 고정되다시피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한 대의 카메라가 멀리서 보였다. 500배를 지나 1천배를 넘어서며 포기하고 싶다가도 카메라가 다가오면 태연하게 절을 했다. 그러나 1천5백배를 넘어서면서 부터는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이러다 하나 남은 다리마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앞에 있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눈만 바닥과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자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의 이상을 하나 하나 느끼기 시작했다. 무릎 감각이 없어지더니 뜨금뜨금 거리고 척추에는 열이 오르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PD가 말했다.

"힘들어 보이는데 그만 하세요." 나는 그때 "불교에는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 한배 한배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고 대답하니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한 배만 더, 한 배만 더' 하다보니 쉬는 시간이 되었고 새벽 4시가 돼서야 끝마칠 수 있었다. 지도하신 스님은 죽비를 내려 놓으시며 화계사에서 3천배 정진법회를 시작한 이래 끝까지 마친 장애인은 내가 처음이라며 사람들에게 얘기하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으로 묘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을 때였는데 3천배를 마치고 나니 그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 그 후로 척추에 붙이던 파스는 아직까지 붙이지 않고 있다. 3천배를 끝마치고 화계사 밑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 눈물이 핑 돌았다.

요즘도 살아가면서 장애가 생겨 힘들 때가 많지만 절에 찾아가 기도를 하고나면 고통이 사라져 행복을 느낀다.

오래전의 일이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때, 텔레비전에서 강변에 하얗게 죽어 떠 있는 고기를 보며 저 고기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방울의 맑은 물이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곳에서 큰 물은 못되어도 맑은 물 한 방울을 만들어 가는, 한 사람의 불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산불교청년회를 창립하고 우리 회원들에게 "각자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맑은 물 한 방울과 같은 사람이 되자"고 강조를 했다. 말만 가지고 맑은 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속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와 수행을 해야 한다.

몇년 전부터는 월 1회씩 군부대를 찾아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처음은 창고를 개조한 법당에서 20명이 채 안 되던 군인이 법회를 보았으나 요즘은 100명이 넘어 법당을 신축 중이다.

내가 만일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와같이 가진 것 없고 몸도 불편한 장애인이 지금과 같이, 삶의 여유와 풍요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내 주위를 원망해 본 적이 거의 없다.

가끔 나는 내 자신에게 묻는다. '부모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의 지난 행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진리가 부처님 말씀인데 누굴 원망할 것인가.

3년 전 경제 한파로 직장을 잃었을 때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사찰 여름 수련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련회에 참석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고 종무소에 찾아가니 총무스님은 나를 보고 "신청서를 보니 다른 수련회에 참가도 해 보고 절도 많이 했다고 하길래 사중 회의에서 뽑았는데 이렇게 장애가 심한 줄 몰랐어요.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지만 후원에서 자원봉사자와 가벼운 일을 도와주면서 교육 시간 강의는 받고 참선 시간은 수련장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루 18시간씩 반복되는 고된 교육 일정을 감안할 때 척추와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목발을 짚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건 당연했다.

"스님, 이곳 수련회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목발을 짚지 않고 걸을 수 있으니 하루만 지켜봐 주세요. 그것도 안 되는지요…"

40분간 애원을 했다. 수련생을 총괄하시는 스님은 나의 애원 때문에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수련생 전체와 우리 뜻도 생각해 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었다.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는데는 아무리 자신 있어도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서도 수련장에 그냥 눌러 앉아 있기로 마음먹었다. 번호도 뒷문 옆 끝번이니 다른 수련생에게 피해가 될 것 같지 않았고, 수련장에서는 내가 종무소에서 총무스님께 매달릴 때 옆에 계셨던 지도법사 스님 세 분만 계시고 총무스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수련장 스님께 지적 당하면 그때 물러갈 생각을 했다.

4박5일 동안의 수련 생활이 무척 힘든 것은 사실이었다. 수련기간동안 14명이나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정도였다.

3일째 철야정진에 들어가기 전 차 한 잔을 나누며 둘러 앉아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총무스님은 "입방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수련회에 참석한 수련생이 있어요"하시며 소감을 들어보자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매우 기뻤다. 스님의 그 말씀이 간접적으로나마 입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다. 100명의 수련생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며 나름대로 느낀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란, 어떤 길을 갈 때 흐름에 같이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는 순간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같이 흘러 갈 때는 장애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같이 흘러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분에 얽매이면 장애인이고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여 매이지 않으면 그곳엔 장애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련 중에 혹시 저로 인해 여러분들이 수련생활을 하는데 폐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보고 마음속에 차별심을 가지고 장애를 그리면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어두운 부분보다 밝은 부분을 찾아 주세요…"

또 하나의 장애를 그려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당당히 말하며 그 자리를 나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어두움보다 밝은 빛, 한 방울의 맑은 물이 될 수 있나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지난 여름 한 달간 인도 배낭여행을 가서 '장애인의 몸으로 이 몸을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는데, 난 남은 생을 무엇하며 살까'를 생각했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알지 못하던 컴퓨터를 배워, 주위 도움을 받아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나의 신행 경험이 오늘도 삶의 고해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한방울의 맑은 물방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홈페이지 이름도 그래서 '장애바라밀'이다. 말 그대로 '장애를 넘는다'는 뜻이다. 사실 난 육체적인 장애보다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이 더 힘들다. 하지만 그 장애를 넘을 때까지 세세생생 나는 수행하며 이 길을 가련다.

"늘 한방울 맑은 물로 살기를…"

● 당선소감 ●

대상 임순기씨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우선 기쁩니다. 불법 공부에 최선을 다해 더욱 더 매진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삶의 고비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느끼고 공부하려 했던 나의 보잘것 없는 기억 조각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맑은 물방울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불교에 입문하게 도와준 동생,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님을 비롯해 도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나에게 주어진 큰 영광은 요즘 게으름에 빠져있는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또 꾸준히 매일 매일 정진하는 것이 참불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상을 주신 뜻에 누가 되지 않게 재발심하는 기회로 만들어 부처님 정법을 성실히 실천하는 불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년 충남 금산군에서 태어난 임순기씨는 83년 금산고 졸업, 97년 동산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포교사 고시에 합격해 현재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구람 23일 현대불교신문사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열중하고 있다.

총 90편 응모 … 기복탈피 수준작 많아

● 심사평 ●

총 90편중 예선을 통과한 15편의 작품들이 본선에 올랐다. 올해는 기복적인 내용에서 탈피해 현실의 어려움을 신심으로 극복하면서 부처님 정법을 올바르게 깨닫는 내용의 작품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순기 씨의 '장애를 넘어'와 백남영 씨의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는 둘다 감동적인 내용에 더하여 뛰어난 문장 구성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장애를 넘어'가 장애에 대한 핸디캡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신심으로 승화시켜 참된 불자로 자리매김하고 오히려, 부처님 법을 펴는 포교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표현했다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평가로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

또한 특별상으로 뽑힌 다섯 작품들 역시 삶의 고비를 이겨내기 위해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부처님의 향훈을 가슴속에 새겨 신심으로 역경을 극복한 내용들로 신행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 비록 이번에 수상작으로는 뽑히지 못했지만 교도소 등 소외된 곳에서 업연의 과보를 참회하는 내용의 수기도 많이 응모되었다.

심사위원장 법산 스님은 "지난해보다 글의 내용과 구성면에서 응모자들의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현대불교 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비로소 불자들의 신행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행사로 자리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심사위원: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김징자(언론인) 최정희(본지 편집고문) 이창호(본지 제작총괄 편집위원)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 청용(靑龍) (우) 백호(白虎) (남) 주작(朱雀) (북) 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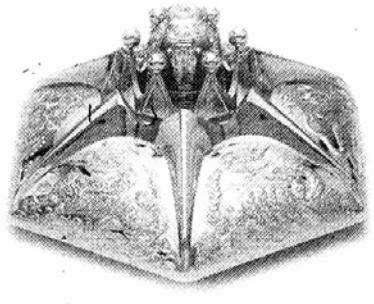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거리고 있었다.

※ 주지스님 친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기(氣)란 : 현실이다



◆법칙을 어기지말라◆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기(氣)의 중요성▶

기(氣)란 현실이다
기(氣)가 약하면 액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기(氣)가 강하면 강자가 될 수있고
기(氣)가 약하면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잃을 것이다.
※육기방의 효험이 좋다는 분들이 많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소식없던 식구가 연락이 왔다.
· 철학관 선생님과 면담 후 제품을 구입하십시요.

◆사용처◆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구입처◆ 사찰, 암자, 철악관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 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 수 사
부설 해동원효불교대학 · 해동원효어산의식교육원
종 정 이법홍 주 지 송구산
확 장 전용만
부인회장 김보원행
사무국장 안종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843번지
TEL : 051)467-3316, 462-0338
FAX : 051)464-3355

대한불교 조계종
문 수 사
부설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덕암
주 지 지원
원 장 설곡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3
TEL : 051)624-3754

대한불교 천태종
삼 광 사
주 지 박덕수
총 무 이갈지 재 무 김지도
교 무 박거홍 포 교 이개문
노 전 김갈수 박성현
신도회장 안영일
신도부회장 이종화, 오귀분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 051)808-7111~5
FAX : 051)808-1332
인터넷삼광사(http://www.samkwangsa.or.kr)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장 황국근
외무부회장 안강수 내무부회장 허옥경
연수원장 박규보 감 사 류상영
사무국장 하재훈
상무위원 일동
부설 가람의문화답사회 : 051)851-5209
대불청 직영 수련 꽃집 : 051)852-1007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TEL : 051)851-5209
FAX : 051)851-5210

불자님이 어로 믿고 찾는 은행
부산불교신협
■ 새천년 불교신협에서 드리는 조합원의 혜택
하나. 정부의 예금보장 한도가 1인 5,000만원까지 확대
둘. 1인 최고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생계형 저축 한도 2,000만원 까지 비과세 가능
셋. 빠르고 신속한 대출 (담보신용학자금 대출 등)
■ 범일동 지하철 입구 현대백화점 맞은편 2층
TEL : 051)633-9120~3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
회 장 최용원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상임부회장 박수복
부 회 장 김윤환 김종태 이근철 이상태 하문원
감 사 박수관 박영근
회원 · 마야부인회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7-44
박수웅산부인과의원 4층
TEL : 051)818-9914 FAX : 051)818-9916

자비실천 봉사회
자비실천 찬불가회
회 장 한영옥 지도강사 금정미
찬불가, 가요,가곡등을 무료지도합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가 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또한 자비실천봉사회를 결성해 양로원, 교도소 등을 방문 부처님 법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자 하오니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길에 무루 동참하기기를 바랍니다.
TEL : 051)898-1547/011)859-1547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정 토 사
부설 정토불교대학
정토간병회
주 지 덕 진
사부대중 일동
■ 울산시 남구 옥동 803-5번지
TEL : 052)274-3800

봉래산 미륭사
부산불교자비원(자비의 전화)
불교사회문제연구소(무료법률상담소)
원 장·주 지 김정각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번지
TEL : 미륭사 051)404-2100/4300
자비원 051)403-4848/4841
자비의 전화 051)403-4861
FAX : 051)403-4860

대한불교 조계종
보 현 정 사
부설 보현불교학교
주 지 달 오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22-120
TEL : 051)861-0034

재단법인 선학원
양산 천불사
회 주 도 봉
주 지 도 영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304번지
TEL : 055)382-1463

지장기도 영험제일 도량
법 연 사
회 주 조 연
부설기관
지장불교대학 도서출판 법연
다도회 합창단
성인 장학회 연꽃봉사단
꽃꽂이회 정진회
법수회 민족문화역사찾기운동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588-6번지 2 · 3F
TEL : 051)868-7733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 도
신도회장 이하경 박성빈
부 회 장 채선일 현기섭 서민자 김원순
총 무 정성용 박연지
재 무 임종희
교 무 오명자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번지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홈페이지 · WWW.hanmaum.org

한빛정보처리학원
원 장 손 문 재
■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39-15번지
부경대 대연동 캠퍼스 앞
TEL : 051)628-8912

주)성 전
대 표 김 한 규
■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566-2번지
TEL : 055)583-8582~3
FAX : 055)583-8193

해 일 산 업
노즐 연료펌프
재생수리
대 표 김 종 희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23-3
TEL : 051)418-6263
FAX : 051)418-6264

巨林 油壓
선박유압장비
유압응용기계
대 표 조 봉 천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33번지
TEL : 051)412-0935~6
FAX : 051)412-0935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법 형 제 회
법 형 제
회 원 일 동
■ 부산시 영도구 동삼1동 중리 522-1번지
TEL : 051)403-7077
홈페이지 WWW.hanmaum.org

유 림 한 의 원
원 장 이 하 경
TEL : 051)467-5217

부산청년불자산악회
회 장 김종성
부 회 장 이욱태 김주한
한승구 이주복
등반대장 손정현
사무국장 하재훈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TEL : 051)851-5209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강 선 태
상임부회장 임채수
부 회 장 김창석 박성빈 박창선 설동근 이영숙 이종화 임승남 정금강행 하도명화
감 사 서병혼 오양효
사무총장 강동균 재무총장 하만경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TEL : 051)853-2021 FAX : 051)853-2036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사회복지법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주지 · 관장 혜 총
사부대중 · 임직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2동 33번지
TEL : 051)809-0926

박해일 내과
원 장
전문의 박 해 일
TEL:051)414-4200

대한불교 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현 엽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45번지
TEL :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 가락최대고찰
신어산 은 하 사
주 지 대 성
보현회
금옥회
청년회
사부대중 일동
■ 경남 김해시 삼방동 888번지
TEL : 055)337-0101

통도사 부산포교원
大 廣 佛 敎 大 學
(사)한나래문화재단
부설 시민선원 · 문화관
부산연꽃 · 울산보리수
김해연꽃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번지
TEL : 051)816-2241/051)816-2245
FAX : 051)806-2430
Home Page:http://BusanBuddhism.org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부설 원효불교대학
법 주 중 원
주 지 원 타
사부대중 일동
자원봉사단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TEL : 051)803-7573 FAX:051)803-7521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환희복지 장학재단
주 지 지 현
청신사회 · 자림회 · 환희합창단
관음학생회 · 단이슬어린이집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9-2
TEL : 051)294-9300, 9303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 마을
다정한 어린이집 두송경로당
■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96-1(도개공4지구 아파트 內)
TEL : 051)265-9471 FAX : 051)265-9475

대한불교 무량본종 총무원
무 량 정 사
총무원장 이 령 관
신도회장 선 혜 각
총 무 김 보덕행
대중 일동
■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6-1
TEL : 3216-1600

사단법인 21세기
한국사회봉사회
천불장학회
이사장 이 설 산
임직원 일 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1-3호
TEL : 02)303-0024~5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도량 백운암
주 지 석 관
신 도 일 동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2리 산 129번지
TEL : 054) 748-3530
FAX : 054) 672-9060

대한불교 조계종 **서암사**
주 지 서 암
신도회장 구덕정화
총 무 이경자
신 도 일 동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429번지
TEL : 054) 761-3770
054) 762-3770

대한불교 조계종 **흑석사**
주 지 부 봉
신 도 일 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1380
TEL : 054) 637-1900

대한불교 조계종 **청량사**
주 지 지 현
신 도 일 동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39
TEL : 054) 672-1446
FAX : 054) 672-9060

지장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정토사**
주 지 자 원
신 도 일 동
■ 경남 마산시 산호동 221-3
TEL : 055) 247-7382
055) 248-6550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원 장 지 관 노 전 보 안
회 주 법 회 주 지 혜 총
신 도 일 동
■ 부산 부산진구 전포 2동 33
TEL : 051) 809-0926
FAX : 051) 803-0188

대한불교 조계종 **불암사**
주 지 두산 일면
부주지 일 관
총 무 법 공 재 무 혜 봉
신 도 일 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97
TEL : 031) 527-8345
FAX : 031) 527-0635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수원 용화정사
주 지 조성관
신 도 회 일 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19-70
TEL : 031) 246-0108
FAX : 031) 256-3400

수원시불교연합회
회 장 조성관
연합회 스님일동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7번지
인계종합상가 3층
TEL : 031) 225-3520 FAX : 031) 225-3521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말사 **운길산 수종사**
수종사 주 지 합 장
신 도 일 동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1060
TEL : 031) 576-8411
FAX : 031) 576-1792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 지 지 성
하동청소년수련원 임직원
신 도 일 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TEL : 055) 672-0100 수련원 : 055) 883-5393
FAX : 055) 672-0481

부처님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동국대경주병원불교회
상임법사 일 장
법 우 일 동
■ 경북 경주시 석장동 1090-1
TEL : 054) 770-8108
FAX : 054) 748-9320

화야산 운곡암
총 무 황 학
신 도 일 동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102
TEL : 031) 584-4374

산신도량 백운정사
주 지 보 문
신 도 일 동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상산재
TEL : 031) 773-6662

대한불교 조계종 **내승사**
주 지 철 우
신 도 일 동
■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산74-15번지
TEL : 051) 557-6276

앞서가는 가르침
대한불교 조계종 **불지사**
대 중 일 동
■ 경남 창원시 신월동 93
TEL : 055) 262-6665

지성불교공예사
대 표 이영우
달집 · 탁자 · 불단 · 법상 ·
단청 · 현판 · 문
전문제작 제조원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덕암리 467
TEL : 055) 351-1690
FAX : 055) 351-0544

덕숭총림수덕사 부설
무불선원 ·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학원
이사장 법 장
주 지 성 산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
TEL : 02) 541-0002~3 FAX : 02) 541-0004
http//:www.moobool.com

대한불교 조계종 **동명불원**
주 지 장 산
신도회장 이자성심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07
TEL : 051) 624-7667 · 628-0496
FAX : 051) 626-7498

길상불교미술원
원 장 윤기룡
불화-탱화 · 신도용 불화 전문
■ 대구광역시 달성구 현풍면 부리 438 3층
TEL : 053) 616-9063
FAX : 053) 617-9069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직 원 일 동
■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TEL : 031) 531-8736 FAX : 531-5549
C. P : 011-284-5101

거제불교백화점 · 고헌불교사
대 표 조부환
불화 · 탱화 · 법상 · 범종
전문제작 판매
■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3-1
TEL : 055) 633-2327
FAX : 055) 632-6373

공양불교사
대 표 임태형
탱화 · 불상 · 범종 · 신복 ·
조상옷 · 개금 전문
기도방생차량 항시대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6-1 전매청오거리
TEL : 063) 273-4141

대한불교 조계종 **봉영사**
주 지 철 안
신도회장 어정숙
보현산악회장 박명오
신 도 일 동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48
TEL : 031) 571-0555

대한불교 조계종 **사자암**
주 지 도 각
신 도 일 동
■ 서울시 동작구 상도 3동 280
TEL : 02) 825-9008

관음불교사
대 표 서민정(반야심)
불상 탱화 법상 등
불구류 제작판매
■ 경북 영주시 영주 1동 548-16
TEL : 054) 631-1920
054) 632-1920

대한불교 조계종 **사나사**
주 지 화 암
대 중 일 동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04
TEL : 031) 772-5182
031) 771-5990(팩스겸용)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
주 지 석 문
사부대부 일동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79-2
TEL : 033) 632-9800

대한불교 조계종 **석굴암**
주 지 도 일
신 도 일 동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조현리 1
TEL : 031) 826-3573

금성상회
대 표 강순애
불상 범종 탱화 국악기 농악기
전문제작판매
■ 광주시 서구 양동 5번지 양동시장내 316호
TEL : 062) 369-1937/225-8131(자택)
FAX : 062)364-0912 C.P : 011-624-8959

사찰 오수시설 정부지원 절실

상주인 보다 주말 이용객이 오염 주원인

조계종 보고서 지적

조계종이 산사 오수처리 시설 현장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사찰환경 지키기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부 사찰오수처리정책팀은 구랍 29일,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찰 오수처리 시설 현장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주요 산천에 자리잡은 사찰의 오수처리 실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이를 개선해 사찰과 주변환경을 더욱 청정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국립공원지역의 수질오염과 관련, 사찰 오수정화시설의 개선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조계종이 스스로 내부 보고서를 통해 개선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계종의 이번 조사는 2000년 2/4분기 국립공원 계곡수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계룡산과 속리산, 설악산, 월악산, 오대산 등 상당수 국립공원내 계곡의 수질이 전년 동기에 비해 2~10배나 나빠진 것이 한 요인이 됐다.

계곡 수질오염은 국립공원 공중화장실(전체 451개중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143개)과 사찰화장실(303개중 239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숙박 및 음식점 화장실(2천56개중 1천186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가운데 상당수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흘려보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었다.

밀양대학교 이병인 · 홍성철교수(환경공학)와 이영준 박사(국립환경연구원 수질공학부) 등 13명의 연구진이 조사한 20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사찰오수의 수질특성과 오수처리시설의 현황 · 문제점과 제언, 사찰 오수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방안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사찰 오수처리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종단차원 지침마련 △사찰오수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협조 △사찰특성에 맞는 시설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전통 해우소 등 자연친화적 시설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사찰내 가장 큰 오염부하(負荷)는 상주인구(생활인원) 보다 주말 유동인구(이용인원)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며, 기타 사찰내 시설물에 의한 오염부하는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큰 오염발생이 없다고 결론지어, 정부의 시설지원이 필요한 당위성을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좀 더 세밀한 사찰별 분석을 진행한 후 사찰과 종단 현실에 맞는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함과 동시에, 사찰 오수정화시설의 보완 및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부산 보현의집 자비회 회원들이 구랍 25일 정화양로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봉사"

부산 보현의집 노숙자 모임

매월 양로원 · 고아원 찾아

노숙자 쉼터인 부산 보현의집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봉사회를 조직, 양로원을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보현의집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30명은 지난해 7월 자비회(회장 김인식)라는 봉사회를 만들어 매달 한번 양로원,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랍 25일에는 정화양로원을 방문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노동으로 번 돈을 모아 노인들에게 용돈을 전달하 여르산들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했다.

자비회 회원은 이같은 봉사활동 뿐 아니라 노숙자 재활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회비 마련을 위한 노동과 사찰 법회참석, 명상 등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자비회 회원들의 정진도 남다르다. 김인식회장과 회원 1명은 매일 인근의 광명선원에 나가 100일 기도를 계속하고 108배와 명상으로 재활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자비회는 이번 방문으로 인연을 맺은 정화양로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해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광주사암련 성도절 법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2일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 대웅전에서 '새천년 함께 나누는 사회'라는 주제로 불기 2545년 성도절 봉축 대법회를 봉행한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 13대 회장 성호스님(무등산 관음암 주지)의 취임식과 전임 회장 천운스님(향림사 조실)의 이임식도 함께 열리는 이날 봉축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송, 찬불가, 법어(법흥스님 · 송광사), 발원문(일명스님 · 금선사 주지), 장학금 전달(중 · 고등학생 10명에게 300만원) 순으로 진행된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혜덕 총무원장 인준

일승종 종회…예산도 통과



지난해 8월부터 일승종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온 혜덕스님(서울 대왕사 주지 · 사진)이 구랍 22일 열린 제 142차 정기중앙종회에서 인준을 받아 정식으로 제12대 총무원장에 추대됐다. 혜덕 총무원장은 이날 "종정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대덕 스님들을 받들어 여법한 화합종단으로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종회에서는 또 새해 예산 11억 2백91만2천여원을 심의 통과했으며, 새 종회의장에 세고사 주지 무장스님을 선출했다. 이경숙 기자

부모미생전 무엇이 참나인가

봉암사 조실 진제스님 신사년 법문



신사년(辛巳年) 새 해 아침 조계종 특별선원 희양산 봉암사 조실 진제 스님<사진>은 시자 도화스님의 문안을 받고 "모두가 나날이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서 나기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화두를 늘 들어 참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시자 : 새해 아침에 조실 큰 스님전에 세배 드립니다.

조실 스님 : 너도 신심을 내는 가운데 더욱 신심을 내고 용기 내는 가운데 더욱 용기를 내어 화두가 일념이 되게하여 진리의 정안(正眼)을 갖추는데 노력하여라.

시자 : 신사년 새 아침을 맞이하여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만사람이 나날이 좋은 날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조실 스님 : 어-억!(문득 할(喝) 하시고)

나날이 좋은 날이고 다달이 좋은 달이려니 그 무슨 소리를 하느냐.

시자 : 저희들은 중생이 되어서 많은 과거생에 지어온 업이 있어서 나날이 좋은 날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편이 없습니까?

조실스님 : 이 사대(四大)의 몸뚱이는 백년을 살아도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나니, '부모에게서 나기전 어떤 것이 참나런고?' 이 화두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나를 찾게 되면 나날이 좋은 날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나니라.

시자 : 어떻게 하여야 참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조실스님 : 부모에게서 나기전 참나를 찾되 일상생활속에서 각자의 직분에 따라 가고 앉고 눕고 산책하는 그 가운데 오매불망 참나를 찾을 지니

'부모에게서 나기전 어떤 것이 참나런고?'

참나를 찾는 한 생각이 지속되면 홀연히 진아를 보게 되리라.

우주는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없어지고(成住壞空)가 있으나 참나는 나고 멸함이 없음이로다. 일체의 진리의 법이 나를 좇아 생겨나나니 이것은 만법의 근원이 진아인 때문이니라. 이러한 고로 부처님 경전에 이르시기를 심생(心生)하면 종종법생(種種法生) 하고 심멸(心滅)하면 종종법멸(種種法滅)이라 하심이라.

진리의 법은 진아속에 만법이 구족함이로다. 이러한 고로 모든 사람들은 생활속에 진아를 찾는 참선정진에 진력하고 진력할 지어다.

시자 : 스님, 필경에 참나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조실스님 : 頭長三尺恁麼來 하야 相對無言獨足立이로다(머리의 크기가 석자라, 이렇게 와서 서로 대하여 말없이 외발로 섬이로다).

도둑이 훔쳐간 돌부처 주민이 되찾아 봉안식

보름이 넘게 잃어 버렸던 마을 돌부처를 되찾은 주민들이 봉안식을 갖고 돌부처의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어 화제다.

충남 서산시 음암면 신장1리 주민들은 구랍 24일 마을 입구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도난당했다 제자리를 찾게되는 돌부처의 봉안식을 가졌다. 고려시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돌부처는 박 모(53 · 초등교교사)씨 등 3명이 견인차 등을 이용해 들어낸 뒤 화물차에 싣고 사라졌다 경찰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와 탐문수사로 구랍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돌부처는 도난과정에서 머리 부분 일부가 훼손됐다. 김재경 기자



수종사 미륵불 봉안 다도大 세워 차 보급도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운길산 수종사(주지 동산)는 구랍 26일 높이 8m의 미륵불 봉안식<사진>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문화도량 불사에 착수했다.

양수리의 수려한 경치와 함께 초의선사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가 교우했던 곳이어서 茶로 이름나 있는 수종사는 최근 다실 삼정헌(三鼎軒)을 열어 절 방문객에게 무료로 차를 보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도대학을 개설, 최근에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차문화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기법 경주지사장



신흥사 이웃에 부식 · 의류 전달

설악산 신흥사(주지 법장)와 신도들은 구랍19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라면 내의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총 55세대에 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한 신흥사측은 일일이 가정을 방문 온정을 전달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기원했다.

또 이번 연말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추석및 연말 등 3차례에 걸쳐 이웃돕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불교기아기구 네팔에 중학교 건립

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는 구랍 13일 네팔 포카라지역을 방문, 산악오지에 중학교를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하고 돌아왔다.

올 7월말까지 교실 4칸, 법당 1칸 등을 갖출 예정인 이 중학교에는 학생 150명에 교사 4명이 배치되며, 연간 1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김재일 불교기아도움기구 회장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에 불자들의 후원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법보시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02)722-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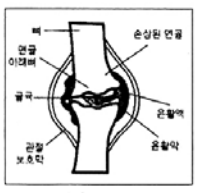
실천승가회 홈페이지 설명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구랍 22일 북악파크호텔에서 의장 청화스님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송년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www.silchun.org) 설명회를 가졌다.

실천승가회 홈페이지는 불교뉴스와 각종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실천승가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자료실 웹메일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0번타 코스는 7-8일이 걸리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etet.co.kr
E-mail:bokbat@kornet.net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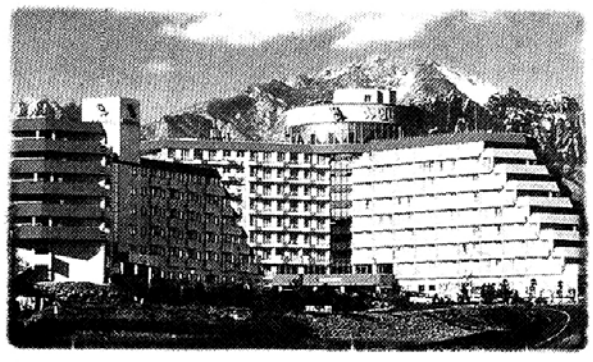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현대 휘미리 설악콘도 특별 혜택
가고싶은 설악 품고싶은 동해
설악 콘도 23평 1,584만원을 350만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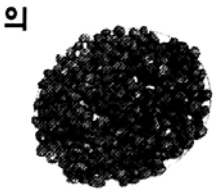
특별가입 내역

평 형	총분양가	특 별 가
23평형	1,584	350
사용일수	객실형태	객 실 수
30박	방2/거실1	477

특별가입 혜택
① 계약과 동시에 전국 23곳 이용 가능
② 10년 만기후 전액환불 및 연장가능
③ 연회비, 입회비 평생면제
④ 초정약수 스파텔 VIP 초대권 증정
⑤ 초정약수 (탄산수) 무료 한정 공급
⑥ 양도, 양수, 매매 상속 가능
⑦ 신용카드 장기분할 가능 (12-18개월)

■ 온라인 카드결재 안내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예 금 주 : 주) 현대휘미리리조트
문의 안내 02) 545-4955
주) 현대 휘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괴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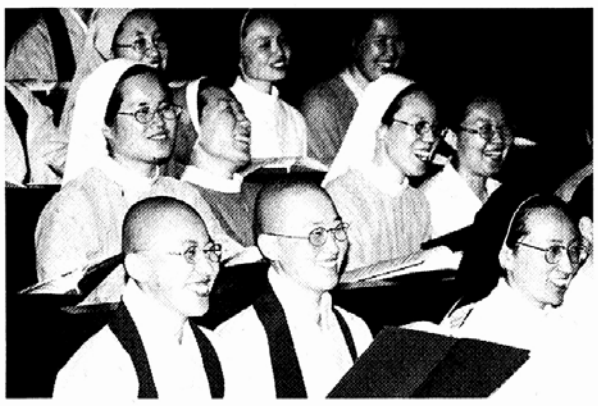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제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공존과 평화의 시대 만들자"

종교화합 '새 바람'

교단 - 단체별 연대 활동 활발



◇환경 · 인권 · 복지 · 절약캠페인 · 합동성지순례 ·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상호 축하 등 지난해의 종교화합과 연대는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희망과 화해의 정신을 심어주었다. 사진은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의 공연연습모습.

올 2001년은 종교화합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각 교단과 개별단체들은 물론 사이버상에서의 화합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인들은 연대활동이 어느 해보다 활발했던 지난 2000년의 성과를 발판삼아 새로운 세기를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불교의 재가연대는 다른 종교단체 실무자 및 대표자 등과 '참여불교 네트워크'를 구성, 종교시민역량 강화를 꾀하며, 실천승가회는 개신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구현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과 공동으로 연내 '남북종교인대회'를 개최한다. 또 불교인권위는 지난해말 각 종교단체들과 모임을 갖고 종교별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올해 사형제 폐지 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개신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김경식 회장의 2001년 신년메시지에서 드러났듯이 종교간의 협력을 통해 공존과 나눔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사회부 부장 황필규 목사는 "환경 · 인권 등 각종 사회문제를 매개체로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역시 교구 및 개별단체 차원에서 종교간의 연대와 화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교구 홍보실장 정웅모 신부는 "연대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교구차원이든 개별단체 차원이든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불교는 아예 교단차원에서 다른 종교와의 연대강화를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중앙총부 문화사회부 최남호 교무는 "올해부터는 종교지도자협의회나 민족종교협의회 등 각종 연합단체와 개별단체간의 접촉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간의 화합은 교단과 단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활발하다.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www.believers.co.kr), '나의 삶, 나의 종교'(www.myreligion.com) '종교화합모임'(user.chollian.net/~relisone), 가톨릭 자료실의 '종교간의 대화'(user.chollian.net/~jcmans) 등 인터넷상의 종교화합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들이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늘었다. 이런 종교화합 목적의 사이트 외에 홈페이지에 종교간의 대화방을 설치하는 단체들도 계속해 늘고 있다.

실천승가회 이상효 차장은 "종교간의 화합은 연대차원을 넘어서 서로를 알기 위한 체험위주의 이벤트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어느 해보다 이해폭과 연대감을 넓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가진 계층 '매장' 선호

주요병원 화장률 조사

"있는 사람은 매장을, 없는 사람은 화장을 선호한다"

서울 주요병원의 장례식장 화장률을 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가진 계층'의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력가나 권력층, 고위공무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주요 병원 장례식장의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장률을 보면 서울대병원 35.3%, 세브란스병원 40.4%, 강남성모병원 30.8%, 삼성서울병원 20.8%, 서울중앙병원 34.6%, 이대목동병원 35.4%로 서울시내 일반인 화장률 52%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수치는 서울시내 71개 종합병원의 같은 기간 평균 화장률 46.2%에도 훨씬 밑돌고 있다.

구랍 25일 서울시는 최근 2개월간 화장 · 납골시설을 견학한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5%가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산시도 20세 이상 부산시민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9.2%가 화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관계전문가들은 경제적 여유로 매장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데다 조상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잘된다는 기득권 보호차원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가진 계층'이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국내 최대 노인복지센터 건립

연꽃마을, 안성에 1만평규모 3월 착공

경기도 안성에 국내 최고의 시설과 최대규모를 자랑하게 될 불교종합노인복지센터가 세워진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에 1만여평 규모의 종합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연꽃마을은 종합노인복지센터 건립을 10년 장기사업으로 잠정 결정하고, 1차로 올 3월 공사에 착공해 연내에 6백평 규모의 치매요양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70여명을 수용하게 될 치매요양시설에는 주간보호 및 단기호보시설도 포함되며, 시설은 노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유럽풍의 전원주택 형태로 건립된다.

이와 함께 200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다양한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전문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보호노인의 정신수양을 위한 법당을 건립해 복지시설과 종교간의 조화를 꾀하고, 노인복지를 주도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보건복지 전문대학 및 연수원 등을 설립해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노인복지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꽃마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4백평 규모의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국 · 도비로 건립비용을 충당하며, 나머지 2백평의 건립비용은 연꽃마을이 자체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꽃마을은 후원자를 발굴 · 모집하는 등의 모금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실무를 맡고 있는 김현종 사무국장은 "10년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보다 훨씬 빨리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안성 종합노인복지센터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유엔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

한국등 77국에 위원회 구성

올해는 유엔이 정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

유엔은 지난해 11월28일 뉴욕 본부에서 국제 자원봉사자의 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독일 멕시코 등 77개국은 국가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제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5일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가졌다.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볼런티어 21'이 99년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4%로, 50%를 넘나드는 미국이나 30%대의 유럽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들의 평균 자원봉사시간도 주당 2.2시간으로 미국의 3.5시간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95년 이전 5% 이하에 머물렀던 봉사참여율이 몇년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불교계 역시 자원봉사 참여율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김애련 사무차장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자원봉사자의 해를 계기로 더 많은 불자들이 활동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회당탄생 '100주년' 사업 주제 - 슬로건 확정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구랍 12일 총인원 소회의실에서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제1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업 주제를 '참여, 화합, 공양'으로 정하고 '즐거운 신행, 하나되는 신행, 함께 하는 신행'의 슬로건도 아울러 선정했다.

진각종은 2002년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난 97년 전개한 창종 50주년 때의 '제2의 창종' 정신을 더욱 구체화해 '21세기적 회당정신을 구현하는 해'로 정하고 각종 기념 사업을 전개해 종단과 불교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달중 기념사업 세부안을 마련, 확정발표한다. 이경숙 기자



동전으로 만든 다보탑

서울 방화동에서 전파사를 운영하는 진정근씨(60)는 6년전 우리나라가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자 이를 기념하고, 10원의 가치를 모르는 세태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다보탑을 쌓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소요된 동전만도 4천여개. 10원짜리 동전 앞면의 그림이 다보탑이라 다보탑을 쌓기로 했다는 진씨는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탑을 완성해 월드컵조직위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불자 장기기증 증가

99년 비해 2.4배 7010건

생명나눔실천회 집계

지난해 불자들의 장기기증이 99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부터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여온 생명나눔실천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기증 서약 건수는 모두 7,010건으로 99년 2,961건과 비교해 2.4배나 증가했다. 장기기증 참여인원도 99년 1,176명에서 2000년 2,966건으로 2.5배 증가해 기증건수와 기증자가 거의 같은 비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후각막기증이 988건에서 2,386건으로, 뇌사시 장기기증은 995건에서 2,411건으로, 신장기증은 142건에서 302건으로, 골수기증은 202건에서 457건으로, 사후 시신기증은 634건에서 1,45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생존시 이식이 필요한 신장과 골수의 기증률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기증서약을 했다는 차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다는 불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 사무처장은 "가족이나 친구를 따라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수동적 참여에서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는 불자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목탁소리 스님과 정치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최근 포항시 모 사찰의 일부 신도들은 신임 주지 임명반대 촉구대회를 열고 종단에 서명부와 탄원서를 보냈다. 신도들의 신임주지 반대 움직임은 간혹 벌어지는 해프닝이지만, 이번 일은 '스님의 정치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지방 일간지의 사회면을 크게 장식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내용인즉, 사찰 신도들은 "신임주지로 내정된 모 스님이 7년전까지 이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며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에 출마하는 등 사찰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참신한 스님을 새 주지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다.

당사자인 신임주지 스님측은 "이번 사태는 1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현주지 스님이 임기연장을 위해 일부 신도를 사주한 결과"라며, "반대 서명 등에 포항과 관계없는 부산 및 울산지역 사람들이 포함된 게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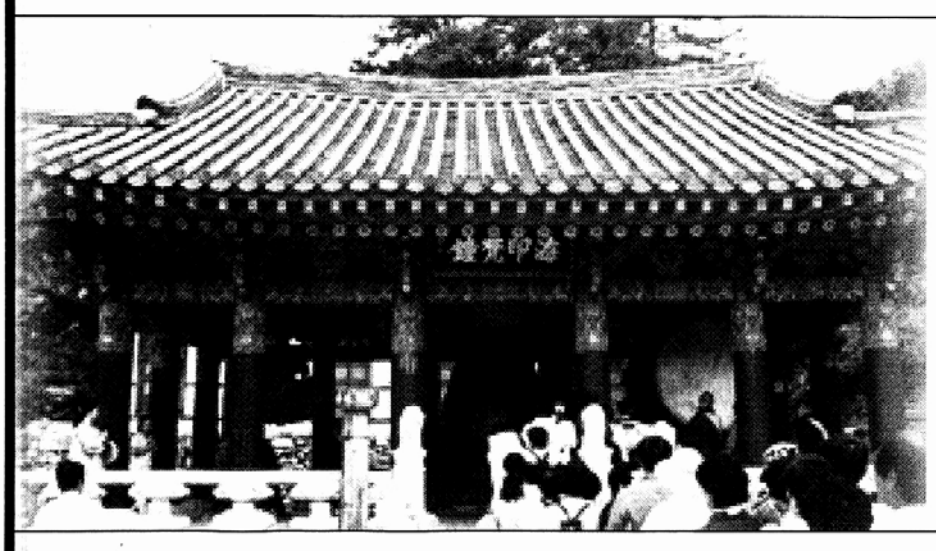
신임주지 스님의 주장대로 신도들의 임명반대 요구는 주지임명을 둘러싼 단순한 내홍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당 스님의 경력이 신도들의 주장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곱씹어 볼 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종교와 정치는 늘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치가 권력을 지향하는 반면 종교는 출세간적인 이념과 실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이 가야할 정도(正道)를 안내해 주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종교와 정치는 상호 보완관계를 이뤄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0조 제2항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교분리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스님들은 파사현정의 자세에서 정치를 비판하고 바른 길을 제시할 지언정,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 왜 출가를 했는지, 출가본래의 목적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 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봐타 마스터 / 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 만을
생각합니다.
謹賀新年

장인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 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 212-0903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佛紀 2545년 (辛巳年)

이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大韓佛教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朴德水　教務部長 邊春光
教育部長 金道圓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李門德　糾正部長 趙珍德

宗議會
宗會議長 尹德山
副議長 金國星　副議長 裵斗出

監査院
監査院長 朱正山
監査委員 李法山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研究院長 金煥泰
金剛佛教大學長 李載昌　救仁寺專門講院 金智福

忠北 丹陽郡 永春面 栢子里132-1
☎ 043) 423-7100~8 / FAX : 043) 420-7399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安德菴

司書室長 鄭尋眞

■ **總務院長 宋宗演**
總務部長 朴一雲　社會部長 白雪雲
教務部長 文學鉉　糾察部長 房守寶
財務部長 金法宣

■ **中央宗會議長 柳南坡**
副議長 金大雲·金法藏

■ **中央司正院長 金蓮雲**
副院長 李白牛

우 540-800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 061) 754-5247 / FAX : 061) 754-5043
서울종무처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 02) 745-2030 / FAX : 02) 745-1615

온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되어 즐거움을
나누는 2001년 만다라 세상
진각종이 함께합니다.
(JGO : The Joy of Genuine Oneness)

總印 覺海
統理院長 省超

불교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 1588-5525
전　　화 : 02) 913-0751~4 / FAX : 02) 913-0755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總務院長 李泓坡
副院長 金智攝

總務部長 黃法明　教務部長 洪智默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李法炫
監察部長 金垈弘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朴松月　副議長 金性哲

教育院長 金東靈
修教部長 尹祿峰　譯經部長 權宗一

布教院長 鄭法性
布教部長 柳牛耕　組織部長 趙法護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 02)763-3345,0054 / FAX : 02)763-5851

大韓佛教 普門宗

宗正 千慧眼

元老院長 崔慧月
總務院長 鄭慧日
總務院副院長 崔智性
宗會議長 李智環
護戒院長 曺法綜
總務部長 李法善
教務部長 金眞雨
財務部長 吳仁太
布教部長 李明浩

宗徒一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번지
☎ 02) 928-3797 / FAX : 02) 926-9752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輪宗

宗正 靈山正覺

宗正 禮敬室長 : 釋 慈 明

■ **元老院長 : 釋 慧 牛**
元老 : 釋 錦 岩　釋 慧 眼　釋 碧 松
釋 用 明　釋 慧 明

■ **總務院長 : 釋 德 山(昌法)**
副院長 : 釋 普 明
·總務部長 : 釋善宗·教務部長 : 釋法常·社會部長 : 釋度光
·文化事業部長 : 釋道林·財務部長 : 釋奉安·糾正部長 : 釋無學

■ **宗會議長 : 釋 慧 峰**
副議長 : 釋 承 道　釋 元 峰
司正院長 : 釋 珉 鍾　教育院長 : 釋 法 泉
研修院長 : 釋 明 眞　布教院長 : 釋 度 昇

中央宗會議員 및 宗徒 一同

總務院 : 서울特別市 鍾路區 壽松洞 十三
전화 : 02)733-4445~6 / 팩스 : 02)733-4447

한국불교 정토종

종　정 : 김노지산　총무원장 : 정영춘 회암

종회의장	법보	서울경기교구원장	혜광
전국비구니회장	지연	인천 교구원장	불광
총무원부원장	성일	충남 교구원장	향림
교육원장	혜원	충북 교구원장	길상
감찰사정원장	혜암	경북 교구원장	보경
포교원장	자현	부산 교구원장	정담
중앙호법원장	보덕	경남 교구원장	진성
사서실장	법성	동해 교구원장	석범
총무부장	정암	전북 교구원장	원호
재무부장	설정	전남 교구원장	영상
교무부장	법진	제주 교구원장	종훈
문화부장	성덕	중앙선원장	육허
사회부장	혜심	중앙포교법사위원장	원회
규정부장	성은	중앙포교법사원부원장	혜광
의전부장	성담	부산포교법사원원장	불성
교육부장	원행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2동 926-27(새나드리프라자 4층)
☎ 032) 543-2693-5 / FAX : 032) 543-2695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석인왕

원로원장 김무공
종회의장 허법성
총무원장 신명안
호법원장 김법우
규정원장 박청산
포교원장 홍법룡
종찰원장 신혜안

총무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2 대 약사사
☎ 043) 731-2261 / 011) 483-2267
경기서울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산7번지 약사사
☎ 031) 734-3205 / FAX : 031) 735-3374

대한불교본원종

종　정 : 권태허

원로원 원로원장 강무구
중앙종회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김대연　종회부의장 박대성

총무원장	이대화	재무부장	이대봉
감찰원장	박보명	교무부장	정대련
교육원장	김동광	규정부장	강만공
문화원장	장대범	교육부장	이운공
포교원장	김용담	조직부장	이관곤
총무부장	김만혁	계획부장	김일광
사회부장	최철송	포교부장	윤대허
		사서실장	손무공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 02-391-4376 / FAX : 02) 391-4376